

기차 여행의 친구, KTX매거진

KTX

September 2021



앱을 내려받으면
무료로 전자책을
볼 수 있습니다.



영월

평안과 환희의 시간, 영월
우리가 꿈꾸는 모든 여행, 육해공 포항
결실의 계절에 만산 완주의 맛과 멋



JACOB&CO

GENEVE



JACOB & CO.
BUGATTI CHIRON TOURBILLON

JACOB&CO

GENEVE



SEPTEMBER 2021

KTX

074

▶ **테마 여행**
평안과 환희의 시간, 영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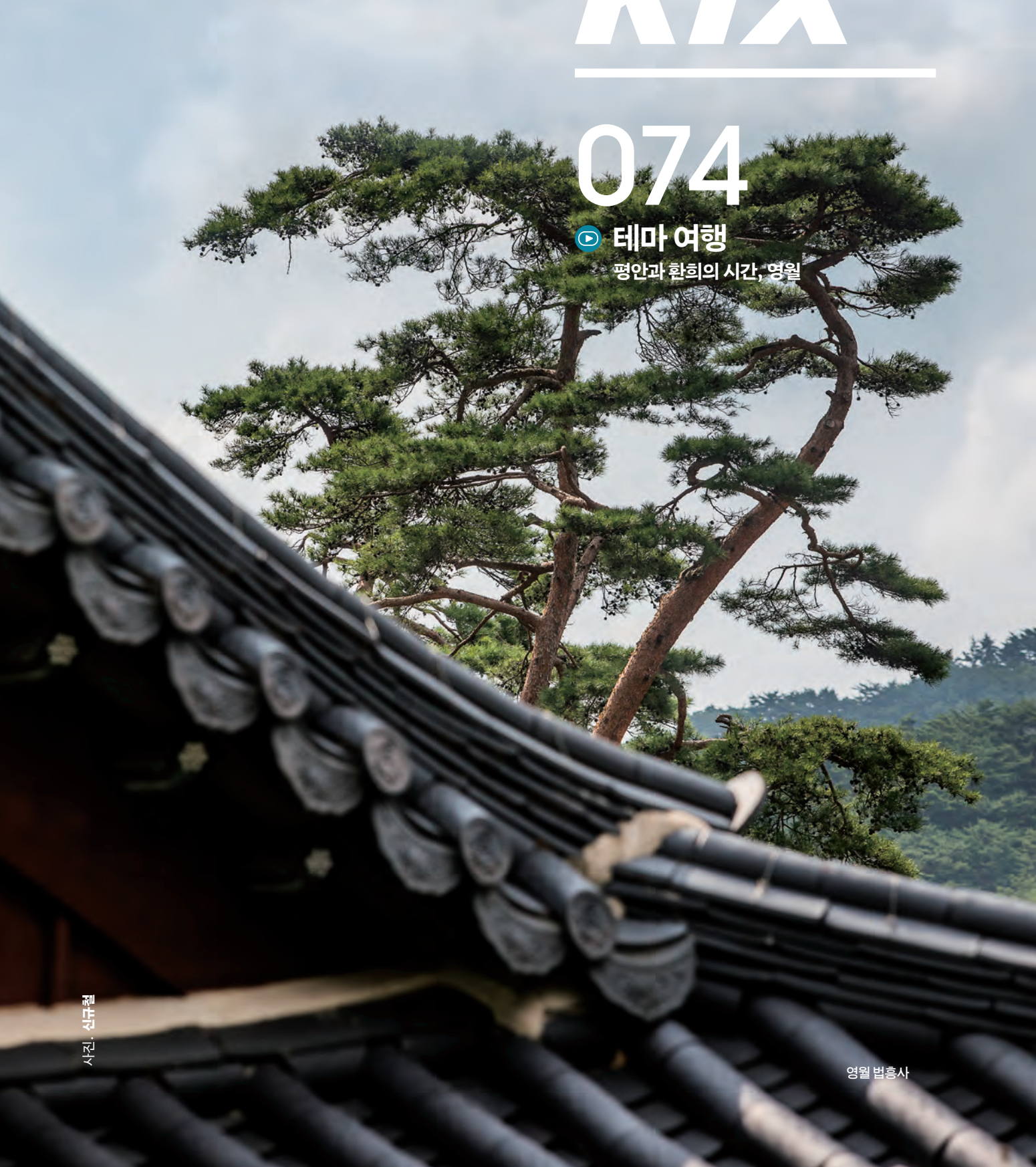


사진: 신규철

영월 법흥사

BTS 정국

정국아
생일 축하해요



1997

HAPPY
JUNGKOOK
DAY

H A P P Y B I R T H D A Y T O

Jungkook

LOVE FROM. ByMySide_KookV

Contents



102

슬로 여행 ㉠ 예쁜 카페가 가득한 강원도 춘천을 운영미 아나운서와 다녀왔다.



책 속 부록 ㉠ 가을날에 맛과 멋이 한창 무르익는 전북 완주의 그윽한 여행지를 누렸다.



134

작가의 방 정재영 작가는 작품 앞에서 솔직하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COVER STORY

영월
 영월 관공터의 빨간 입구로 강원도 영월의 초록 풍경이 날아온다.
 글. 김규보 사진. 신규철

〈KTX매거진〉은 시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보이스아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코드를 스캔하면 글을 읽어주며, 60여 개 언어로 번역도 지원합니다. 자동 번역기를 사용하기에 번역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절린이 되어주세요

에너지 절약친구

"적정온도 26°C를 지키는 저탄소 생활 실천이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26

"적정 실내온도 26°C 설정"

"에어컨 사용 전 필터 청소"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1등급 사용"

"에어컨 사용시 2시간마다 창문열기"



Contents

SEPTEMBER 2021

026

우연한 발견

장수 브랜드가 젊어졌다. 헤리티지를 개성 있게 변형해 MZ 세대를 유혹한다.

028

잡학 사전

단순히 길만 알려주는 게 아니다. 별자리, 맛집 등 지도 앱을 알아봤다.

038

전국 맛집 탐방

서울의 고즈넉한 한양도성 세 구간에서 성벽 풍경과 어우러지는 맛집을 발견했다.

048

백년가게·백년소공인

한결같은 마음으로 노력하는 충남 금산의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을 만났다.

068

사진이 그린 여행

산과 물이 만난 풍경, 전남 여수 미평 봉화산 삼림욕장의 가을을 걸었다.

118

여행자의 방

신념을 다해 전통을 이어 가는 전남 보성의 한옥 세 곳을 소개한다.

144

문화 돋보기

명절을 맞아, 옷다 울다 자꾸 떠오르는 세계 영화속 가족 이야기를 모았다.

KORAIL INFORMATION

172 한국철도 소식

178 시간표

188 편의 시설 및 부가 서비스

190 열차 이용 안내

192 비상시 행동 매뉴얼

CUTLINE

photochromic 2 laser purple

루디프로젝트코리아 02.554.0330 rudykorea.co.kr

루디프로젝트 전속모델 박진이프로

SEPTEMBER 2021

2021년 9월호 제18권 제9호 통권(제210호) 2021년 9월 1일 발행

발행인	정왕국(한국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	
편집	(주)성우애드컴 02-890-0900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1001-3호	
	편집인	이민성 leems@swadcom.co.kr
	편집국장	이영란 anayoung22@swadcom.co.kr
편집장	김현정 kimhj@swadcom.co.kr	
	부편집장	김규보 kkb0911@swadcom.co.kr
	기자	이내경 lnk@swadcom.co.kr
	기자	표다정 pdj123@swadcom.co.kr
	인턴 기자	김재은 kje0505@swadcom.co.kr
	교열	오미경
디자인	아트 디렉터	권영주 kyj@swadcom.co.kr
	디자이너	임보영 lby@swadcom.co.kr 윤범식 bumdiki@swadcom.co.kr 엄정운 ejy@swadcom.co.kr 이원경 leew@swadcom.co.kr
	광고 디자이너	서희지 heezees@swadcom.co.kr
사진	LIGHT FACTORY STUDIO 070-4119-3014	
	디렉터	신규철 이규열 이창주
	실장	이철 조지영 박정우 장은주
	사진 자문	유병용 디지털사진연구소 사진티나
번역	박경리(영어)	
광고	팀장	조현익 jony2@swadcom.co.kr
	부장	심재우 jwshim22@swadcom.co.kr
	대리	이기찬 kclea_40@swadcom.co.kr
제휴 마케팅	(주)쓰뉴미디어 박은자 kawai_ejp@hotmail.com	
제작 지원	이사	이현웅 hulee@swadcom.co.kr
	실장	조종형 chong@swadcom.co.kr
	부장	국선희 heeya9722@swadcom.co.kr
법률 자문	김병철(문장중합법률사무소 02-3477-0588)	
애플리케이션 제작	(주)굿초이스	
	(주)타라티피에스	



기차 여행의 친구

<KTX매거진>은 KTX와 ITX-새마을, ITX-청춘 열차 내 전 좌석에 비치하는 월간지입니다. 보신 뒤에는 다음 승객을 위해 제자리에 꽂아 주시기 바랍니다.
<KTX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 편집 02-890-8434 광고 02-890-0907

정수기 관리, 깨끗하게 손 떼세요!

알아서 케어하는 자가관리 정수기

- 4단계 하이브리드 필터
- 코크 자동 UV 살균
- 에어리스 직수
- 유로관 자동 세정
- 원터치 필터 세척

루헨스 마이셀프 정수기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을 위한 루헨스
마이셀프 정수기를 지금 만나보세요.

꾸준히 스트레칭해서

"날씨가 좋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여기서 '좋다'는 내 입장에서 편리하다는 뜻이니까요. 화창하다, 맑다, 청명하다, 이런 단어가 정확한 표현이기도 하고요. 내게 '좋은' 날씨가 누군가에게는 원망스러운 날씨, 나아가 어느 생명체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날씨가 될 수 있잖아요. 지금 내리는 비가 농작물에 절실하다면 내 옷과 신발이 젖는 불편이 뭐라고요. 농사든 수렵이든 자기 입에 들어갈 식량을 직접 구하는 시대에서 멀어지다 보니 자연을 대하는 감각도 그만큼 달라졌어요. 예를 들어 비는 '우산 들고 다니기 귀찮다' 내지는 '한옥 처마에서 비 떨어지는 소리가 운치 있지' 정도라고 할까요.

반복하는 일상은 나의 행복, 편리함과 불편함을 기준 삼아 감각을 쪼그라들게 해서, 안 쓰는 감각은 굳어지고 무뎠어요. 감각의 스트레칭이 필요하다고, 내 위주로 불편한 사항을 투덜대기만 하다간 내 세계가 나를 중심에 둔 아주 작은 원이 되고 말리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렇다 해도 취재할 땐 그곳이 맑길 바라면서 기상예보를 몇 번씩 확인하고 일정을 잡아요. 해당 지역을 1년 내내 방문하는 것도 아니고 1년 중 내가 촬영하는 하루 이틀 정도는 쾌청한 날씨를 빌어도 괜찮겠지 합니다. 사진이 중요한 여행 잡지에서 파란 하늘과 햇볕은 '천연 포토샵'입니다. 바다, 숲, 문화유적은 물론 발에 찬 돌맹이 하나도 햇살을 받으면 예뻐져요. 여행이 여행자와 지역 주민 모두에게 유익하다 믿고, 여기를 여행하시라 추천하는 기사에서는 '천연 포토샵'의 혜택을 입은 사진이 간절하지요.

그 소원이 언제나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이번 포항 출장이 그랬어요. 야심 차게 기획한 패러글라이딩 촬영을 접을 마음의 준비를 할 만큼 오전엔 비가 쏟아졌어요. 지금이야말로 감각의 스트레칭 시간. '모든 여행지는 여행지이기 전에 삶의 터전이다. 잠시 스쳐 가는 손님 말고 여기 살아가는 분이 주인공이다. 세상 모든 땅에는 비가 필요하며 오늘은 이곳에 비가 내리는 날이다.' 정작 가장 불편할 규철 실장님이 걱정 말라고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고마웠는지요. 흐린 날은 흐린 대로, 비 오는 날은 비 오는 대로 분위기가 있다고, 그냥 찍으면 된다고, 오후에 날이 개어 패러글라이딩을 촬영했고, 최선을 다한 최고의 사진들을 지면에 실었습니다. 화창하지 않아도 촬영 장소들은 아름다워서 숨이 막혔어요. 제겐 상상력이 있으니 하늘이 새파란 날의 풍경을 그려 보기도 했지요.

다른 기자들은 날씨 소원이 이루어졌는지 다들 푸른 하늘과 멋진 풍경을 담아 왔어요. 접어서 편지를 쓰고 싶은 가을 하늘이더라고요. 벌써 추석이에요. 여행하고 달구경 하기 맞춤형 계절이에요. 여행과 달구경 또한 평상시 사용하지 않던 감각을 스트레칭하는 방법이죠. 펴고, 돌리고, 다른 방향을 보고, 울기울엔 제 세계의 지름이 조금이라도 커지길 바라요. 그리하여 우리 사이에 교집합이 늘어나길. 

<KTX매거진> 편집장 김현정

교집합을 늘릴게요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Wi-Fi 환경에서 유튜브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 가능

더욱 정교해진 AF
향상된 눈검출 AF와 서보 AF 추가로
더욱 정교해진 AF

세로 영상 저장 가능
카메라를 세로로 들고 녹화할 경우
스마트 기기에서도 방향 그대로 재생

동영상 디지털 3-10배 줌 가능
렌즈 종류 상관없이
화면 중앙 약 3-10배 확대 촬영 가능

사진도 영상도 결국 캐논
EOS M50 Mark II



LIVING



Point
 캐노피, 새시의
 다채로운 컬러 옵션

부가부 비 6

우리 아이의 안전만큼 중요한 게 없다. 콤팩트한 사이즈의 '부가부 비 6'는 네 바퀴 모두 독립적인 고성능 서스펜션을 탑재하여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주행감을 제공한다. 무엇보다 한 손으로도 쉽게 접혀 휴대성이 좋고, 셀프 스탠드 기능을 갖춰 좁은 공간에도 보관하기 용이하다. 고성능 패브릭으로 마감한 시트는 편안함을 주며 신생아부터 4세 유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가부 코리아 1577-0680



AHILO



Point

맑은 날 보랏빛으로
변하는 렌즈

컷라인

여러 조각을 연결한 듯한 감각적인 디자인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스포츠 선글라스 '컷라인'에 사용한 최첨단 와이드 실드 렌즈는 넓은 시야를 보장하면서 자외선을 차단하고 빛에 따라 색이 저절로 변해 골퍼의 실력 향상을 돕는다. 특별한 도구 없이도 렌즈를 교체하는 상하부 탈착식 범퍼 시스템을 적용해 편리하다. 루디프로젝트 02-554-0330

집에서 완성하는 럭셔리 라이프 결점없는 피부를 위한 LED케어

L.ma
LED MAGIC

엘마 L.ma
<https://www.lmashop.com>
1522-6626



메이크업 하지 않아도
빛나기 시작하는
피부

최대 20연사에
5축 손 떨림 보정 기능

Point



EOS R6

특별한 순간을 선명하게 기억한다. 'EOS R6'는 풀 프레임 CMOS 센서를 탑재해 4K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으며, 2010만 화소 사진을 최대 20fps 속도로 연속 촬영한다. 특히 EOS 시리즈 최초로 카메라 내에 5축 손 떨림 보정(IS) 기능을 채택, IS 기능이 없는 렌즈를 조합해도 최적화된 결과물을 보장한다.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주) 1588-8133

비요트를 찍어봐

서울우유 1급 A 원유로 만든 부드러운 플레인 요거트와 다양한 토핑의 조화
(원유 72% / 초코링기준)



viyott Delicious topping yogurt

입맛대로! 기분대로! 골라먹는 7가지 토핑!



초코링 달달한 부드러움



크런치볼 달콤 바삭바삭



쿠기엔크림 부드러움의 레게노



오!그레놀라 한끼식사로 굿



후루트링 상큼한 후루츠



초코팝 툭툭 튀는 팝핑



초코크리스피 바삭한 다크초크



48리터 앞문 오픈형 폴딩 박스

내하중 100킬로그램, 압축 하중 1000킬로그램을 견디는 '48리터 앞문 오픈형 폴딩 박스'다. 크기가 넉넉해 물건을 많이 보관할 뿐 아니라 여러 개 쌓아 올려도 정면이 앞쪽으로 열려 물건을 꺼내기 수월하다. 활용 방법도 다양하다. 기능과 디자인을 겸비해 캠핑 박스, 공구 박스, 차량 트렁크 정리함 등으로도 제격이다. 빅앤트 055-344-0780

MOUTAI

A TOAST TO THE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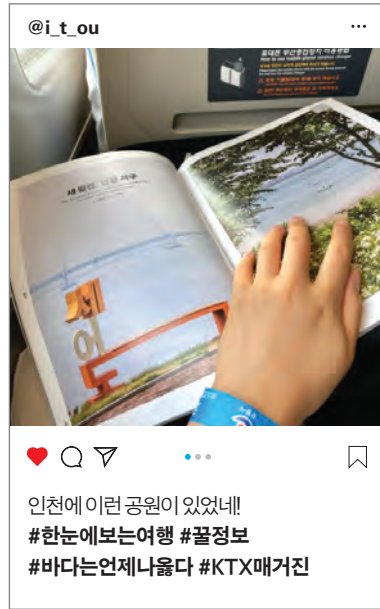


문의 02-3665-6611 www.moutaikorea.net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하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 발생이나 유산의 위험을 높입니다.



용성통상(주)
Yongsheng Co., 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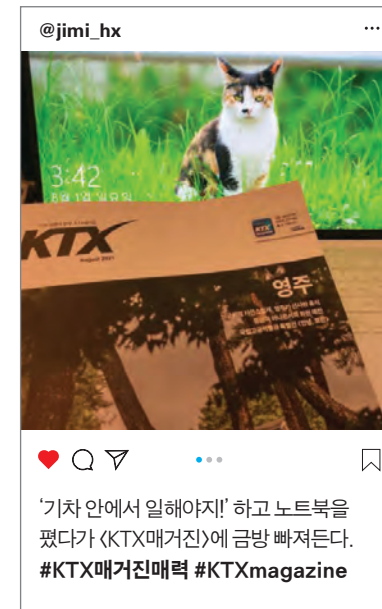
귀주마오타이주
한국공식 수입판매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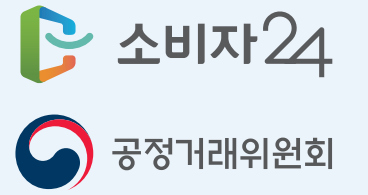
#KTX매거진
#SNS에서 #찾은
#생생한 #리뷰 #달리는 #KTX안
진행. 김재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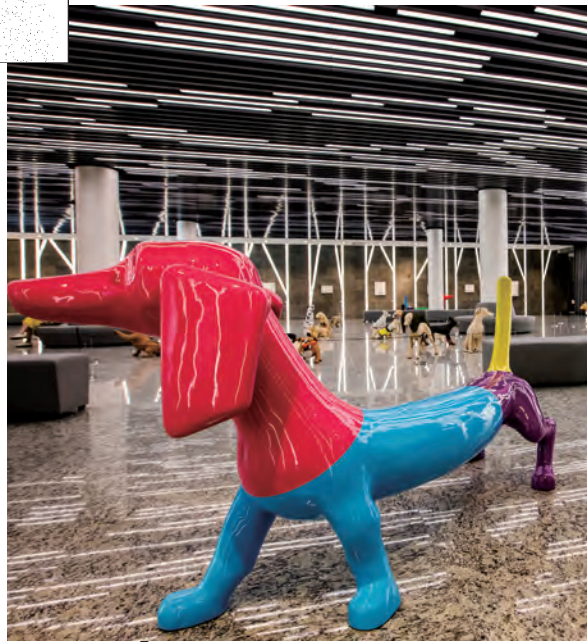


SNS 채널에 #KTX매거진을 태그해 올려주세요.
'기차안SNS'에 선정된 분께는 내추럴 허브 코스메틱 브랜드 비더스킨의 '보테니컬 포어 세럼'와 '비더스킨 이지 포밍 클렌저'를 선물로 드립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소비자포털 공신력 있는 소비자정보 피해구제까지 한번에





[슬로 여행]
박희준·배현국

강아지숲 테마파크 홍보팀장·학예사



[에디터 자유 여행]
안유성

광주 '가매일식' 오너 셰프



[책속 부록]
배어진·김화선

영월군청 문화관광과 주무관



[테마 여행]
이아름

영월군청 문화관광체육과 주무관

이렇게 좋은 곳을 이제야 알다니. 반려동물의 반려인으로서 반성합니다. 하나 더 추가할게요. 쉬는 날 회사로 나오게 해서 죄송합니다(굽실굽실ㅠㅠ). '강아지숲 테마파크'는 월요일에 휴무인데 하필 취재를 월요일로 잡았다. "취재 어렵겠습니다"가 아닌 "시간을 내 보겠습니다"라고 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던지. 늦어짐 내리찍는 햇볕 아래에서 사람과 반려견 모두 고생했다(위 사진의 두 분은 그 중심에 있었다). 천연 잔디로 뒤덮인 동산, 두 번 관람해도 가슴 뭉클해지는 강아지숲 박물관, 산책로를 포함한 모든 공간이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꼈다. 전국의 반려인들 모여라! 표다정

여행 기자라서 좋은 점 중 하나는 전국 방방곡곡 맛있는 음식을 먹어 본다는 것이다. 목포, 나주, 담양, 광주를 여행하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남도 맛 기행'은 그 장점을 여실히 경험한 시간이었다. 그 가운데 광주 '가매일식' 안유성 셰프의 남도 초밥이 기억에 남는다. 유명인의 찬사 그대로, 생선회를 그다지 즐기지 않는 나의 입맛에도 잘 맞았다. 배부른 줄도 모르고 과식해 소화제를 먹을 만큼 훌륭한 일식이었다. 이학박사에 대한민국 조리 준명장까지, 30년 요리 내공을 지닌 달인이지만 막 개업한 식당의 셰프처럼 수줍어하면서도 최선을 다해 음식을 만들어 주신 안유성 셰프에게 특별히 감사 인사를 드린다. 이영란

눈썰미 좋은 분은 알아차리시겠지만... 네, 맞고요~ 맞습니다. 이번 호 '책속 부록' 완주 편의 대한민국의 테마박물관에서 술을 빚기도 하고, 술잔을 기울이기도 한 바로 그 모델 두 분입니다! 여행지 촬영에서 모델이 필요하면 주무관님께 SOS를 요청하는데, 이번이 그런 경우였다. 도움을 구하자 배어진·김화선 주무관님이 흔쾌히 승낙해 주셨다. 따가운 햇볕 아래에서도 얼굴 한 번 찌푸리지 않는 모습에 기본 좋게 촬영했다. 얼굴은 빚지 못했지만 많은 도움 주신 이은지 팀장님께도 감사 인사 전해요~ 모든 분 덕분에 완주의 멋진 여행지 두루 둘러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정말 재미있었어요:) 이내경

주무관님이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다. 영월관광센터 취재가 끝나고 다음 취재지인 물우리골 생태공원으로 가려는데 내비게이션에서 검색이 안 됐다. "어떻게 가죠?"라고 질문하자 대답 대신 꺼낸 태블릿의 화면에 지도가 나왔다. "직진하다 왼쪽으로 꺾어요. 영월장릉을 지나 조금 가면 숲속으로 빠지는 길이 있어요." 주무관님이 지도를 짚으며 말했다. 영월관광센터에서 물우리골 생태공원까지 자동차로 5분 거리다. 태블릿을 꺼내지 않아도 설명할 수 있다. 그래도 지도로 확인하니 내비게이션 없이 잘 갔다. 영월을 취재하는 1박 2일 내내 주무관님은 이렇게 살뜰히 도와 주셨다. 주무관님이 애정하는 영월관광센터 흥해라! 김규보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되는 제증명서를 공단 방문 없이 발급받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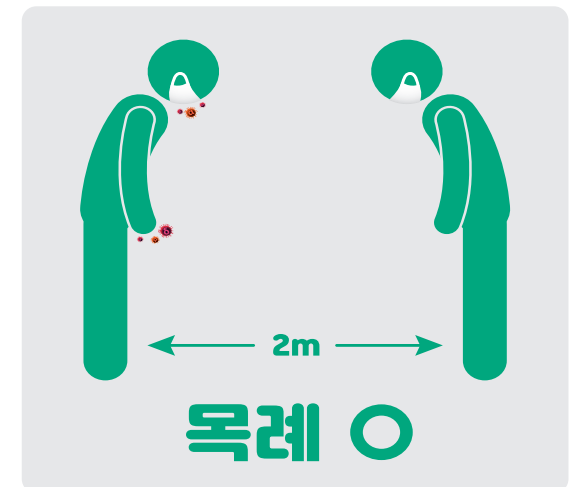
건강보험 제증명

- 
공단홈페이지
 • 건강보험공단 : www.nhis.or.kr • 정부24 : www.gov.kr
- 
모바일앱
 • THE 건강보험, 정부24


 <아이폰>
 모바일 앱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무인민원발급기
 • 정부설치 발급기에서 지문인식 후 발급

변이바이러스에도 목례는 주먹악수보다 안전합니다.



장수 브랜드

'힙'한 장수 브랜드의 '잇템'



JINRO

귀여운 두꺼비 피겨는 보는 순간 소장 각이다. 지역 특색이 녹아든 한정판 피겨도 판매한다.



SAMHWA PAINT

브랜드의 옛 마스코트 원더베이비와 로고를 프린트한 티셔츠와 모자가 감각적이다.



GOMPYO

한 달에 300만 캔 이상 판매되는 밀맥주. 달콤한 열대 과일 향이 특징이다.



MOWAMI

심플한 반스 운동화에 아기자기한 153 볼펜 아이콘과 로고가 포인트다.

LONG-LASTING BRAND 오늘도 청춘, 젊어진 그대

장수 브랜드가 회춘했다. 헤리티지를 개성으로 승화해 MZ 세대를 유혹한다.

글. 이내경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하물며 사람도 상대를 기억할 때 의미 있는 관계가 되는데, 기업이야말로 소비자가 그 매력을 알아야 살아남는다. 역사가 50년 넘는 장수 브랜드라고 해도 예외는 아니다. 정체성은 잃지 않으면서 트렌디한 감각을 꾸준히 수혈해야 수명이 늘어난다. 최근 주요 소비 계층으로 떠오르는 MZ 세대를 사로잡기 위한 장수 브랜드의 노력이 치열하다. MZ 세대는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까지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태어난 Z 세대를 아우른다. 트렌드에 민감하며 경험을 중시하고, 스마트폰 사용이 친숙해 SNS로 정보를 거름 없이 공유하는 이들을 소구해야 하기에 장수 브랜드는 독특 튀는 기획을 선보인다.

장수 브랜드의 변신은 뉴트로 붐에 편승하면서 시작했다. 뉴트로(뉴+로)는 복고(retro)를 새롭게(new) 즐긴다는 신조어다. 장수 브랜드의 '올드함'이 '특별함'으로 변신한 계기다. 지난 4월 삼화페인트와 패션 브랜드 크리틱의 콜라베이션은 브랜드 헤리티지를 요즘 감성으로 풀어내 성공한 사례다. 실제 삼화페인트 작업복을 스트리트 브랜드의 개성으로 커스텀한 재킷과 팬츠, 삼화페인트의 옛 마스코트 원더베이비를 프린트한 티셔츠 등 굿즈 17종을 출시해 호기심을 자극했다. 기발한 콜라베이션에 구매욕은 폭발했다. 론칭 7일 만에 상품 7종이, 그 이후 6종이 더 품절됐다.

대한제분의 밀가루 브랜드 곰표와 하이트진로는 뉴트로 바람을 슬기롭게 이용하는 대표적 장수 브랜드다. 두 기업은 자사의 캐릭터 표고미와 두꺼비를 적극 활용한다. 다만 접근 방식이 다르다. 곰표는 밀가루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와 표고미 이미지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다른 업체와 콜라베이션해 상품

을 기획한다. 밀가루의 하얗고 깨끗한 이미지를 반영한 곰표 밀가루 쿠션, 곰표 치약 같은 제품과 밀가루 포대 느낌을 살려 대용량으로 포장한 곰표 팝콘, 곰표 나초 등 다양하다. 무엇보다 곰표와 콜라베이션한 제품은 표고미와 복고풍 서체가 눈에 띄는 밀가루 패키지 디자인을 응용해 어디에서도 알아보기 쉽다. 하이트진로는 2019년 진로를 부활시키며 상품 디자인과 캐릭터를 현대적으로 리뉴얼했다. 병 모양, 라벨 사이즈, 색깔 등에 변화를 주고 두꺼비는 눈망울을 초롱초롱하게 만들어 귀여운 느낌을 살렸다. 나이가 두꺼비를 그려 넣은 잔, 사무용품, 침구류 등 굿즈를 개발하고 지역에 팝업 스토어를 오픈했다. 지난해 서울 성수점에 처음 문을 연 '두껍상회'는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인천, 강릉을 거쳐 현재 대전에서 운영 중이다. 대전 두껍상회에서는 지역을 연고지로 둔 프로야구 구단 한화이글스의 두꺼비 피겨와 배지 한정판도 판매한다. 두껍상회에서의 소소한 즐거움은 소맥 자격증을 발급해 준다는 것. 미성년자는 출입이 불가한 '어른이'의 놀이터다.

공간은 경험을 유발한다. 모나미는 복합 문화 공간 '모나미 컨셉스토어'에서 소비자가 모나미 제품을 보다 잘, 재밌게 쓰는 방법을 알려 준다. 153 볼펜의 꼭지, 몸통, 마개 세 부분을 다른 색으로 조합하는 코너, 열다섯 가지 색 잉크를 조합해 나만의 만년필 잉크를 제조하는 DIY 체험 공간인 잉크 랩 등 모두 특별하다. 매장 곳곳에 비치한 컬러링 북, 종이, 펜은 너도나도 칠하고 그리는 데 몰두하게 한다. 필기구의 쓰임 그 이상을 체험하는 공간이다.

장수 브랜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 변신을 기획했지만 새로운 경험과 소비를 추구하는 MZ 세대를 만나 즐거움과 신선함을 선사하고 있다. 할아버지가 마시던 소주를 손주도 트렌디하게 마신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높은 품질이다. 브랜드의 힘은 잠깐의 재치가 아닌 신뢰에서 나오니까.



정보와 재미를 동시에, 지도 앱



길만 알려주는 게 아니다. 스마트폰에서 별자리, 전기 자동차 충전소, 맛집 지도가 펼쳐진다.

글. 김규보



맛집



실시간 항공기



별자리



여행한 곳



지도 다운로드



캠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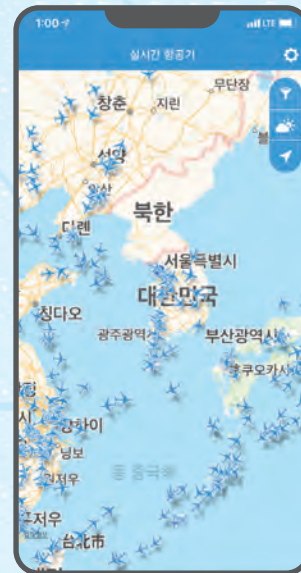
레포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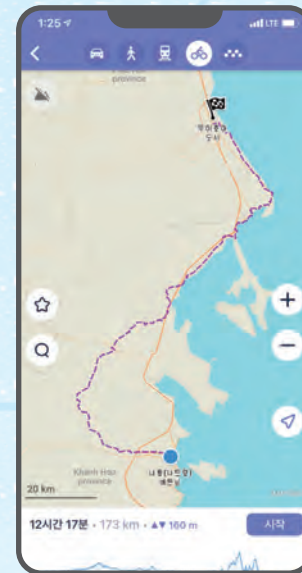
전기차 충전소



푸딩코 인터넷, 책 속 맛집 정보를 모아 A4 용지에 적어 쌓으면 해양성에 달겠다. 그리 방대한 정보 중 믿음직스러운 정보만 쏙 빼낼 순 없을까. 48만 명이 팔로한 인스타그램 맛집 소개 페이지 '푸딩코'가 앱을 오픈했다. 에디터, 아니 '맛잘알' 푸디터가 검증한 맛집을 지도에 표기하고 워기만 해도 배부른 맛깔스러운 글로 음식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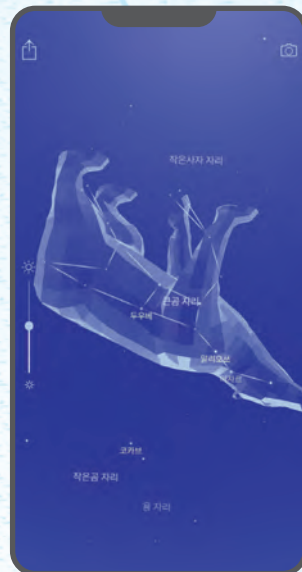
실시간 항공기 현재 운행하는 모든 항공기의 실시간 위치가 항공기 이모티콘으로 표시되는 세계지도를 본다. 얼마나 재미있을까? 항공기 이모티콘을 클릭해 실시간 고도와 속도, 위도와 경도를 확인해 본들 신기하거나 할까? 전 세계 공항의 지도와 출발·도착 시간표, 식당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고 놀라겠는가? 재밌다. 신기하다. 놀랍다. 엄청.



MAPS.ME 해외여행 시 데이터를 로딩하거나 현지 유심을 쓰지 않겠다는 패기를 부렸지만 와이파이기가 터지는 곳을 찾지 못해 울면서 현지 데이터를 사용한 경험, 두어 번 있다. 지도를 미리 다운로드해 데이터 걱정 없이 호텔, 환전소 등 필수 방문지를 검색하고 이동 경로를 탐색한다. 하늘로 날아간 데이터 걱정은 'Star Walk 2' 앱으로 관찰하자.



차박지도, 캠핑 캠핑을 좋아하는 나 같은 사람이 날마다 줄어드는 대 캠핑 시대에 노지 캠핑과 차에서 숙박하는 차박을 선호하는 하드코어 캠퍼가 환영할 앱이다. 전국 1000여 곳의 캠핑장, 노지 캠핑장과 차박지를 담았다. 캠핑지 소식을 매일 업데이트하며 화장실 유무가 짐을 좌우하는 차박의 경우 화장실까지 거리를 10미터 단위로 기록했다.



Star Walk 2 "밤하늘의 별을 따서 너에게 줄래" 노래만 부르지 말고 저 별 이름은 뭐고, 몇 광년 떨어져있고, 저기 별 우리가 어떤 별자리인지 설명해 주자. 저건 실은 별이 아니라 위성이라는 사실도. 당신은 높은 확률로 천문학자가 아닐 테니, 설명하기 위해선 이 앱을 켜고 스마트폰을 밤하늘로 향해야 한다. 실시간 밤하늘 지도에 나타나.



포토로그 시절 때문에 두 번 갈 여행을 한 번만 가야 할 때 남은 시간은 어찌 보낼까. 첫 번째, 여행지에서 그간 촬영한 사진을 지도의 해당 지역에 삽입한다. 두 번째, 여행 날짜와 후기를 적는다. 세 번째, 가족 혹은 친구와 두 과정을 함께 한다. 네 번째, 이렇게 앱에서 작업한 지도를 실물 주문한다. 다섯 번째, 방에 걸고 여행 기록을 느낀다. 끝.



Relive 등산을 사랑해 주말마다 산으로 달려간 그때에 산을 탄 경로를 지도로 보고 싶다 생각하곤 했다. 등산을 비롯해 러닝, 라이딩 등 운동·레포츠를 즐기는 동안 GPS로 위치를 추적한 경로를 지도, 촬영 사진을 합친 동영상으로 무료로 만들어 준다. 계단 몇 개도 힘겹게 오르는 지금 예야이 앱을 알게 된 이유, 그것이 알고 싶다.



JMapEV 기술린·디젤 자동차는 머지않아 사라질 것이다. 드문드문 보이던 전기 자동차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전후좌우에서 자주 포위할 만큼 많아졌다. 관리비와 유류비가 대폭 감소하고 환경도 덜 오염시키는 전기 자동차의 단점이라면 아직 많지 않은 충전소, 위치, 상태, 충전 종류, 이용 시간을 지도로 보여 준다.



NEVER TOO OLD TO PLAY

853만 어르신을 위한 놀이터

지난 6월 한국 최초의 어르신 놀이터가 문을 열었다.
어르신들, 이리 오세요~

글. 표다정

놀이터 하면 아이가 그네를 타거나 미끄럼틀에서 빙글러르 내려오는 모습이 떠오른다. 그렇지, 놀이터는 아이를 위한 공간이지. 놀이터의 의미가 궁금해 사전을 찾아 보았다. 첫 번째 뜻은 "주로 아이들이 놀이하는 곳". 다음 의미는 "집단이나 개인의 활동 장소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충남 공주의 한 놀이터 풍경은 다소 느리게 흐른다. 활기차기보다 차분한 분위기가 감돈다. 놀이기구를 꼭 잡은 손이 주름졌고, 동작은 느릿하다. 놀이터에서 '노는' 사람, 바로 어르신이다. 한국 최초의 '어르신 놀이터'에서 어르신들이 놀고 계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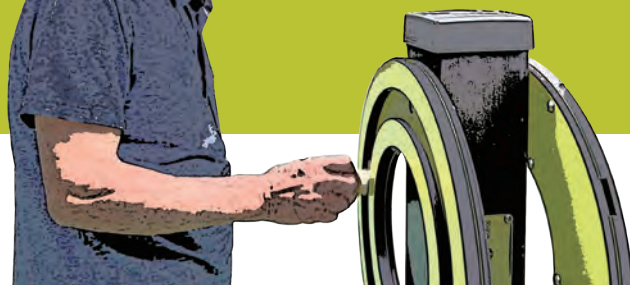
어르신 놀이터는 어르신을 위해 고안한 운동기구를 설치한 공원이다. 양쪽 손가락을 번갈아가며 한 칸 한 칸 짚는 '손가락 계단', 링이 파이프에 닿지 않도록 신경 써 움직이는 '물걸 파이프', 물걸 모양 평균대를 보행하는 '물걸 평균대'처럼 집중력과 유연성을 높이는 기구로 채웠다. 일반 공원의 운동기구는 근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 신체 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된 상태에서 사용하기



힘들어 맞춤 기구를 설치한 것이다. 노인 복지관과 경로당, 노인 교실 등 실내 공간에 한정되었던 노인 여가 복지 시설이 야외로 나온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많은 어르신이 주로 시간을 보내는 장소가 공원이기 때문이다. 소일거리 삼아 경로당을 다니던 옛날과 달리 오늘날 어르신은 밖으로 나선다. 누구나 집 안에서 보낼 시간이 필요하듯 집 밖에서 보내는 시간도 필요하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그 시간을 즐길 권리는 모두에게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앞으로 흘러가니까. 결국 우리 모두의 일이니까.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나 그들을 수용하는, 그들이 머물 만한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한국 최초의 어르신 놀이터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유럽에는 이미 어르신 놀이터가 준비하다. 영국 맨체스터의 놀이터는 조경사와 건축가의 손길로 완성해 '놀기에 늙지 않았어요'라는 슬로건 아래 운영한다. 그때가 2008년이다. 2017년 고령 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2021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853만 명에 달한다. 한국 전체 인구의 16퍼센트다.

서울시 광진구, 경기도 의왕시와 광주시에도 어르신 놀이터가 생겼다.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어르신 놀이터, 어르신 테마파크를 열 예정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속속 들려온다.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조금 늦은 첫걸음이지만, 우리 함께 나아가고 있다. 뽀로로와 친구들도 노래했다. 노는 게 제일 좋다고. 그러니 어르신, 편하게 나오셔서 함께 놀아요. ☑



프로모션

가을은 전국 롯데호텔 패키지와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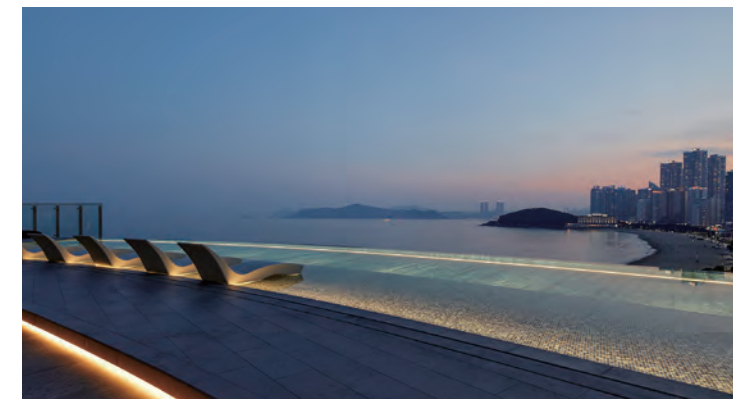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된 롯데호텔 가을 시즌 '어썸 어텀' 패키지를 소개한다.

가을 정취를 만끽하며 편안한 호캉스를 즐기고 싶다면 롯데호텔이 준비한 '어썸 어텀(Awesome Autumn)' 패키지를 주목하자.

시그니엘 서울은 프리미어 시티 뷰 1박, 오후 3시 레이 트 체크아웃, '더 라운지' 애프터눈 티 세트 2인 혜택을 48만 원(이하 세금 및 봉사료 별도)부터 준비했으며, '바81'의 와인 프로모션 또는 호텔 크레딧 20만 원(1박당) 등 특전이 포함된 다양한 패키지도 선보인다. 시그니엘 부산에서는 비건 콘셉트 패키지를 선보인다. 객실 1박, 샤테카이 오렌지 플라워 워터(투숙 기간 중 1회), '더 라운지' 비건 브런치 2인을 39만 1000원부터 예약 가능하다.

롯데호텔 서울에서는 특별한 디저트와 함께 가을 추억을 남겨보자. 객실 1박, 조식 2인, '페닌슐라 라운지 앤 바' 사인머스켓 디저트 트레이 1세트, 즉석카메라 대여 서비스(필름 포함)를 33만 2000원부터 제공한다. 롯데호텔 월드는 디럭스룸 1박, 미니바, 교보문고 2만 원 권으로 구성된 패키지를 25만 원부터, 롯데호텔 울산은 객실 1박, 친환경 허브티 3종 세트, 백리대숲 향 디퓨

저 1개를 포함한 패키지를 12만 7000원부터, 롯데호텔 부산은 객실 1박, 조식 2인, 7만 원 상당의 '도림' 세트 패키지를 22만 2000원부터 판매한다. 롯데호텔 제주에서는 객실 1박, '더 캔버스' 조식 2인, 마리메코 에코백 1개, 룸서비스로 제공하는 모엣상동 하프 보틀과 마르게리타 피자, 카메라 대여 서비스(필름 포함) 등으로 구성했다(44만 원부터). 가격 및 예약 기간은 호텔별로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롯데호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www.lottehotel.com



위대한 첫걸음 루트비히 구트만

제2차세계대전 이후 척추 손상 환자가 연이어
입원했다. 구트만 박사는 휠체어 스포츠 대회를
열었고, 오늘날 패럴림픽이 되었다.

글. 김현정

1948년 7월 29일 영국 런던에서 올림픽이 개
막한 날, 런던 근교 도시 에일즈베리의 스토크
맨더빌 병원에서 스포츠 대회가 열린다. 제2
차 세계대전 중에 척추 손상을 입은 환자 열네
명이 휠체어에 앉아 양궁 경기로 승부를 겨룬
제1회 스토크맨더빌 대회다. 당시엔 주목하는
이 거의 없던 이 대회는 오늘날 패럴림픽의 시
초라 기록된다. 어려운 여건 속에 한 사람의 의
지가 이루어 낸 위대한 첫걸음이었다.

1899년 독일계 유대인으로 태어난 루트비히
구트만은 탄광촌의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며 의
사가 되겠다고 결심한다. 병원 자원봉사를 하
던 청소년기, 척추 손상으로 침대에 누워 지내
는 환자를 본 경험이 큰 충격을 주었다. 척추 손
상 외에는 다른 어디가 아프지도 않았건만 의
사는 환자에게 관심을 접었다. 어차피 움직이
지 못하니 그냥 두라는 것이었다. 마냥 누워만
있던 환자는 금세 사망한다. 일어날 가망이 없
다 판단한 이를 방치하는 분위기가 일반적이었
고, 문제의식을 가진 구트만은 의대에 진학해
신경외과 의사가 된다.

환자 치료와 의학 연구에 헌신한 그에게 시련이
닥친다. 히틀러가 집권한 독일제국은 유대인을
핍박했고, 1933년 의사직에서 그를 제명한다.
1939년 간신히 영국에 망명하자마자 제2차 세
계대전이 발발하고 1943년 영국 정부가 스토크
맨더빌 병원에 국립 척추 손상 센터를 건립하
면서 그 분야 권위자인 구트만을 부른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전 유럽이 히틀러 손아귀에 들어
갔을 때 마지막까지 항전한 영국은 엄청난 규모
의 피해를 입었다. 참전해서 척추 손상을 입은



1968년 이스라엘 텔아비브 패럴림픽에서 루트비히 구트만이 메달을 수여하고 있다.

환자가 이곳에 연이어 실려 왔다.

그는 스스로 자세를 못 바꾸는 환자를 두 시간
마다 움직여 주어 욕창을 예방했다. 오늘날에
는 당연해진 이런 처치를 최초로 고안한 이가
구트만이다.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환
자들은 삶이 끝난 듯 좌절했고 우울해했다. 방
법을 모색하던 박사가 발견한 것은 스포츠. 환
자들에게 공을 주고받게 했다. 나이가 환자들
은 휠체어에 앉아 야외에서 공을 골대에 던져
넣고, 폴로 게임을 했다. 어느새 웃음이 번지고
활력과 승부욕, 삶의 의지가 공기 중에 섞였다.
움직일 수 있는 부위로 움직일 때 기적이 일어
났다. 그는 런던 올림픽 개막에 맞추어 병원 내
대회를 준비한다. 언젠가 세계 모든 나라가 참
가하리라는 원대한 꿈을 꾸며.

꿈은 현실이 되었다. 1952년에는 네덜란드의
상이군인이 참가해 '국제 스토크맨더빌 대회'
로 발전했고, 1960년에는 영국을 벗어나 그해
올림픽 개최지인 이탈리아 로마에서 23개국
40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해 제1회 패럴림픽을
치렀다. 올림픽 폐막 뒤 길은 곳에서 장애인 선
수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해 치열한 승부를 가
리는 모습에 구트만은 얼마나 감격했을까. 세
계에 패럴림픽을, 새로운 가능성과 꿈을 선물
한 그는 1980년 세상을 떠난다. 스토크맨더
빌 대회를 국제 대회로 만들어 준 나라 네덜란
드에서 제8회 패럴림픽을 개최하는 해였다. 한
사람의 꿈이 모두의 감동으로, 올해 도쿄 패럴
림픽은 올림픽과 '나란히' 9월 5일까지 열린다.
산다는 기적, 움직인다는 희망을 만난다. ☑

© Wikipedia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소노펠리체 빌리지 비발디파크 전경
소노호텔앤리조트(구. 대명리조트)에서 신규 출시한 이그제큐티브 클럽
멤버십은 6,000만원대 회원권으로 20년간 골프, 요트, 승마, 워터파크 등
약 2억원 상당의 가치를 상시혜택으로 제공한다.

6,000만원대로 누리는 2억원가치의 독보적 혜택 프리미엄 멤버십 출시!!

글로벌 리딩 컴퍼니로 도약하는 대명리조트의 새 이름, 소노호텔앤리조트

골프, 워터파크, 스키, 호텔&리조트 멤버십 하나로!

새 브랜드로 글로벌 체인 사업에 나선 소노호텔앤리조트(구. 대명리조트)가
VIP 고객을 대상으로 '이그제큐티브 클럽(Executive Club)' 멤버십을
출시했다. 이그제큐티브 클럽은 럭셔리 호텔 서비스와 실속있는 리조트
서비스를 결합한 프리미엄 회원권으로 식음, 골프, 승마, 요트 혜택 등을
담아 고객에게 스페셜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한다.

소노호텔앤리조트는 국내 최대 규모인 전국 16곳 체인망과 1만여 개가
넘는 객실을 보유하여 업계 1위를 자부한다. 폭넓은 여행지 선정은 물론
레저&스포츠 시설을 신규 회원권 하나로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개인 및 법인 명의로 분양이 가능하며, 회원제 상품의 경우 20년 만기시
전액을 반환 해준다.

이그제큐티브 클럽 멤버십은 기존의 회원권과는 완전히 차별화하여 신규
특별 혜택뿐만 아니라 입회 기간 내내 상시 혜택을 제공받는 것이 특징이다.
정회원은 연간 2인 10회 조식 뷔페와 노블리안 라운지 음료 30회가
무료이며, 호텔 내 휘트니스, 수영장, 사우나, 발렛 파킹 서비스 등이 상시
제공된다. 골프 특화 혜택으로는 18홀 코스로 구성된 소노펠리체C.C,
비발디파크C.C, 델피노C.C를 주중 무료, 주말 50% 할인받을 수 있다.

소노호텔앤리조트 측은 "타 업체와 다른 전문 교육을 이수 레저컨설턴트가
상담부터 계약 및 예약까지 1:1 회원 전담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소노호텔앤리조트 회원권의 가치는 '지속적인 개발과 인수 사업'으로 오는
10월 소노펠리체 델피노가 그랜드 오픈을 앞두고 있으며, 브레이크힐스
남해 등이 개발 중이다. 특히 이그제큐티브 클럽 멤버십은 회원권 시장에
없는 독보적인 혜택을 담은 멤버십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이번 신규회원 모집에 대한 분양 카탈로그를 배송해드립니다.
KTX 열차 내 통화가 어려우실 경우, 문자 메시지로 성함 및 주소를 보내주세요 HP.010-4140-6540

문의전화 02)2222-5917 (주말 및 24시간 상담가능)





전국 맛집 탐방



같이 걸을까 같이 먹을까

실내보다 야외에서 보내기 좋은 계절이다.
서울 한양도성을 걷다 만난 맛집을 소개한다.

글. 표다정 사진. 박정우



SABAL

☎ 닭국수 1만 4000원 능이버섯닭곰탕흑미국수 1만 4500원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34, 142호 ☎ 02-720-4845



한양도성 인왕산 구간
돈의문 터·창의문
거리 4킬로미터 소요 시간 약 2시간 30분

사발

호로록 호로록 맛있는 소리가 이어진다. '사발'은 하루에 두 번 끓이는 닭 육수, 손으로 일일이 찢는 닭고기, 하나하나 따로 양념한 고명을 담은 국수를 선보인다. 13년 전, 김기현 대표는 동네에 여성 직장인이 많다는 점을 눈여겨보고 '여성을 위한 국숫집'을 콘셉트로 문을 열었다. 직접 인테리어를 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국수를 최선을 다해 사발에 담았다. 대표 메뉴인 닭국수의 포인트는 다섯 가지 고명. 홍고추, 달걀 지단, 부추, 버섯, 닭고기는 오방색을 표현한다. 사발에서는 손으로 만든 '수연면'만 취급하는데 메뉴에 따라 콜로렐라면, 흑미면, 홍국면을 달리 쓴다. 탕탕낙지더덕고추장밥, 연어덮밥, 얼큰닭개장 등 식사 메뉴 역시 다채롭다. 간간하게 재료를 선택하고 정성껏 요리하는 것은 기본, 다음새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고 둥글레차·보리차·옥수수차를 혼합해 끓인 차를 제공하는 데에서 10년 넘게 사랑받는 이유를 알겠다. 김 대표는 사발 매장 앞에 '손님을 크게 대접한다'라는 뜻의 '대접'을 오픈했다. 모듬버섯영양밥 같은 가정식을 내놓는다.



☞ 마르게리타뽀띠 1만 5000원 로메스코대파파스타 1만 8000원 로제뇨끼 2만 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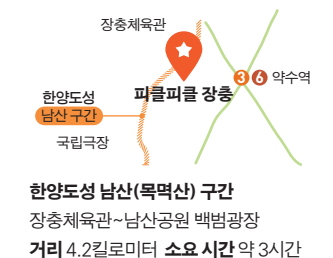
☞ 서울시 중구 동호로17나길 5 ☎ 070-4323-6836

FICKLE PICKLE JANGCHUNG



피클피클 장충

주택을 개조한 '피클피클 장충'은 천장의 넓은 창 덕분에 따스한 느낌을 선사한다. 실내는 브랜드 로고를 테이핑해 군데군데 포인트를 주었다. 특색 튀는 인테리어만큼 요리도 출중하다. 도마에 플레이팅한 마르게리타뽀띠는 이탈리아 요리다. 72시간 숙성한 반죽을 펼친 다음 직접 만든 로메스코 소스와 바질 페스토, 모차렐라 치즈, 말린 토마토를 넣고 반으로 접어 기름에 노릇하게 튀긴다. 판제로티 한 조각을 들어 올리자 치즈가 늘어난다. 어느 재료 하나 튀지 않고 조화로운 맛에 "진짜 맛있어"라는 말이 나온다. 구운 대파를 올린 로메스코대파파스타는 적당히 매콤한 맛과 대파의 달달함에 포크를 놓을 수가 없다. 감자맛이 물씬 나는 로제뇨끼는 피클피클 장충의 셰프가 자신 있게 추천하는 메뉴. 오븐에 두 시간 구운 감자가 듬뿍 들어가 감자맛이 진진하다. 도, 반죽, 소스 대부분을 만들어 사용하는 정성에 감동한다. 지하 1층에는 피클피클 장충만의 감각적인 편집숍, 2층에는 캠핑장 콘셉트로 꾸민 루프톱이 준비되어 있다.





IHWA SEONGGWAKGIL JUMAK

☎ 육전 2만원 감자전 1만 5000원 홍어무침 2만원
 📍 서울시 종로구 낙산성곽서길 87 ☎ 010-4257-8599

이화 성곽길 주막

흥인지문을 등지고 성곽길을 오른다. 기와집, 벽돌집, 빨간 대문집이 다정하게 어깨를 나란히 한다. 이것은 성곽 안 풍경. 성곽 밖 풍경은 고즈넉하다. 가파른 언덕에 다닥다닥 붙은 집은 하나의 산처럼 보인다. 걸음을 멈췄다가 걸기를 반복하다 반짝반짝 빛나는 '이화 성곽길 주막'을 마주한다. 주인장은 2년 전 잠깐 들른 이 마을에 매료되어 이사를 왔고, 니은 자 주택을 손보아 주막으로 탈바꿈했다. 정감 어린 주막은 동네 주민에게 사랑방으로, 성곽길을 걸으며 온 여행자에게 '인생 술집'으로 통한다. 메뉴는 육전, 감자전, 홍어무침, 라면이 전부지만 맛은 하나같이 근사하다. 숙성한 제주도 흑돼지를 쓰는 육전이 대표 메뉴다. 주문하는 즉시 돼지고기에 달걀물을 입혀 굽는 고소한 육전은 막걸리를 부르는 맛이다. 쫄득한 감자전, 매콤 새콤한 홍어무침도 별미. 밤이면 성곽길은 다른 매력으로 시선을 빼앗는다. 저녁을 맞이하는 가정집과 성곽길에 조명이 켜지는 모습이 운치 있다. 주인장이 선곡한 이문세, 잔나비, 검정치마의 노래가 분위기를 돋운다.



캠퍼들이 엄선한 캠핑 필수 아이템 빅앤티 폴딩박스 & 카트



승용차를 폴딩박스 위에다 올려도 무게를 견디는 **튼튼한 내구성**은 물론 캠핑, 마트장볼때, 공구함, 트렁크정리함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박스를 여러개 포갠 후에도 **안쪽으로 열리는 앞문**을 이용해 **물건을 손쉽게 수납**이 가능합니다. 고르지 못한 바닥에서도 **부드러운 핸들링**과 각도가 조절되는 **손잡이**가 있어 이동이 편합니다. 공정부터 제조 및 유통까지 **100% 국내산 제품**입니다.



승용차를 견디는 튼튼한 내구성 공구박스로 활용 마트갈때 세차&트렁크 정리함



캠핑



실내수납



4개의 카트락 박스와 카트 고정!

Made in Korea



대량 구매문의 055-344-0780



캠핑, 나들이, 마트, 트렁크정리
 공구수납과 이동 등 다양하게 활용!

빅앤티





① 마이세프 | 궁중 소고기 버섯잡채

4.3점

김현정 이렇게 맛있어도 되나, 15분 만에 한 것 맞나, 믿어지지 않는다. 다만 조리법에 당면 볶는 시간을 안 알려 줘서 언제 불 끄지 고민했어요. ★★★★★ / 김규보 채소를 지나치게 볶은 실수를 덮어 버린 쫄득한 면발과 적당히 짭조름한 소스의 컬래버레이션. ★★★★★ / 이내경 고백하건대, 이번 체험은 어우미의 손길을 빌렸다. 엄마 고마워요~ 잡채 한 입~ 아~♥★★★★ / 표다정 집에서 잡채를 만들다 보면 남은 재료가 상당했다. 밀키트 덕분에 버리는 재료가 없어서 좋았으나 이 많은 포장지 쓰레기는 어쩔?(나머지 아이템도 마찬가지로)★★★★ / 김재은 간단하다더니 은근히 손이 많이 가요. 그렇지만 간장의 달콤한 맛과 버섯의 식감이 조화롭네요. 미미(美味)! 엄마가 해주던 맛이 그리울 때 먹어 보세요. ★★★★★☆



② 심플리크 | 닭개장전골

4.1점

김현정 감동격인b 요즘 인제는 다 밀키트 만들고 있나요. 내 사랑 닭고기에 푸짐한 건더기, 얼큰한 국물의 만남. 오늘부터 내 손=세프님 손. ★★★★★☆ / 김규보 청양고추가 다했다. 푸짐한 건더기도 흡족, 집에서 가족과 먹고 반응이 좋아 바로 주문했다. ★★★★★ / 이내경 철이 없었죠. 평상시 국물은 잘 먹지 않는다고 말한 것 자체가. 칼칼하고 매콤한 국물, 칭찬합니다~ 혹시 리필 안 되나요? ★★★★★☆ / 표다정 닭개장은 닭 육수의 깊은 맛이 중요한데 세상 맑은 국물... 느타리버섯, 고사리, 대파, 부추가 '열일'했다. 수고했다. 내 배 속에서 쉬렴. ★★★★★ / 김재은 짜게 먹는 편이라 좀 싱겁네요. 저 같은 사람을 위해 소스를 증량해 주세요! 닭도 직접 찢어야 해서 번거롭지만 개운한 맛은 좋아요. ★★★★★☆



③ 앙트레 | 얼큰한 해물 누룽지탕

4.1점

김현정 해물누룽지탕이 처음이라 본래 맛과 비교 불가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전분 그득한 쫄득쫄득 국물이 취향이 아니라... 해물은 잘 건져 먹었네요. ★★ / 김규보 이제 다 먹었겠지 했는데도 화수분처럼 샘솟는 오징어와 새우에 놀랐으며 식도에 달라붙는 걸쭉한 국물에 감탄했다. ★★★★★ / 이내경 비주얼 보고 놀랐다. 탕 위에 칼집 낸 오징어가 꽃처럼 피어 있었고, 새우는 통통했으며, 참쌀 누룽지는 보기에 비쌌다. ★★★★★ / 표다정 색다른 집들이 메뉴를 찾는다면 여기요! 한 입 먹고 고랑주가 떠오른 것은 안 비밀 ㅎㅎ ★★★★★ / 김재은 포장지가 부실해 실망했는데 재료는 알차네요. 맛도 얼큰해 술을 부릅니다. 결국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홀숭을 했습니다. 누룽지 추가 구매 옵션을 만들어 주세요! ★★★★★☆



④ 프레시지 | 박막레 목은지 비빔국수

3.9점

김현정 취향 파괴자 박막레 할머니! 면류, 찬 음식 즐기지 않는 제가 비빔국수를 흡입하다니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르신께도 명절 인사 드립니다. 건강하세요. ★★★★★☆ / 김규보 나랑 식성 같은 다섯 살 둘째가 넘나 맛나다 해서 믿고 먹었고, 역시 맛났다. 시디신 목은지로 입가심까지. ★★★★★ / 이내경 레시피를 읽다가 피식 웃었다. 박막레 할머니 음성이 생생하게 지원된다. 맛은? 내겐 너무 달콤한 당신! ★★★★★ / 표다정 유튜브에 레시피가 공개되었을 때 따라 해 먹고 동생과 손뼉을 쳤다. 너무 맛있어서. 이번 밀키트 시식 후에도 박수가 이어졌다.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_♥★★★★★ / 김재은 목은지가 충분히 목은 것 같지 않아 아쉽네요. 통째로 든 채소도 손질되어 있다면 더욱 간편하겠어요. ★★



누가 요리했어? 제가요~

말끔하게 손질한 재료가 도착했다. 추석에 어울리는 밀키트 4종을 직접 만들고 맛보았다.

진행. 표다정 사진. 이철



신상 푸드



<http://mdfestival.com>

mdfestival

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TV

춘	천	은	1	년	내	내
축				제		중!!

춘천에 **만**오세요 **축**이요

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

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



리치

한국에서도 이제 리치가 자란다. '신토볼이'의 상큼함이 입안에 퍼진다.

글. 김재은 사진. 이철

주로 수입산 냉동으로 먹던 리치가 한국에서도 나온다. 수년간 연구 끝에 수확에 성공한 제주산 리치는 생과일이나만큼 당도가 높고 식감이 뛰어나다. 껍질이 짙은 붉은색을 띠고 광택이 나는 것이 신선한 리치다. 반투명한 흰색 과육은 수분을 가득 머금는데 다 새콤달콤해 입맛을 돋운다. 리치에는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 주는 비타민 C가 풍부해 100밀리그램, 7~8알 먹으면 비타민 C를 약 72밀리그램 섭취할 수 있다. 성인 기준 하루 비타민 C 권장량이 100밀리그램임을 감안할 때 상당히 높은 수치다. 다만 저혈당을 유발하는 히포글리신을 함유했으니 하루 10개 이상 섭취하지 않는 게 좋다.

춘천의 주말은 **막이득 닭이득**

나른한 주말의 **막국수 파이터**

아차차! 괜찮아요~ **"두근두근 페스티벌"**

축제 최초!! **에브리데이 막&닭 리빙**

정성을 다하는 100년의 약속

한결같은 마음으로 노력하는 충남 금산의 백년가계와 백년소공인을 찾았다.

글. 김규보 사진. 신규철

취재 협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산홍삼랜드

최고의 홍삼을 향한 열정



대를 이은 농사꾼의 업을 천명으로 여기며 인삼밭을 일구던 2000년대 초반, 박희춘 대표는 고민했다. '품질을 끌어올린 인삼 가공식품을 세상에 선보이고 싶다. 유통 비용을 없애 누구나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하면 좋겠다.' 고물상에서 철근을 얻어 이리저리 붙이고 떼 가면서 용접을 독학한 뒤 인삼 가공 설비를 순수 제작했다. 미세한 열 차이에도 천변만화하는 인삼 맛을 가장 좋은 수준에 붙잡아 두고자 연구를 거듭했고, 물 순환 원리를 적용한 그만의 설비를 완성해 냈다. 유통업체를 통하지 않고 온라인 판매 같은 직거래에 주력해 제조 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췄다. 한 명에서 시작한 고객이 40만 명을 넘어선 지금, 자체 온라인몰 '철이네홍삼'엔 갖가지 홍삼 제품의 품질과 가격을 칭찬하는 리뷰가 가득하다. 돈이 아닌 사람을 남기겠다는 천생 농사꾼 박희춘 대표는 오늘도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홍삼 제품 연구에 여념이 없다.

📍 금산군 금산을 구름고개길 28

☎ 041-752-9800

🏠 고려홍삼분사페셜(30포) 4만 9500원



📷 추천 여행지 '금산향교'

충청남도 기념물 문화재로 조선 초기에 창건했다가 임진왜란 이후 재건해 1684년 현재 위치로 옮겨 지었다. 강학 공간인 명륜당과 제향 공간인 대성전을 앞뒤로 배치하는 전통 양식을 충실히 갖춘 데다 건물이 잘 보존돼 옛 정취가 고스란하다. 이곳에서 학생을 가르치던 훈도들을 기리는 공덕비도 만날 수 있다.



정민진님 ©



금산약초인삼영농조합법인

전통을 고수하는 명인의 인삼정과



할머니는 손이 귀한 집안에서 태어난 정영석 대표에게 인삼 달인 물을 주곤 했다. 약물을 우리는 정성이야 두말할 필요 없었으나, 어린 손주는 쓰다고만 느껴 도망치기 일쑤였다. 애가 탄 할머니는 하동 정씨 가문에서 전승된 비법으로 인삼정과를 만들었다. 깨우는 순간, 감미로운 맛이 입안에 맴돌았다. 완전히 매료된 아이는 몰래 장독을 뒤져 인삼정과를 먹는 일이 잦았다. 대한민국 식품 명인 제71호가 된 정영석 대표는 그때 할머니의 마음과 가문이 전수한 맛을 70여년 흐른 지금껏 간직하며 옛 방식 그대로 인삼정과를 만든다. 인삼 농사는 물론, 인삼을 떡시루에서 찐 다음 꿀에 재워 몇 달간 숙성하는 과정을 남의 손 빌리지 않고 직접 한다. 이제는 정 대표만 아는 비법으로 숙성한 인삼정과가 반들반들 붉은빛을 낸다. 탐스럽게 영근 인삼정과를 한 입 깨문다. 할머니의 마음과 정 대표의 욕심이 합작한 진하고 달달한 맛이 입안 깊이 맴돈다.

📍 금산군 금성면 잔실길 69

☎ 041-754-7712

🕒 6년근 홍삼진과골드(1300그램) 29만원 홍삼진과골드(16본) 15만원



박가네집

진심을 대접하는 스마일 한우집



문을 여는 즉시 알게 된다. 금산 사람들이 이곳을 '스마일 한우집'이라는 애칭으로 부르는 이유를. 이상현·박은예 부부의 환영 인사가 흥겨운 음악처럼 들려오고, 곧이어 두 대표가 조명만큼 밝은 미소로 반갑게 맞이한다. 찾아 준 손님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웃음에 고스란히 배었다. 입구에서 이미 배부른 기분, '박가네집'이 26년간 내어 준 또 하나의 음식이다. 박가네집은 1995년에 '99.9퍼센트가 아닌 100퍼센트 한우'를 약속하면서 문을 열었다. 2008년 정부가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시행하기 한참 전인 당시에, 부부는 스스로 몇몇한 최고급 한우만 대접하겠다고 다짐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구이용 살을 직접 발라 상에 올렸고, 남은 고기는 뼈를 푹 곤 육수에 푸짐하게 담아 떡국, 설렁탕, 육개장을 요리했다. 진심을 더한 음식에 손님 얼굴에도, 그런 손님을 보는 부부 얼굴에도 미소가 어리다. '스마일 한우집'의 변치 않을 풍경이다.



추천 여행지 '금산인삼관'

인삼의 고장이니만큼 인삼에 관한 전시 공간도 풍성하게 꾸며졌다. 총 3층 규모로 1층에서 인삼 역사와 금산 인삼의 유래를 살피고, 2층으로 올라가 국가별 인삼 종류를 실물로 감상한다. 3층에서는 한국과 각 나라의 인삼 음식을 모형으로 알아본다. 인근에 금산수삼시장, 금산인삼종합쇼핑센터 등이 위치한다.



원근신문 ©

📍 금산군 금산읍 남사직6길 33

☎ 041-753-8033

🕒 한우등심(180그램) 3만 2000원 한우뼈사골떡국 8000원



금산원조 김정이삼계탕

겉쫀한 약재 육수의 잊지 못할 맛



인삼, 황기, 천궁 등 몸에 좋은 한약재를 넣고 4일간 끓인 육수에서 기존 약재를 뺀 뒤 다른 약재를 넣어 다시 4일을 끓인다. 또 한번 같은 과정을 거치니 총 20여 가지 약재를 10일 넘게 우려는 것이다. 한약재가 진국을 이룬 겉쫀한 육수로 살코기도 톰한 닭을 삶고 금산 인삼과 인삼 가루를 듬뿍 가미해 손님에게 건넨다. 반찬 역시 오가피, 생강을 비롯해 철마다 직접 수확한 재료로 조리한다. 김정이 대표와 아들 신건찬 대표가 삼계탕 한 상을 내기까지 들이는 노력을 이런 몇 마디로 어찌 다 설명할 수 있을까. 입속에 들어가자마자 곧게 흐트러지는 연한 살에 담백하다면 담백하고 진하다면 진한 국물이 더해져 절로 눈이 감기며 맛을 음미하게 된다. 40년 노하우와 그에 못잖은 정성으로 빛은 삼계탕 한 그릇이 금방 바닥을 드러낸다. 지난해부터 온라인으로도 판매한다는 사실이 반갑다. 벌써 몇몇 대기업은 대량 주문해 직원들에게 선물했다.

📍 금산군 금산읍 인삼약초로 33, 2층

☎ 041-752-2678

🕒 원조삼계탕 1만 2000원 동충하초삼계탕 1만 7000원

백년가게·백년소공인과 함께하는 금산 여행



권대진 리

백년가게·백년소공인이란?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우수성과 지속 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을 공식 인증하고 있습니다. 백년가게는 제조업을 제외한 업력 30년 이상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백년소공인은 숙련 기술 기반 업력 15년 이상의 소공인입니다.



스캔하고 추천하기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후보를 추천해 주세요!

국민추천제를 이용하면 우수한 소상공인 성공 모델을 백년가게·백년소공인 후보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백년로드

한길만 걸어도 백년가게·백년소공인이 만든 다양한 제품을 위메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스캔하고 접속하기

안동역세권 2억원 대 명품 브랜드 아파트

계약금 10% **중도금 전액 무이자 용자**

비규제 지역 **분양권 무제한 전매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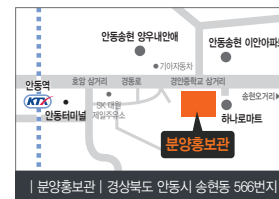
75㎡, 84㎡ Type으로 구성된 **944세대 대단지**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등 **명품 커뮤니티 시설**

예다음만의 시그니처 **명품 인테리어**

통풍과 채광이 우수한 **4BAY 혁신설계**

단지 내 인공폭포 및 바닥분수 등 **안동최초 테마파크 아파트**



| 9월 OPEN 예정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막곡리 산14-15번지 일대 지하층 ~ 지상14-22층 / 전용 75㎡, 84㎡ 총 944세대

문의 전화 **1588-7349**

* 상기 투시는 소회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시흥 KYOBO 2022년 11월 11일 | 주영무보전 | 주택 | 주식회사 철운

PREMIUM **BIG CITY**

안동역 영무예다음 검색

안동의 랜드마크를 안동의 프리미엄을

바꿔다

지금까지 안동에 이런 아파트는 없었다!
대단지 프리미엄을 파격적인 분양가로 만나고
고품격 라이프를 단지안에서 완벽하게 누리다

프리미엄 **BIG CITY**
안동역 **영무예다음** 포레스트



WHAT'S UP

축제

올해로 67회를 맞이하는 백제문화제는 무령왕릉 발굴 50주년을 기념해 '열린 문화, 강한 백제'라는 주제 아래 공연, 전시, 야간 조명 등 풍성한 즐길 거리를 마련했다.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공연 <무령>은 판소리와 오페라를 접목한 판페라로, 백제 제25대 무령왕의 업적을 조명한다. 대표 프로그램인 공연 <웅진판타지아>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공산성을 배경 삼아 백제의 부활을 이야기한다. 아트센터 고마에선 중국, 일본을 포함한 7개국의 역대 대통령에게 받은 선물을 선보이는 전시 <동아시아 교류의 중심, 백제 그 찬란한 빛>이 펼쳐진다. 과거 백제와 교류한 국가의 소장품 20점과 무령왕릉에서 출토한 유물로 당대를 엿본다. 축제는 밤까지 이어진다. 황포 돛배 475척과 금강 주변에 설치한 유등 130여 개가 장관을 이룬다. **장소** 충남 공주 금강신관공원과 공산성 일대 문의 041-635-6980

제67회 백제문화제



09.25~10.03



QR코드를 스캔하면
공주시 문화관광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01

한류 서예의 거장: 소전 손재형

2021. 9. 1. - 11. 7

02

이건희 컬렉션: 고귀한 시간, 위대한 선물

2021. 9. 1. - 11. 7

03

AES+F. 김익이, 허영, 시대별 그림다

2021. 9. 3. - 12. 26

전남도립미술관 기획전 특별전

EXHIBITION OF JEONNAM MUSEUM OF ART

전남도립미술관

기이

artmuseum.jeonnam.go.kr

MMCA 이건희컬렉션 특별전 한국미술명작

MMCA
Lee Kun-hee Collection
Masterpieces of Korean Art
2021.7.21. - 2022.3.13.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전시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은 이견희 회장 유족이 기증한 이견희컬렉션에서 선사시대부터 조선 시대에 이르는 토기, 도자기, 조각, 서화, 목가구를 공개한다. 국보 '인왕제색도', 금동보살삼존입상, 보물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을 비롯한 국보 12점, 보물 16점 등 총 45점을 한자리에 모았다. 그중 석가모니 일대기를 훈민정음으로 기술한 <석보상절 권11>에서는 방점을 찍어 음의 높낮이를 표시한 15세기 한글을 마주한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도 이견희컬렉션을 만날 수 있다. 기증 작품 1488점 가운데 한국인이 사랑하는 한국 작가 34명의 작품 58점을 선정해, '수용과 변화' '개성의 발현' '정착과 모색' 세 부문으로 나누어 펼친다. 2부 '개성의 발현'은 김환기의 '여인들과 항아리', 이중섭의 '황소'를 통해 광복 이후 혼란스러운 시기에도 작업을 멈추지 않은 작가의 예술혼에 집중한다.

장소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문의 02-2077-9000, 02-3701-9500

07.21~2022.03.13



07.21~09.26

<위대한 문화유산을 함께 누리다-고故 이견희 회장 기증 명품전>

<MMCA 이견희컬렉션 특별전: 한국미술명작>

해양관광도시 1번지 포항

드라마촬영지 각광! 언택트 힐링명소

'해양관광 1번지' 포항시에 각종 드라마, 다큐멘터리, 예능프로그램들이 문전성시

천혜의 자연 경관 푸른 바다를 품은 역동적이고 아름다운 포항의 명소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WHAT'S UP

파주·부여

<원더 티켓>



공연

선선한 가을밤,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의 푸른 잔디밭에서 뮤지컬을 즐긴다. <원더 티켓-수호나무가 있는 마을>은 한국전쟁 때문에 연인과 헤어진 노신사가 손주 해나와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시작한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젖은 노래가 잠들었던 바람의 신 풍백을 깨우고, 풍백은 노신사와 해나를 열차에 태워 고향으로 여행을 보낸다. 길이 36미터 LED 화면과 홀로그램 기술로 비무장지대 풍경을 실감 나게 재현한 공연은 전쟁으로 상처 난 가슴을 어루만지며 평화의 메시지를 전한다. 풍백 역에는 가수 윤도현과 밴드 엔플라잉의 유희승이 출연한다. **장소**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야외공연장 **문의** 1544-1555

09.17~26

전시

지난 5월에 개관한 현대 모터스튜디오 부산의 두 번째 전시다. 현대자동차와 독일 비트라 디자인 미술관이 일상생활에서 디자인 혁신이 가져올 긍정적 영향을 탐구하고자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후 여는 첫 전시로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미래로 나아가는 혁신적인 로보틱스 기술을 선보이며 현대자동차가 추구하는 모빌리티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현대자동차 로봇연구소 로보틱스랩에서 하반기 마비 환자의 보행을 돕기 위해 개발한 의료용 로봇 '멕스'와 같이 삶을 변화시킬 로봇 등을 전시한다. 로봇 기술에 대한 희망과 두려움을 반영한 14개의 질문은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미래를 사유하게 한다. **장소** 현대 모터스튜디오 부산 **문의** 1899-6611



08.03~10.31

<헬로 로봇, 인간과 기계 그리고 디자인>



제67회 Baekje Cultural Festival
백제문화제

열린 문화, 강한 백제

2021. 9.25.~10.3.

충청남도 공주시·부여군



WHAT'S UP



<정오의 음악회>

국립극장 대표 상설 공연 <정오의 음악회>가 삼나무의 꽃말인 웅대함을 주제로 돌아왔다. 양승환 작곡가의 '상·상·상'을 연주하고 고대 악보 중 하나인 공척보에서 출발해 웅장한 제례 의식 무용에 이르는 과정을 담았다. 국립극악관현악단 연주에 이금희 아나운서의 친절한 해설을 곁들여 이해를 돕는다.
장소 서울 국립극장 문의 02-2280-4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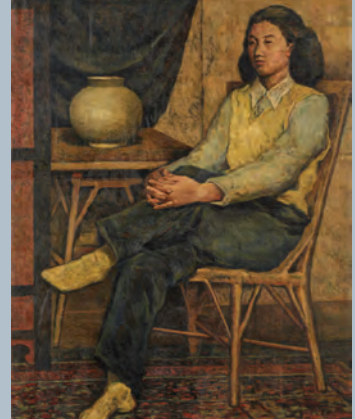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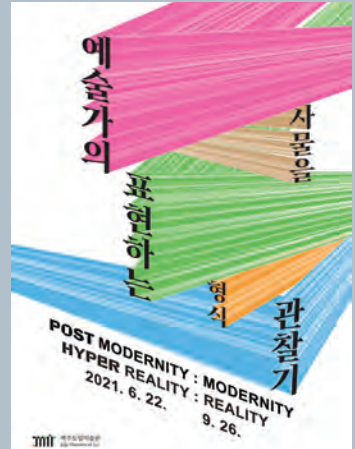
09.30



<트라우마: 풀리처상 사진전 & 15분>

꿈, 사랑 등 인생의 간절한 순간과 트라우마의 예술적 승화를 살피는 전시로 '풀리처상 사진전'과 그림과 사진, 설치 작품을 모은 '15분'으로 구성했다. 2021년 풀리처상 수상작 2점을 최초로 공개하고, 두려움, 자유 등 5개 섹션으로 나뉜 '15분'에서는 앤디 워홀의 '캠벨 수프 캔' 같은 현대미술 거장의 작품을 선보인다. **장소** 대전시립미술관 문의 042-270-7371

07.06~09.26



<예술가의 사물을 표현하는 형식 관찰기>

한국 현대미술의 다양성을 소개하는 한편, 사회에서 미술의 역할을 탐구하는 전시다. 푸른색을 이용해 한국화의 새로운 형식을 제시한 김성현의 '가든 블루'와 예술 사진을 선도한 구분창의 'Moon Rising III'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71점의 작품을 만난다. 사전 예약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장소** 제주도 제주도립미술관 문의 064-710-4300

06.22~09.26



2021 청주공예비엔날레

현대 공예의 흐름과 그 가치를 소개해 온 비엔날레가 '공생의 도구'를 테마로 작품을 모았다. 일랄라 아자임을 활용해 독특한 패턴의 줄루바구니를 제작하는 작가부터 바셀빌레 응응고, 손목 위의 우주라 불리는 태엽 시계 제작자 현광훈 등 23개국 작가 99명의 작품 380여 점을 전시한다. **장소** 충북 청주 문화제조창 외 문의 070-7777-7636

09.08~10.17



태백은하수투어

이맘때 강원도 태백의 밤에는 별이 쏟아진다. 태백시가 핫 스팟으로 선정된 일곱 지역의 밤하늘을 감상하는 축제다. 태백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들고 관광안내소를 방문하면 특별 선물인 은하수 여권을 증정한다. 지정된 장소마다 설치된 스탬프를 찍으며 나만의 여권을 만들자. **장소** 강원도 태백 함백산, 오투리조트 외 문의 033-550-2017

07.31~09.30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의우슬송근탕

동의 우슬송근탕 무료 상담 · 제품문의
080-080-4141



체력탄탄!
 관절튼튼!
 기력팔팔!

동의보감 허준 전광렬이 선택한 동의우슬송근탕

참지말고 전화주세요
아이고~ 무릎이야! 허리야! 생생하게!
 100% 국내산 유향을 먹고자란 오골계 봉조와 우슬, 송근, 황칠 등 엄선된 전통 식물혼합원료 총 20가지를 사용했습니다.

- 동의우슬송근탕 왜 좋은가?
- 남녀 노소 누구나 부담없는 건강보양식품
- HACCP인증받은 시설에서 합성첨가물 없이 제조
- 자연원료만으로 무릎 허리 아픈 분들에게 특히 추천



수술 부담없이 간편하게 무모증, 빈모증 한번에 해결 뷰티플라워로 자신감 UP



75만
 고객들과 할인 이벤트
10%

뷰티플라워

'실제 체모 사진'을 확인하고 싶다면 뷰티플라워를 저보세요

For Your Beauty Life 뷰티플라워 Beautyflower

은밀한 부위에 체모가 없어 고민인 여성분들 뷰티플라워 무료상담 꼭 하세요

- ◎ 원래부터 적었는데 자주 빠지는 분
- ◎ 대중탕이나 온천을 망설이시는 분
- ◎ 운동 후 공공장소에서 샤워하기가 부담스러우신 분
- ◎ 결혼, 재혼 준비로 고민하시는 분
- ◎ 유전성에 의한 무모로 고민하시는 분
- ◎ 이식 수술에 실패하신 분

- 10년간 4개 특허 기술력·미국 공식기관 인증!
- 신뢰할만한 제품을 원하시는 분

뷰티플라워 1:1 무료 상담 제품문의
1588-7525
 www.mumoshop.com
 손쉽게 관리 할 수 있는 안내문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바로 신청하세요



공감페이퍼

사장님이 직접 재단하고 봉제해 튼튼함까지 갖춘 파라솔을 소개합니다. 펼치는 순간 햇볕을 막는 동시에 멋스러운 포토 존을 완성합니다. 통풍이 잘되고 공기 저항에 강한 2층 구조로 쉽게 뒤집히지 않습니다.



- * 파라솔 단품, 하단 지지봉, 파라솔 커버로 구성
- * 파라솔 받침대는 별도 구매

가격 5만 9000원(대)
문의 010-8014-9614



행복드림플라워

바라만 봐도 좋은 꽃, 선물하거나 받으면 더 좋지요. '행복드림플라워'에서는 생일, 기념일, 프러포즈, 개업, 이사, 조문 등 경조사에 필요한 꽃과 나무를 전국에 배송합니다. 꽃으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행복을 가져다드리겠습니다.



가격 꽃, 나무마다 다름
문의 1877-4777



눈떠야

'눈' '떠' 보니 '야' 침, '눈떠야'입니다. 신체 굴곡에 따른 지지력, 매일 새것 같은 메모리폼의 복원력이 뛰어난 눈떠야 메모리폼 토퍼 매트리스로 쉽게 잠들고 개운하게 일어나세요.



- * 매트싱글, 싱글, 슈퍼싱글 사이즈로 구성
- * 압축팩 무료 증정

가격 9만 9000원(싱글)
문의 010-3956-0350



자파팜

코로나19 시대에 어울리는 '광성 캠핑'을 준비 중이신가요? 캠핑용품 제작하고 유통하는 '자파팜'은 윈드브레이크, 우드 테이블, 두루마리 화장지 가죽 커버, 램프 수납 가방, 스탠드 화로대 등 다채로운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격 16만 9000원(윈드브레이크)
문의 010-4864-5968



구로정성한의원

서울 구로동에 위치한 한의원입니다. 통증·관절 클리닉과 비만 클리닉을 운영하고 교통사고 후유증을 진료합니다. 늦게 퇴근하는 분, 휴일에 일하는 분을 위해 평일은 오전 9시부터 밤 8시 30분까지, 공휴일과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문을 엽니다.



주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 126, 2층
문의 02-866-6600



농업회사법인(주)지앤인

플랜테리어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주)지앤인'은 20년 넘게 구근식물과 숙근식물에 열정을 쏟은 화훼 농장입니다. 한국 기후에 맞는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경기도 포천에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튼림, 히아신스, 백합, 수선화로 나만의 정원을 가꾸 보세요.



주소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연정말길 97
문의 031-544-9436

* 배송료는 업체마다 다르므로 주문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빅앤트

친환경 폴리프로필렌 소재로 만든 '빅앤트'의 폴딩 박스는 100킬로그램을 견디는 견고함을 자랑합니다. 가정에서는 수납공간으로, 캠핑장에서는 테이블로, 시장에서는 장바구니로 언제 어디서든 이용 가능합니다. 납작하게 접어 보관하기도 좋습니다.



* 박스 뚜껑과 바퀴는 별도 구매
가격 2만 8000원(48리터 앞문 오픈형 폴딩 박스)
문의 055-344-0780



우리 가게 또는 제품 홍보하기

본 광고처럼 지면 혹은 인터넷 사이트, 스마트폰 앱 등에 업소나 제품, 서비스를 소개하는 광고를 게재하고 싶은 분은 전화나 이메일을 주시면 성실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광고문의 02-890-0907
jony2@swadcom.co.kr
(성우애드컴 <KTX매거진> 광고팀)



온라인 ONLY

www.kibs.com

해양 레저의 모든 것 2021 경기국제보트쇼 10월 개막!

올가을 세계 해양 레저업계의 이목이 이곳에 집중된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 온라인에서 개최하는 성대한 축제, 경기국제보트쇼가 성큼 다가왔다.

해양수산부와 경기도가 주최하고 킨텍스, 코트라, 워터웨이플러스, 한국마리나협회가 주관하는 '2021 경기국제보트쇼'가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온라인에서 열린다. 올해 14회를 맞는 경기국제보트쇼는 해양 레저 산업을 대표하는 전문 전시회로 두바이 보트쇼, 상하이 보트쇼와 함께 아시아 3대 보트쇼로 성장하며 국내 해양 레저업계 저변 확대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주력한 올해 '경기국제보트쇼 온라인 전시회(KIBS Online)'는 아시아 3대 보트쇼의 위상에 걸맞게 온라인에 최적화된 신개념 플랫폼을 구축해 업체와 업체 간, 업체와 소비자 간 원활한 소통을 지원한다. 프로그램 중 온라인 화상 수출 상담회는 특히 눈에 띈다. 입국 제한과 자가 격리 조치로 해외 바이어의 방한이 쉽지 않아 이번 경기국제보트쇼에서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해외 바이어와 보트 판매업체, 부품 제조업체의 수출 상담을

주선한다. 참가 업체의 B2B 판로 확대를 지원할 뿐 아니라 관람객을 위한 프로그램도 알차다. 보트 구매 시 주의 사항, 면허 취득 절차, 보트 관리 요령, 수상 레저 안전 수칙 등을 전문가가 알려 주는 정보성 콘텐츠와 참가 업체의 보트를 구매하고 사용한 후기를 담은 동영상 제작해 게시할 예정이다. 간접 체험 영상을 보고 관심이 생긴 사람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참가 업체와 상담을 진행한 후 구매할 수도 있다. 사용자가 콘텐츠를 즐길수록 누적되는 포인트로 가이드 모터, 보트 시승권 등 경품에 응모할 기회를 주는 요소도 흥미롭다. 관람객에게는 재미와 유익한 정보를, 참가 업체에는 홍보와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전시회가 기대를 모은다.

*사전 등록 등 2021 경기국제보트쇼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www.kibs.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2021년은
온라인으로 단독 개최됩니다



14 YEARS

KIBS

2021

Korea International Boat Show
경기국제보트쇼

온라인 개최 2021.10.1(금) 오픈

www.kibs.com






박진아 ©

'리허설 03', Oil on linen, 174×182cm, 2018,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리허설 03'

박진아

글. 김규보

연주회가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다. 선율을 다듬고 서로 합을 맞춘 노력의 결과가 오늘 관객 앞에서 빛을 발한다. 두 연주자는 리허설 중이다.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할 마지막 기회다. 의논하는 두 연주자 쪽으로 조명이 비친다. 바닥은 파란 물결 같고 조명은 떠오르는 해 같다. 여명이 밝아올 때, 우리는 소원을 떠올린다. 모두 어두워져도 뜨겁게 떠오르는 태양이 다시 세상을 밝힌다는 증거를 목격하면서, 다가올 시간이 뜨겁길 바란다. 연주회가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으니 리허설이 한창인 연주자는 곧 남김없이 보여 줄 것이다. 태양을 닮길 소원한 빛의 결실을. 박진아 작가는 연출하지 않은 일상의 순간을 카메라로 포착해 재구성한 뒤 캔버스에 옮긴다. 전시 설치 현장의 움직임, 공연 준비 모습, 밤이 품은 다양한 표정을 그린다. 결정적이지 않은 우연한 찰나들을 조합해 하나의 구도에 담은 박진아의 작업은 결국 결정적 순간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난다. 타인의 시선에 무감한 채 오로지 열중하는 사람과 그가 열중하는 공간은 바로 지금, 결정적이다. 

* 국제갤러리 부산점 <휴먼라이트(Human Lights)>전, 9월 12일까지. 문의 051-758-2239

travel

074

평안하고 환희로운 고장, 영월

책속부록

우리가 꿈꾸는 모든 여행, 육해공 포함

102

운영미아나운서와 춘천 카페 여행



사진. 신규철

포항 이가리돛장대

숲의 너른 품 안에서 누구나 똑같이

산과 물이 만난 풍경, 전남 여수미평 봉화산 산림욕장을 걸으며 푸른 가을바람을 기다렸다.

글. 이영란 사진. 신규철 취재 협조. 여수시장에인증합복지관



태초에 인간과 새는 같은 언어로 자연을 노래하지 않았을까?
수원지 옆 숲길에 들어서니 판청을 피우던 귀가 제일 먼저 욕심을 낸다.
뜨거운 태양 아래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그 의미를
웬지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며 잠시 멈춰 서서 귀 기울여 보라 한다.





숲에서 인간과 나무는 같은 호흡으로 생명을 잇지 않았을까?
나무 그늘에 앉아 어깨를 내려놓으니 조용하던 코가 앞장을 선다.
후박나무, 편백나무, 삼나무처럼 어서 들숨과 날숨을 바삐 내쉬라며
무장애(barrier free) 환경에서 다 같이 편하게 숨 쉬어 보자 한다.

INFORMATION

무장애나눔길 여수 미평 봉화산 산림욕장은 40분 정도 산책할 수 있는 무장애나눔길이다. 노약자와 장애인, 임신부와 어린이 등 교통 약자를 포함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숲을 산책하도록 조성했다.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데크 길, 안전 난간과 쉼터, 대피소를 마련해 놓았다.

영월에서 평안과 환희를

강원도 영월에서 울창한 숲과 맑은 강에 어린 이야기를 들었다.

글. 김규보 사진. 신규철

여행

Young

World





서강을 건너는 동안 지금까지 길을 돌이키니 두루두루 산과 강이다. 굽이가 긴 고개를 오르고 골짜기에 번지는 강을 따라 내려오면서 조금씩 동쪽으로 움직여 왔다. 백두대간이 가까워질수록 산그늘이 촘촘해지던 길은 서강과 동강이 만나는 이곳에 이르러 평지 한 토막을 내놓는다. 높이 솟고 깊게 흐르는 땅, 강원도 영월의 중심에 당도한 것이다.

미디어아트와 체험의 복합 공간, 영월관광센터

옛사람들은 이 땅을 넘어가는 과정이 안녕하길 기원하며 영월(寧越)로 불렀다. 끝이 아스라한 험준한 산길을 발로 밟아야 하는 여정에선 누구나 매 순간 평안을 소망했겠다. 이제는 잘 닦인 도로로 쉽게 닿게 되었으나 자연을 접점이 포근 풍경은 여전히 울창하다. 초록과 파랑이 빛은 대지에 사람들이 들어오고, 안녕에 인사의 의미를 더한 영월은 유채색으로 가꾼 품을 열어 모두를 반갑게 맞는다. 그런 영월의 오늘을 상징하는 여행지가 이달에 개관한 영월관광센터. 청령포를 휘도는 강에서 영감을 얻은 매끈한 외관과 붉은색 입구가 대번에 시선을 붙잡는다. 빨갛고 각진 입구는 안과 밖, 왼편과 오른편에서 본 모습이 전부 다르다. 사진을 찍기로 작정하자면 꽤 머물게 될 입구를 통과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층에 들어선다. 널찍한 공간에 예술 작품 같은 조형물이 놓였고 구석마다 로컬 푸드 직매장, 푸드 코트, 이벤트 홀이 자리를 잡았다. 여행지로 갓 탄생한 달뜬 분위기가 여기저기에서 음악처럼 감미롭게 울린다. 직매장엔 산과 강이 맑은 지역에서 건강하게 키운 농산물을 모았다. 영월이 엄선한 작물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해 직매장만으로도 센터를 방문할 이유는 충분하다. 초콜릿이나 비누를 만드는 체험 시설, 최대 150명을 수용하는 컨벤션 룸, 청령포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옥상과 카페도 알차게 꾸몄다. 어디를 보아도 정성 들여 매만진 흔적이 또렷해 손님을 대접하는 영월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 영월을 방문할 이유로 충분할 미디어 영상관이 남았다.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청량리역에서 무궁화호를 타고 영월역까지 2시간 10여 분이 걸린다.



As I cross the Seogang River, I realize that my journey to this point has been blessed with stunning landscapes of mountains and rivers. I have climbed valleys and walked along rivers, gradually moving east in the direction of the Baekdudaegan Mountain Range. The flat land at the intersection of two meandering rivers, Seogang River and Donggang River, is my destination: Yeongwol, Gangwon-do Province.

Y-Square, an All-in-One Cultural Space

The name "Yeongwol," which literally means "to cross peacefully," reflects the people's wishes for a safe journey as they crossed over this land. In the days when people traveled by foot, safety was a major concern, especially when they had to walk through rugged terrains. Today, the area is more accessible thanks to well-laid roads, but its scenery is still as breathtaking as ever. A modern symbol of Yeongwol is Y-Square, which just opened this month. Even from a distance, the red entrance captures my attention. The spacious first floor is decorated with artistic sculptures. Here, you will find local food booths, a food court, and an event hall. Other facilities to explore include convention rooms and cafes.



탄생과 번영, 장수와 평안,
태평성대의 꿈을 담은 미디어 작품 속 민화가
신비로운 음악과 함께 생동한다.





서울역 여행센터에서 영월 여행 상품을 구매하면 1만 원이 충전된 '나만의 카드'를 증정한다. 충전 금액은 영월에서 쓸 수 있으며 소진될 시 전국에서 사용 가능한 직불 카드와 교통 카드로 전환된다. 영월 여행 상품은 청량리역에서 제천역까지 KTX-이음으로 이동한 뒤 버스로 영월을 왕복하는 패키지 등이 있다.
문의 02-3149-3333



컴컴한 영상관 바닥에서 은하수가 밝아온다. 반짝이던 별 무리가 사라지자 좌우 벽면 뒤쪽에서 산새 두마리가 등장해 앞 벽면 병풍 그림 속으로 날아간다. 심장생도 폭포는 바닥에 흘러내리고, 연꽃이 피어나는 못에서 거북이 기어 나온다. 쏟아지는 비가 그친 뒤 만물은 화사하게 생동한다. 국화가 지천에 가득한 화조도에 이어 날갯짓하는 봉황이 훑날린 깃털은 별 무리가 되어 빛난다. 도입부와 일치하는 장면을 끝으로 전시관은 어둠에 잠긴다.

놀랍다. 앞과 좌우 벽, 바닥의 네 면에 컴퓨터 모션 그래픽을 투사하는 '꿈의 정원' 작품은 눈을 감는 순간이 아까운 장관을 연출한다. 탄생과 번영, 장수와 평안, 태평성대의 꿈을 담은 민화가 신비로운 음악과 함께 꿈틀대는 장면이 20여 분 내내 펼쳐진다. 영월 창령사 터 오백나한을 주제로 한 '마음을 비추는 얼굴' 작품도 매혹적인 영상을 선사한다. 꼭꼭 숨은 보화를 발견한 기분에 발걸음이 경쾌해진다. 갤러리와 미디어 체험관까지 감상하고 센터를 빠져나온다. 한나절, 여유롭게 하루를 꼬박 보내도 만족스러운 영월의 새 여행지다(문의 033-370-2913).

Last but not least, the media hall on the second floor is worth visiting on its own.

In the dark hall, the milky way begins to spread beneath my feet, brightening the surroundings. Next, the stars disappear, and two mountain birds pop out from the side walls, and fly into the picture on the wall in front. A waterfall flows to the ground, and a tortoise slowly climbs out from a lotus pond. The field of chrysanthemums is replaced by phoenix feathers, which are soon transformed into stars. I am taken back to the first scene of the milky way, and the hall slips back into darkness.

It was a truly remarkable experience. The computer graphics video titled "Garden of Dreams" delivers awe-inspiring scenes that make blinking a waste of time. Accompanied by mysterious background music, the video takes you through folktales for about 20 minutes. The new space is a must-see in Yeongwol.



**영월관광센터에선 어디를 보아도 정성 들여 매만진 흔적이 또렷해
손님을 대접하는 영월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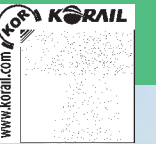
nature

버려진 공터를 모두의 정원으로, 연당원

Geomgaksan 자락 연당리는 폭우가 내린 뒤엔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곤 했다. 범람하는 자연에 속수무책 탄식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갔고, 마을은 빈 채로 방치되었다. 서강이 부드러이 휘는 연당리, 산세가 아름다운 마을이 침수 기억에 덮여 희미해지던 2018년 영월이 꽃과 나무를 심기 시작했다. 저류지를 두르는 산책로를 냈으며 지역 출신 작가의 작품을 설치하고 꽃길 쾀트머리엔 전망대를 세웠다. 정원을 조성한다는 소식에 지역민이 수목을 기증했다. 11만 제곱미터(약 3만 3000평) 면적이 수립원, 꽃바람 정원 등 아홉 가지 정원으로 알뜰하게 채워졌다. 느릿느릿 견실히 다듬은 영월은 지난 6월 강원도 첫 지방정원 연당원을 개원했다. 맥문동, 섬기린초, 은사초, 상록패랭이가 자라는 산책로는 이제 강물이 아닌 서정이 넘실거린다. 사람이 등졌던 공간에 사람이 모여 꽃향기를 맡는다. 한숨 소리가 터지던 공간에 도란도란한 이야기 소리가 들려온다. 사라지는 것과 생겨나는 것의 경계는 어렵잖을지라도 결과는 이렇게 다르다. 그러니 우리는 종종 멈추고 어렵פות한 그것을 응시해야 하지 않을까. 언젠가 나만의 연당원이 탄생할지 모른다.

산책로엔 꽃 이름을 알리는 표지판, 지붕을 엮은 쉼터, 잔디를 밟지 않고 이동하도록 하는 디딤판이 있다. 불필요하단 이유로 벤 나무를 연당원 조성에 참여한 이들이 가져와 만든 것이다. 용도에 따라 주문하면 편했겠으나 영월은 손수 제작하기로 결정했다. 버려진 공터를 연당원으로 단장했듯, 세상이 무익하다 생각한 나무에 쓰임을 불어넣었다. 손으로 쓴 꽃 이름을 읽다 디딤판을 밟고 쉼터에 들어가 휴식을 취한다. 하늘이 파랗고 구름은 하얗다. 연당원 너머 산세가 온화한 곡선을 그린다. 모든 풍경을 엮은 산책로가 아득한 저곳으로 이어진다. 연당원은 자연과 조화한다. 모자라거나 과하지 않게, 도드라지려는 욕심 없이 어울린다. 여기는 계속 빈 채일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토록 충만하다. 다시 걸을 시간이다. 꽃향기를 맡는 사람들과 더불어 영월을 거닌다.

영월은 잦은 침수로 방치된 마을에 저류지를 조성하고 꽃을 심어 지난 6월 강원도 첫 지방정원 연당원을 개원했다. 수립원 등 정원 아홉 곳을 산책할 수 있다. 문의 033-370-2785



From Abandoned Village to Lush Garden

Yeondang-ri, located at the foot of Geomgaksan Mountain, was often submerged in water after heavy rainfall. One by one, the villagers left in search of a better life.

The scenic village torn asunder by floods slowly faded from memory. Then, in 2018, the county began planting flowers and trees. The locals enthusiastically donated trees when they heard the news. An area of 110,000 square meters was soon filled with nine, uniquely themed parks, which opened under the name Yeondangwon last June. The trails lined with lilyturfs and pinks exude a lyrical serenity. The once abandoned space is now a beautiful park that attracts quite a number of visitors.

As you follow the trails, you will find signs displaying flower names, sheltered rest areas, and a wooden walkway designed to prevent stepping on grass. They were all made out of trees that were deemed useless and cut down. Similar to how Yeondangwon Garden was born from an abandoned village, the villagers had given new life to the trees. I step inside one of the shelters. The stretch of blue sky and white clouds seems to go on forever. I let my eyes linger before continuing my journey.

**산세가 온화한 곡선을 그리는 풍경으로 산책로가 이어진다.
연당원은 도드라지려는 욕심 없이 자연과 조화한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영월 여행지를 동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영상. 이진영



Reflect

03 김삿갓유적지

on



history



방랑한 삶의 흔적, 김삿갓유적지

“웃으며 하늘 우러르니 편안해지지만/ 세상길 돌이키면 다시 아득해지네/ 가난하다 핀잔받고/ 멋대로 술 마신다 조롱당했네/ 세상만사를 헛살에 흠여지는 꽃같이 여겨/ 일생 밝은 달밤처럼 살고자 했지/ 응당 내게 주어진 업은 이것뿐이니/ 청운의 꿈이 분수 밖에 있음을 차츰 깨달았네”(난고 김병연의 시 ‘자고우음’). 김병연은 스무 살 무렵 집을 나와 전국을 떠돌며 시를 썼다. 이름을 물으면 “김립(金笠)”이라 대답하는 그를 사람들은 김삿갓으로 불렀다. 온몸에 그림자를 드리울 만큼 커다란 갓을 쓰고 방방곡곡 방랑한 이유가 그가 남긴 시 ‘자고우음’에 설핏하다. 입신하려 치른 시험에서 ‘홍경래의 난’ 때 처형된 김익순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을 냈으나 김익순이 조부임을 알게 되었고, 열여섯이던 그는 자신을 스스로 유폐한다. 그를 조롱하는 세상이 원망스럽던 김병연은 벼슬길은 잊고 홀로 밝아지자 다짐했다. 낮엔 하염없이 걸었고 밤에는 서당이나 머슴방에 몸을 의탁했다. 그도 어려운 날엔 산과 들에서 잠을 청했다. 영월에서 시작한 방랑은 순일곱이 되던 해 전남 화순에서 끝났다. 이후 아들이 아버지 시신을 수습해 영월로 돌아와 매장했다.

영월은 어린 김병연이 살던 마대산 중턱 인근에 김삿갓유적지를 지었다. 난고김삿갓문학관과 문학공원, 묘역, 집터가 그를 기리며 산자락에 늘어섰다. 기구한 운명에 괴로워할지언정 민중 속에 파고들어 해학을 노래한 40여 년 여로가 마침내 영원한 안식에 든 곳. 난고김삿갓문학관에선 떠돌아다니는 동안 겪은 에피소드, ‘자탄’ ‘영립’ 등의 시와 관련한 내용을 읽고 김삿갓을 다룬 소설·드라마·영화 자료를 감상한다. 오직 한 사람의 내력이 건물 1층과 2층을 뚫극하게 메우고 넘쳐 바깥의 시비와 동상 글귀에 담겼다.

“다리 네 개 소나무 소반에 죽 한 그릇/ 하늘빛과 구름 그림자가 함께 감도는구나/ 주인장은 무안하다 말하지 마오/ 청산이 물에 비치는 걸 나는야 좋아하거니”(난고 김병연의 시 ‘죽일기’).

Historic Site of Kim Sat-gat

Kim Byeong-yeon left home to write poems while wandering around the country when he was about 20 years old. He came to be known as Kim Sat-gat because he wore a large *satgat*, a cone-shaped bamboo hat. Before leading the life of a wanderer, he wrote a poem denouncing Kim Ik-sun, who was a traitor executed during the Hong Gyeong-nae Rebellion. Later, Kim Byeong-yeon learned that the person he had denounced was in fact his grandfather, and out of guilt, secluded himself from the world at the age of 16. Wearing the *satgat* was a way of expressing how he was too ashamed to face his ancestors. He spent nights in a village school or a farmhand's room, and at times, slept in the wild. At the age of 57, he passed away in Hwasun, Jeollanam-do Province, and his son buried him back in his hometown, Yeongwol.

The county opened the Historic Site of Kim Sat-gat near Madaesan Mountain, where Kim Byeong-yeon spent his childhood. The site is comprised of Nango Kim Sat-gat Literary House, Literature Park, Kim Byeong-yeon's tomb, and the site of his former residence. At Nango Kim Sat-gat Literary House, I have the opportunity to experience the poet's bon-vivant life through

김삿갓유적지는 김삿갓 김병연이 살던 마대산에 위치한다. 난고김삿갓문학관과 문학공원, 묘역, 집터를 살펴볼 수 있으며 문학공원에서는 김병연의 시를 새긴 시비를 감상한다. 문의 033-375-7900



난고김삿갓문학관은 김병연이 방랑하는 동안 쓴 시를 비롯해 그를 소재로 한 영화와 드라마 관련 자료를 전시한다. 로비엔 이철수 편화가의 작품을 걸어 두었다.
문의 033-375-7900

문전박대에 야속해하는 일도 잦았지만 정답게 도와주는 이에겐 시로 감사를 전했다. 갓을 쓴 나그네의 시는 당시에 널리 회자됐다. 자신을 수소문하는 아들이 전국 곳곳의 마을에 맡긴 편지 가운데 하나를 손에 넣은 것도 이름이 알려진 덕분이었다. 문학관 방향을 굽어보는 언덕, 자그마한 묘 곁에 선다. 앞에는 시비와 돌탑, 뒤편에는 집터가 놓인 이 자리에서 김병연은 기나긴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사람은 죽음을 맞이한다. 아무도 피하지 못하는 숙명이 되 삶은 계속될 수 있다. 김병연이 디딘 땅과 바라본 산천과 만난 사람과 지은 시가 태어난 해인 1807년에서 200여 년 지난 오늘날 생생하듯이. 뒤편 집터에서 바람을 지고 출발한 김병연은 이 길을 걸어 방랑에 나섰다. 중심을 흔들었으나 그는 걷는 곳마다 중심으로 만들었고, 우리는 그 자취를 떠올리고 기억한다. 원망스럽다 해서 가만히 앉아 좌절하기보다 일어나 보고 듣고 느끼려 한 영혼의 순례를 좇아 걸음을 내딛는다. 나를 밝히려는 노력이 결국 모두를 밝게 한다고 믿으며 여정을 출발한다. 그리하여 난고 김병연의 삶은 계속되고 있다.

a wealth of materials, ranging from novels to movies. Kim Byeong-yeon wrote poems to show his gratitude to those who offered food and shelter. With his impressive rhymes and signature hat, he soon gained fame throughout the country. His tomb sits on a slope facing the Literary House. I pay my respects, hoping for his legacy to continue to inspire and engage younger generations for many years to come. I set foot on the same path that Kim Byeong-yeon must have taken when he first left home. He deviated from the ordinary course of life, and proved himself extraordinary to the world. Instead of despairing over his actions, he mustered the courage to turn crisis into an opportunity. By making himself shine, he shone light on people wherever he went. And so, the spirit of Nango Kim Byeong-yeon lives on even today.

김병연이 디딘 땅과 바라본 산천과 지은 시가 그가 태어난 1807년에서 200여 년 지난 지금껏 생생하다.





나를 찾는 여행, 범흥사

영월 서쪽 가장자리, 해발 1181미터 사자산이 줄기를 내리쬐는다. 거세게 뻗친 줄기가 사방에 퍼져 등성의 파도를 일으킨다. 사자산, 구봉대산, 갈산이 둘러 감은 산의 대지 깊은 골짜기로 발길을 옮긴다. 하늘이 산맥을 쓰다듬는 높은 땅을 올라 기와지붕을 잇대어 걸친 비탈에 닿았다. 동서남북에서 물려든 산이 소나무를 잔뜩 풀어 시야가 다 울울창창하다. 깊은 이곳에 터를 잡았다면 필시 그만한 이유를 품었겠다. 산줄기를 갈기처럼 늘어뜨리고 포효하는 사자산이 끌어안아 지키는 여기, 기와지붕이 줄지은 범흥사로 들어간다. 전각 몇 개를 쌓은 것보다 키가 큰 소나무로 장벽을 친 사찰이 극락전 옆 오솔길을 내보인다. 전부 고요한 길에 햇살은 쏟아지고, 따뜻한 빛을 적신 마음 또한 한없이 잠잠해진다. 멀리 병풍 같은 산들을 훑기거리면서 10여 분 걷자 수림이 에워싼 평지가 나온다. 연화봉이 호위하는 평지 한편에 봉긋한 언덕과 푸른 기와 전각이 보인다. 전각 현판엔 금색 한자를 새겼다. ‘寂滅寶宮’. 부처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법당 적멸보궁이다. 신라 시대 고승 자장은 643년 중국 당나라에서 진신사리를 구해 귀국했다. 스스로 깨쳐 세상을 구제한 부처의 사리는 자장에게 얼마나 성스러웠는지. 그는 영축산, 설악산, 태백산, 오대산, 그리고 사자산에 사리를 봉안했다. 사자산에서는 지금의 적멸보궁 뒤 봉긋한 언덕 어디쯤에 묻었다고 전한다. 적멸보궁 앞으로 가고개를 숙인다. 과거 한 스님이 추위를 견디다 못해 목불을 땀감으로 썼다. 어른 스님이 꾸짖자 말했다. “태워서 사리를 얻으려 그랬습니다.” “목불에서 어떻게 사리가 나온다는 말인가.” “사리가 나오지 않는데 이것이 부처입니까, 나무토막입니까?” 부처는 부처를 보고 중생은 중생을 본다. 텅 빈 마음에 산은 산으로 비치고 물은 물로 비치나, 티끌 낀 마음은 산을 물로 여기고 물은 산이라 생각한다. 자장은 진신사리를 가져와 언덕에 묻었다 한다. 정말일까, 어디일까, 아직 있을까. 아니다. 저 언덕에는 내 마음이 있다.

Self-discovery at Beopheungsa Temple

Sajasan Mountain, which stands 1,181 meters above sea level, is located in the western part of Yeongwol. The Silla Dynasty monk Jajang chose a site on this mountain for Beopheungsa Temple, which stands out amid the forest of tall pine trees with its beautiful *giwa* roof tiles. Next to Geungnakjeon Hall is a narrow path that makes for a leisurely stroll. The sun casts its rays on the path, and the warmth has a profoundly calming effect. I walk down the path for 10 minutes or so, and notice the blue *giwa* tiles of Jeokmyeolbogung Shrine. In 643, Jajang brought back sarira reliquaries from China, and enshrined them in several mountains throughout the country. On Sajasan Mountain, he chose to bury them in the slope behind the shrine. Unlike typical Buddhist shrines and pagodas, Jeokmyeolbogung Shrine does not have any statue of the Buddha. Instead, it has a glass wall that presents a good view of the nearby slope. I bow in the direction of the slope before stepping out into the forest. The trees are far taller than any pagoda, even if they were to be stacked on top of one another. I wonder how long it would have taken for the trees to become

범흥사는 신라 시대 고승 자장이 643년 중국 당나라에서 부처의 진신사리를 가져와 봉안하고 흥녕사라는 이름으로 창건했다. 적멸보궁 뒤쪽 언덕에 진신사리가 묻혔다고 전한다. 문의 033-374-9177



inn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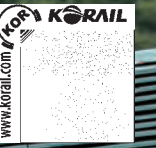
**사자산 우거진 푸른빛을 들이마신다. 푸른 기운이 마음의 티끌을 씻는다.
전부 고요한 숲에 햇살이 쏟아져 적멸보궁을 비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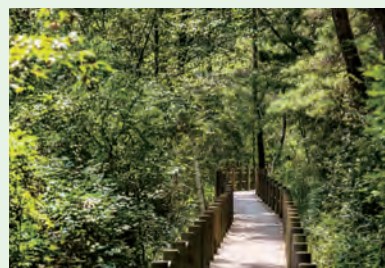
적멸보궁엔 불상이 없다. 불상을 모셔야 할 자리에 통유리를 내 언덕을 올라다보도록 했다. 고개 숙여 인사하고 돌아서 다시 수림 속에 몸을 던진다. 숲은 범 홍사 초입에서와 같이 전각 몇 개를 쌓은 것보다 크다. 나무는 언제 저리 자라는 건지. 누가 봐 주지 않아도 생명은 온 힘을 다해 산다. 자장이 진신사리를 들고 영월에 들어온 그때도 사자산 나무들은 생의 본분에 진력했을 게다. 1380여 년 전 자장처럼 사자산 우거진 푸른빛을 들이마신다. 푸른 기운이 마음에 번져 티끌을 씻어 준다. 전부 고요한 숲에 여전히 햇살이 쏟아지고, 티끌 사라진 마음은 적멸의 오솔길을 내보인다. 눈을 감고 오솔길에 들어 불상이 없는 법당과 봉긋한 언덕을 만난다. 언덕에는 부처의 사리가 존재한다. 그것을 믿는다. 영월에 빛이 스민다. 세상이 온통 환하다.

영월을 빠져나가기 전에 돌아보았다. 계속되는 삶과 마음의 눈이 우리를 뒤따른다. 화사하게 생동하는 만물을 어루만지며 서강을 건넌다. 안녕, 영월. ☑

as tall and strong as they are today. Nature does its best to thrive even when no one is looking. The trees of Sajasan Mountain would have been doing their best in life even in the days when Jajang was returning to Yeongwol with sacred relics. The cooling shade, fresh air, and peaceful atmosphere allow me to let go of worldly concerns. My mind feels decluttered, and I am a step closer to finding inner peace and happiness. I believe in the power of Buddha's sariras that Jajang buried at this very spot.

Yeongwol is basking in light, and the world around me is dazzling. I turn back to take a final look before leaving the picturesque county. The vibrant eyes of the wilderness returns my gaze. As I cross the Seogang River, I am once again captivated by the majesty of nature. It is already time to bid farewell. Goodbye, Yeongwol. ☑





청령포

단종은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찬탈당하 다시피 넘기고 상황이 됐으나 끝내 영월로 유배되어 청령포에 갇힌다. 서강과 산이 둘러싼 육지 속 섬 청령포에서 두 달을 살고 관풍현으로 옮긴 뒤 열일곱 나이에 죽음을 맞는다. 청령포엔 단종이 머문 집을 복원한 단종어소, 걸터앉아 울었다는 노산대, 아내 정순왕후가 그리워 쌓았다는 돌탑이 자리한다. 아름다운 소나무 숲에 어린 단종의 이야기가 절절하다.
문의 033-372-1240

젊은달와이파크

2만 6000제곱미터(8000평) 대지를 캔버스 삼아 그림을 그리듯 건물을 배치한 복합 문화 공간이다. 기존 술샘박물관을 재구성했으며 총 11개 구역에서 '붉은 대나무' '붉은 파빌리온 I' 등 작품을 전시한다. 작품 대부분 선반을 만들고 남은 나무, 폐기한 자동차와 타이어 등을 예술로 재생했다. 피노키오 마리오네트 공예, 니만의 오르골 색칠 학습 같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트 상품도 판매한다.
문의 033-372-9411

물무리골 생태공원

단종이 잠든 영월장릉 인근엔 급경사를 이룬 해발 400미터 이상 산지가 여러 발달했다. 이런 산지 사이를 하천이 깎으면서 퇴적물이 흘러내려 편평한 지역을 형성했다. 그중 물무리골은 소나무와 갯버들, 으름덩굴, 갈대 등 식생이 다채로우며 황조롱이가 날아들고 고라니, 삶이 모이는 생태의 보고다. 습지에 숲이 우거진 덕 길은 전나무가 곧게 뻗은 길로 이어진다. 영월장릉을 관람한 후 1시간 정도 산책하는 코스로 훌륭하다. 문의 033-374-4215

보고 또 봐도
와이파크는 못참지!



젊은달
와이파크
YEONGWOL Y PARK

떠나자! 반복된 일상 너머로!

영월의 맛있는 먹거리



레비로드

고향 영월에 지역민이 소통하는 문화 공간을 만들고 싶던 엄정원 대표가 2019년에 지은 카페다. 산뜻 라임모히토, 깔끔 젤티레몬, 제주 말차 프라푸치노 등 음료가 맛난 것은 기본. ‘기차길 옆 문화관’을 콘셉트로 책을 읽고 느낌을 공유하는 모임, 학생 밴드 버스킹 공연, 마음 챙김 하브루타를 비롯한 갖가지 행사를 때마다 열어 영월 주민이 사랑하는 문화 플랫폼이 되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원데이 클래스도 진행한다. 문의 033-375-0198



박가네

유배 온 단종이 즐겨 먹던 어수리로 박금순 대표가 불고기, 더덕, 제육 정식을 개발했다. 곤드레보다 두 배 비싼 어수리를 아낌없이 올려 고 영월에서 나는 감자와 표고버섯을 듬뿍 넣은 밥을 먹는 순간, 형용하기 힘든 고소함이 온 몸으로 퍼진다. 가장 많이 찾는 메뉴는 어수리 더덕 정식이다. 담백하게 양념한 더덕을 석쇠가 아닌 뚝배기에 구워 열이 은근하게 밴 맛이 일품이다. 어수리, 곤드레와 더덕을 장아찌로 만들어 판매한다. 문의 033-375-6900



살롱드림

호텔 총괄 셰프로 일하다 고향에 돌아온 임송이 대표가 착실히 실력을 발휘한다. 저온 숙성한 채끝 등심과 10개월 미만 양고기를 호주에서 공수해 요리한 양갈비 스테이크로 깊은 풍미를 선사한다. 비프 파티에 구운 버섯, 스위스 치즈를 토핑한 제인스픽 버거도 감탄 터지는 맛으로 입을 즐겁게 한다. 곤드레에 청양고추를 가미한 곤드레 비프 크림 리조또는 말할 필요도 없다. 한 번 가면 또 갈 때까지 생각날 양식 레스토랑이다. 문의 010-3117-2583

달님 보러 가요

가을과 밤과 달. 이 아름다운 조합을 더욱 아름답게 감상할 곳, 여기도.

글. 김현정

대전 대동하늘공원



알록달록 벽화를 구경하면서 구불구불 골목을 올라가니 꼭대기에서 풍차가 반긴다. 해발 약 127미터 언덕은 대전 도심에 한순간에 펼쳐놓으며 이름처럼 하늘과 가까워진 기분을 선사한다. 이곳은 일출, 일몰, 야경 등 전망 명소. 도심에 불이 켜지는 밤에는 땅 위의 생명을 안아 주듯 달빛이 넉넉히 내려온다. 도심과 달을 풍차와 함께 담으니 더욱 낭만적이다. 한국관광공사 야경 100선에 선정되었다. 문의 042-861-1330

서울 경복궁



왕의 밤을 누린다. 정성을 다해 지은 궁궐, 은은한 조명이 빛나는 가운데기와지붕 위로 등실 때 오른 달의 조화가 절경이다. 경회루 연못에 비치는 달의 아름다움이야 말해 무엇할까. 경복궁은 매년 봄과 가을, 기간을 정해 야간에 개방한다. 달빛 아래, 세월의 흔적 물씬한 궁궐이 옛이야기를 들려준다. 올가을에도 야간 관람을 진행할 예정이다. 물론 한국 곳곳의 사찰, 유적 또한 달구경하기 좋다. 문의 02-3700-3900

울산 간월산



달과 가까워지는 방법은 산에 오르는 것. 한국에 달 월(月) 자 들어간 산이 많지만 간월산은 가을 달밤에 절정의미를 뽐낸다. 해발 900여 미터 광활한 고지에 뻗어 자란 억새가 하늘하늘 흔들리며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해발 1000미터급 산 9개가 모여 수려한 산세를 자랑하는 '영남 알프스'에 속한 산이다. 야간 산행을 하기 전에는 헤드 램프와 손전등을 준비해 안전에 신경 써야 한다. 문의 052-254-7718

동해 추암해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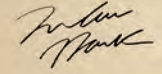
'애국가' 영상의 그곳, 추암해변. 훗대바위에 해가 걸릴 때 초에 불을 켜 모양이 되어 일출 명소로 소문난 해변은 달빛을 감상하기에도 그만이다. 바다 월출이 얼마나 장관인지는 본 사람만 안다. 먹빛 출렁이는 바다에 은색 달이 떠오르고, 그 빛이 일자로 일렁일렁 긴 궤적을 그린다. 바다에 은빛 카펫이 깔리는 양 신비로운 풍경이다. 달 움직이는 시각을 잘 맞추면 해 대신 달로 촛불을 켤 수도 있다. 문의 033-530-2801



사람이 직접 구석구석 안마해주는 느낌이에요

-끊임없는 연구와 기술력으로 탄생한 3D 마사지 기법-

골든 커리어 그랜드 슬램 달성 | 박인비



EP-MAK1-E (베이지)

마사지 전문가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져요

-프로 마사지사님의 따뜻한 제안을 담아낸 기술 온열 마사지불-

2019 US 여자오픈 우승 | 이정은



EP-MAK1-K (블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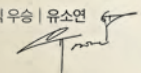
세계 정상급 프로들은 파나소닉 리얼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NEW REAL PRO EP-MAK1

무릎 뒤쪽 근육까지 섬세하게 풀어주네요

-무릎 뒤 림프 부위를 꼭 눌러 지압해주는 포인트볼 에어백-

2018 LPGA 마이어클래식 우승 | 유소연



EP-MAK1-C (아이보리)

언제나 사랑받는 안마의자



선진안마기술집약체

격이 다른 기술력으로 당신의 가치를 한 단계 높여 드립니다. Healthcare Leading Company

파나소닉이 탄생시킨 최고의 프리미엄, MAK1

- 터치패널 컨트롤러**
뛰어난 가독성과 직관적인 터치 조작으로 원하는 마사지 부위를 섬세하고 편리하게
- 3D 독립구동 모터**
3개의 고성능 브러시리스모터로 마사지 전문가의 섬세한 손놀림을 구현하는 기술
- 온열 마사지불**
마사지 전문가의 기술에 인간의 체온까지 고스란히 담아낸 파나소닉만의 독보적 기술



판매점 | 전국 파나소닉 공식 대리점 / 전국 유명 백화점 및 대형 전자제품 전문점에서 접한 판매중 • 파나소닉 코리아 고객센터 1588-8452 • 파나소닉 코리아 홈페이지 <http://panasonic.kr>
파나소닉 프라자 서울 분점 (02)942-8452 서울시 서초대로 254 오류민스힐빌딩 11층 | 파나소닉 유통프라자 (02)667-8452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20 | 파나소닉 H&M프라자 (02)756-8452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4가 18-7 2층 | 파나소닉 광안프라자 (05)756-8452 부산시 수영구 영선로 127 | 파나소닉 동양프라자 (053)427-3794 대구시 북구 유봉대로 45 천작안 2층 | 파나소닉 대 전프라자 (042)223-8452 대전시 서구계룡로 365연일 110 | 파나소닉 수성프라자 (053)434-8452 대구시 중구 영미로 95빌 25 상가 102호 | 파나소닉 중원프라자 (03)029-0300부산시중구 광복로 96-2 | 파나소닉 영성프라자 (05)639-8452 울산시 동구 자성로 10 | 파나소닉 HD 프라자 (06)2522-2000 광주시 북구 금남로 24 | 파나소닉 제주 프라자 (064)757-8452 제주시 구남동 4길 3 2층 | 파나소닉 원안 프라자 (04)1522-8452 원산시 서북구 평안대로 209 2층

KTX매거진 로컬여행센터 9월 바다 여행 특집



#언택트 #공유불가 #오션뷰 포항, 기차 타고 힐링 여행

로컬여행센터 특가 2인 여행가 298,000원~

사랑하는 사람과 꼭 한번 가야 할 포항 해돋이 1박 2일 기차 여행

군사 시설인 옛 해병대 복지 회관 '청룡회관'을 2021년 리뉴얼해 전 객실에서 아름다운 오션 뷰를 보며 힐링할 수 있으며 포항 대표 관광지인 호미곶, 죽도시장 등과 가까운 장점을 가진 마린 호텔을 일반인에게도 개방했다

힐링 여행 추천 코스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촬영지 #가멜리아 인 구룡포 - 호미곶 해맞이광장 - 연오랑세오녀테마공원 - 도구해수욕장

포항 마린 호텔 (구 청룡회관)

여행 안내

여행일 : 2021년 9월~11월(1박 2일)
포항 내역 : 서울 - 포항 2인 KTX 왕복 열차비, 마린 호텔 1박
불포함 내역 : 여행자보험, 식대, 개인 경비
상품가 : 29만 8000원부터(오션 뷰 디럭스 더블 2인 1실/ 2인 부가세 포함)

- ※ 기차 시각 및 일정 변경은 전화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 ※ 열차 운행 조정, 열차 잔여 좌석 사정으로 인해 열차편(시각/탑승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일정을 추천해 드리는 자유 여행으로 여행자의 편리에 따라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는 언택트 패키지입니다.
- ※ 기차 시각 안내 : (출발 열차)243 열차 서울역 출발 12:41 - 포항역 도착 14:57
(도착 열차)294 열차 포항역 출발 18:56 - 서울역 도착 21:30

KORAIL/SR 공식협력여행사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06 철도노조본부 1층
카카오톡 채널 상담 'KTX매거진 로컬여행센터' 대표전화 1899-2550(로컬여행센터 마실)

인근 여행지 안내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



호미곶 해맞이광장



구룡포해수욕장



연오랑세오녀테마공원

상품 이용 시 유의 사항

- ※ 개인 과실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본인 책임이 우선임을 알려드립니다.
- ※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로컬여행센터 '마실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 ※ 상세한 내용은 구매 사이트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유의 사항 및 환불 외 추가 요금 등의 숙소 이용 사항은 각 업체의 규정에 따릅니다.



물길 따라 춘천 카페 여행

선선한 바람에 커피 향이 날아와 안기는 강원도 춘천을
윤영미 아나운서와 여행했다.

글. 표다정 사진. 신규철



Chuncheon

장벽 없는 물길 여행 킹카누

날씨가 곳을 거라는 예보와 달리 하늘에 뭉게구름이 한가득 담겼다. "하늘 봐요. 정말 예쁘죠? 제가 오늘 힘 좀 썼습니다." 윤영미 아나운서의 농담에 킹카누에 웃음이 피어올랐다. 이곳은 북한강 한가운데. 길이 8미터 킹카누에서 노 젓는 중이다. 햇살 받은 강이 윤슬로 반짝인다. 짙어진 녹음, 청명한 하늘. 시선을 두는 모든 것이 가을 색을 띤다. "춘천에서 5년 정도 살았어요. 춘천 MBC에서 근무하던 시절도 새록새록 기억나네요. 사무실이 있는 공지천 근처에 일주일에 한 번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어요.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출근길에 '이디오피아'라는 커피숍에도 들르곤 했죠." 지난 시간을 회상하는 윤영미 아나운서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물결처럼 번진다.

한국에 최초로 킹카누를 도입한 장목순 박사는 몸이 굳는 희소병으로 한때 움직이지 못했다. 완쾌한 이후 장애인을 위한 국내 여행을 모색하다 캐나다에서 카누를 제조하던 실력을 발휘했다. 휠체어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타는 킹카누는 장벽 없는 물길 여행을 선사해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2019 열린 관광지'에 이름을 올렸다. 킹카누 탑승에는 춘천의 역사, 문화, 북한강 생태에 해박한 해설사인 킹스맨이 동행해 든든하다. 킹스맨이 안전하고 유연하게 킹카누를 몰아 주는 덕분에 여행객은 춘천의 경치에 집중할 수 있다. 이 계절에는 어리연꽃 군락지와 갈대밭으로 여행자를 안내한다. 엄지손톱만 한 어리연꽃이 어여쁘다. 킹카누가 만든 물결에 어리연꽃 군락지가 오르락내리락. 바람에 일렁이는 갈대숲 사이로 부들이 고개를 빼꼼 내민다. 포근히 감싸는 듯한 부드러운 산세와 유난히 파란 하늘에 "그림 같다"라는 말이 터져 나온다. 노를 내려놓고 강물에 손을 담근다. 이름 모를 물풀과 어리연꽃이 손바닥과 손등을 스친다. 킹카누의 매력에 점점 빠져든다. 카누를 처음 타는 윤영미 아나운서가 물길 여행이 마음에 쏙 들었나 보다. 어느 계절에 와야 근사한지, 체험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는지 진지하게 묻는다. "가을이 가장 예쁩니다. 단풍으로 물든 삼악산과 드름산이 절경을 자랑하지요. 올해는 유난히 장마가 짧아서 단풍이 질을 것 같아요"라고 킹스맨이 답한다(문의 033-251-9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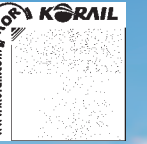
나루터로 돌아온 윤영미 아나운서가 들뜬 표정으로 말한다. "이제 커피 마시러 갈까요? 춘천에 개성 넘치는 카페가 많아 고르는 데 애먹었어요." 그가 추천하는 춘천의 카페로 발길을 옮긴다.



••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용산역에서 ITX-청춘을 타고
춘천역까지 약 1시간이 걸린다.



무브(MOVV) 운전면허증이 없다면? 장거리 여행이 부담된다면? 운전대 놓고 편하게 다니고 싶다면? 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편안하게 여행하는 프라이빗 이동 서비스 '무브'가 있다. 특히 'KTIX + 무브 패키지'는 기차표 예매와 여행지 내 이동을 한 번에 해결한다. 패키지 이용자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 도착역과 목적지 간 무료 이동 서비스나 이용 시간 동안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자유 여행 선택 시 요금을 20~70퍼센트 할인해 준다. 문의 1877-2025 홈페이지 www.movv.co/



Canoe

갈대숲 사이로 부들이 고개를 빼꼼 내민다.
포근히 감싸는 듯한 부드러운 산세와 유난히 파란 하늘에
“그림 같다”라는 말이 터져 나온다.





햇살처럼 따뜻한 산속 학교 오월학교

“작은 골목이 주는 정겨움은 도시의 골목길과 달라요.” 수확을 마친 옥수수 밭, 정겨운 시골집이 늘어선 산길로 접어든다. 얼마나 지났을까. 사람들로 북적북적한 ‘오월학교’가 모습을 드러낸다. 아담한 운동장에서 흠을 만지고 수레를 끌며 노는 아이가 말갭게 웃는다. 1969년 개교한 지암국민학교 가덕분교장을 손봐 지난해 10월 문을 활짝 열었다.

가구 회사를 운영하는 최상희 대표는 아빠와 아이가 함께하는 이상적인 공간을 꿈꿨다. “유년 시절 아이에게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누구나 알아요. 하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 아빠가 상당하지요. 아빠와 아이가 즐겁게 지내는 곳을 늘 상상했어요.” 북쪽에 가까운 지역 폐교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고 막연하게 생각했다. 인터넷에서 가덕분교장에 관한 글을 읽고 바로 춘천으로 향했다. 분교를 마주한 순간, 상상을 실현할 장소라고 확신한 최 대표. 건물 뼈대는 유지하되 직접 만든 의자, 테이블 등으로 내부를 채웠다. 본체는 카페와 스테이로, 화장실과 수돗가는 목공방으로 탈바꿈했다. 식당은 변함없이 레스토랑으로 쓰인다.

카페로 들어선 윤영미 아나운서가 창가에 앉았다. 넓은 창문 너머 운동장과 푸른 나무가 보인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아래에서 무엇인가 발견한 듯한 아이가 엄마에게 재잘재잘 이야기한다. “학생이 가득하던 50년 전 풍경은 어땠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윤영미 아나운서의 질문에 잠깐 상상해 본다. 음료를 고르던 중 ‘아이가 먹을 수 있어요’ 문구가 적힌 참새라테가 눈길을 끈다. 아이를 생각한 마음이 커피처럼 따뜻하게 다가온다. 참새라테는 최 대표의 아이디어다. “매일 아침 아이와 커피 타임을 즐겨요. 아이들이 제가 마실 커피를 내리기도 한답니다. 어느 날 어린이용 라테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접 담근 오렌지청과 스팀 우유로 만든 참새라테는 향과 맛이 상큼하다.

오월쉬림프파스타, 버터헤드볼고기덮밥 등을 제철 식재료를 요리하는 오월레스토랑, 세대별 목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오월나무창작소도 꼭 방문해 볼 것. 이 계절에는 캠핑 의자와 우드 스틱을 만든다.

☎ 아메리카노 5500원
참새라테 7000원
📍 춘천시 서면 남실길 160
☎ 033-253-2111



QR코드를 스캔하면
춘천의 여행지를
동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영상. 아티브엔터

**창가로 다가선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아래에서 무엇인가 발견한
듯한 아이가 엄마에게
재잘재잘. 학생이 가득하던
50년 전 풍경은 어땠는지
상상도 해 본다.**

강아지와 당신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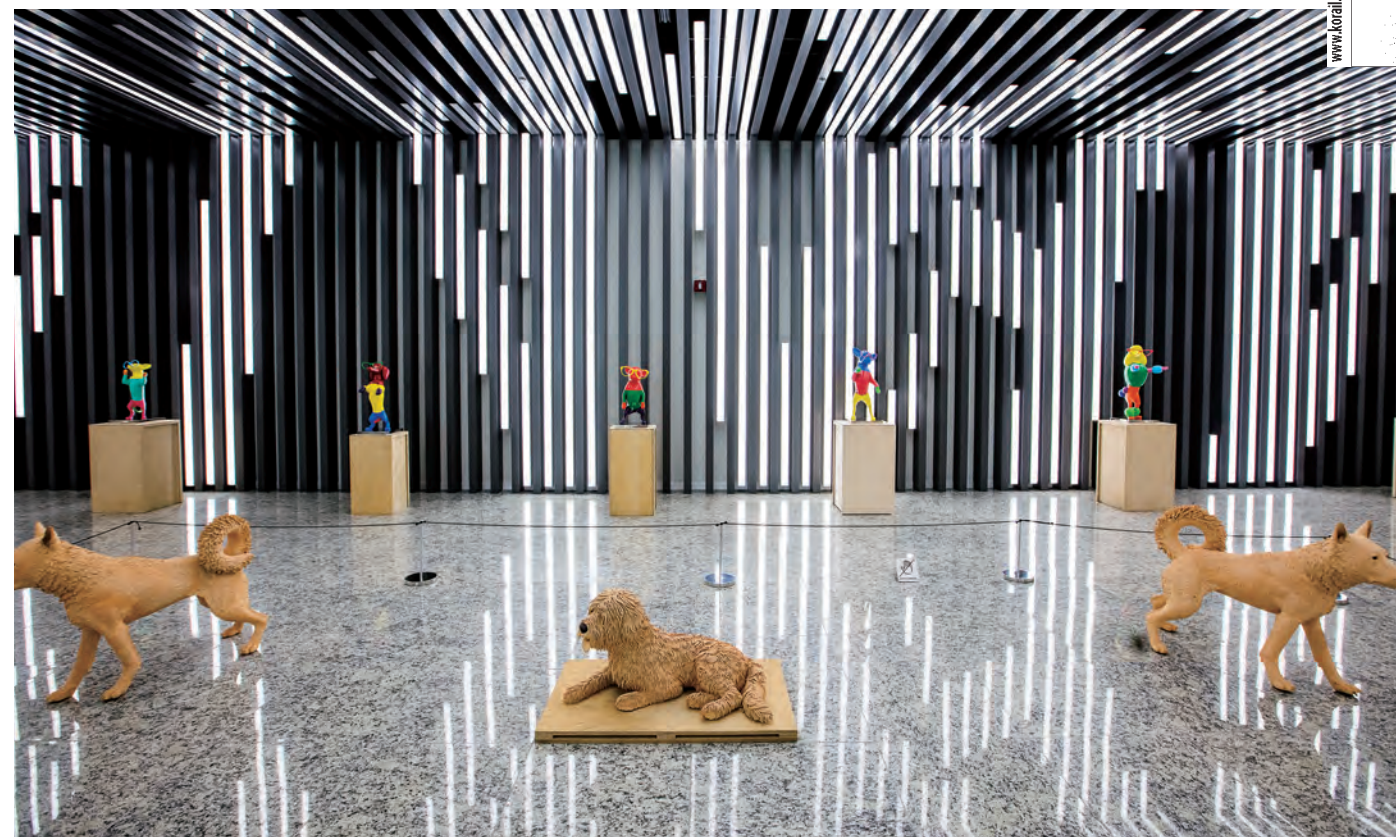
강아지숲 테마파크



- 성인 1만 7000원 반려견 8000원
- ☞ 솔티드크림라테(HOT) 6500원
아지라테 3000원
- 📍 춘천시 남산면 충효로 437
- ☎ 033-913-1400

2021년, 반려인 1500만 시대를 맞이했다. 반려인 전용 오피스텔 등 반려 가구를 위한 시설이 속속 생기는 추세다. 그 가운데 '강아지숲 테마파크'도 있다. 10만 제곱미터(약 3만 평) 면적을 박물관, 운동장, 산책로, 카페로 알차게 채웠다. 먼저 강아지숲 박물관으로 이동한다. 상설 전시 <개와 인간의 아름다운 관계>는 과거와 현재 개와 인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생각해 보게 한다. 반려인은 외출 시 반려견에게 반드시 산책줄 채우기, 비반려인은 처음 보는 반려견과 천천히 인사하기, 손부터 내밀지 않기 같은 서로 지켜야 할 매너를 스토리 중심의 영상과 대화 중심의 인터랙티브 미디어로 배운다. 학예사의 설명에 윤영미 아나운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비반려인으로서 인지해야 할 에티켓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강아지숲 테마파크의 메인 스폿인 강아지숲 동산으로 걸음을 옮긴다. 8000제곱미터(약 2500평) 규모의 천연 잔디가 드넓게 펼쳐진다. 쿵쿵대며 노즈워크하고, 잔디에 온몸을 비비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반려견 모습에 보호자는 '잘 왔구나' 생각한다. 다양한 반려견이 모이는 곳이라 산책줄은 필수다. 강아지숲 동산 뒤에 약 1킬로미터의 산책로가 있는데 반려견 발바닥과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 전 구역에 야자 매트를 깔았다. 세심한 배려가 돋보인다. 산책 전, 햇볕에 달궈진 아스팔트와 보도블록을 먼저 온도를 체크하던 도시에서의 버릇은 자연스레 사라졌다. 반려견 입장을 환영하는 카페 '가을'과 '겨울'에서 쉬다 가도 좋겠다. 인기 메뉴는 솔티드크림라테다. 솔티드 크림과 우유의 '단짠단짠' 조화가 매력적이기도 하지만, 라테 아트 프린터로 원하는 이미지를 담아 주기 때문이다. 사랑스러운 반려견 사진이 그림처럼 담긴 솔티드크림라테는 마시기 아깝다. 반려견에게 아지라테를 시켜 주자. 반려견이 먹을 수 있는 락토프리 우유에 자색고구마 또는 단호박 파우더를 올린 반려견 전용 음료다. 맛있게 잘 먹으니 '쓰담쓰담', 엉덩이 토닥토닥. 강아지숲 테마파크는 강아지와 사는 MD가 엄선한 간식, 의류 등 반려동물용품 총 200여 가지를 구비한 강아지숲 마켓, 가벼운 외상을 치료하는 강아지 의무실, 셀프 강아지 목욕장도 갖췄다. 박물관 운동장을 오가는 셔틀버스도 운행한다. 물론 반려견도 탑승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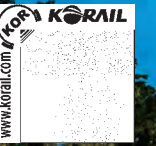
© 강아지숲 테마파크



북한강을 바라보며 마시는 차 한잔 어반 그린

2010년 초 춘천 시내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던 배현영 대표는 2년 만에 장사를 접었다. 춘천에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들어오는 시기였고, 경영난에 시달리기도 해서 몇 년간 회사원의 삶을 살았다. 아내와 유성우를 보러 간 어느 날, 지금 이 장소에서는 뭘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보았다. 다시 차린 카페라 각별할 터. 예쁜 뷰만 믿고 뜨내기장사한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우리만의 커피, 우리만의 디저트를 만들어 열심히 하리라 다짐했다. 원두를 직접 볶고 블렌딩해 시음하면서 메뉴를 완성했다. 진심은 통하는 법이다. 북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시원한 리버뷰, 맛있는 커피는 금세 입소문이 났다. 가게가 자리 잡은 후에는 지역 상생을 위해 춘천에서 나는 농산물을 활용한 메뉴를 내놓았다. 스페셜 블렌딩 티 라인 중에서는 춘천 사과로 담근 사과청이 베이스인 춘천호숫가를 추천한다. 레몬그라스와 블루멜로 첫맛의 은은한 푸른빛이 파란 하늘을 쏙 빼담았다. 배 대표가 직접 만든 포토 존도 여럿이다. 요즘 핫한 '천국의 계단'도 준비했다.

☞ 아메리카노(HOT) 5000원 춘천호숫가 7000원
☞ 춘천시 서면 박사로 732 ☎ 0507-1408-3144



농부의 마음으로 만든 감자빵 카페 감자밭

“어머! 감자같이 생겼어.” “감자 아니야?” 감자인 듯 감자 아닌 감자빵 앞에서 호기심이 가득한 대화가 오간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밭에서 갓 캐낸 비주얼의 감자빵. 전국에서 사러 오는 감자빵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6년이 걸렸다. 이미소 대표의 아버지는 애정하는 감자 품종 개발 회사가 문을 닫는다는 비보에 모든 품종의 감자를 사들여 감자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그런 아버지를 도울 방법을 고민하던 이 대표는 감자담갈 비파이, 고감마빵(고구마감자마늘빵) 등 감자 디저트를 고안했으나 판매는 마음처럼 쉽지 않았다. ‘사람들은 감자를 좋아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에 포기하고 싶을 때쯤, 감자빵이 세상에 나왔다. 감자의 눈까지 제대로 살린 울퉁불퉁한 감자빵은 밀가루, 식품첨가물을 넣지 않은 건강한 맛으로 춘천을 넘어 전국적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9월에는 치즈·바질토마토·올리브·고수·민트초콜릿 맛 감자빵을 출시할 예정이다. 아메리카노, 카페라테뿐 아니라 달달한 맛이 특징인 청강 감자로 만든 감자라테, 고소한 맛에 빠져드는 서리테라테도 정성껏 준비했다.

☞ 아메리카노 4300원 감자라테 6000원 감자빵 3300원
☞ 춘천시 신북읍 신생밭로 674 ☎ 1566-3756



서면 카페거리

춘천 드라이브 코스 중 하나인 의암호 주변에선 속도를 줄이자. 마음에 쏙 드는 카페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까. 눈앞에 북한강이 펼쳐지는 카페에 앉는 순간 마음 한쪽 걱정이 사라진다.
#근처여행지 #애니메이션박물관 #토이로봇관 #이상원미술관



Chuncheon Cafe 춘천의 핫한 카페거리



육림고개 카페거리

청년 상인이 하나둘 모이며 형성된 춘천의 '핫플'이다. 자신만의 감각을 꼭꼭 눌러 담은 카페와 맛있는 디저트가 여행자를 기다린다. 춘천명동닭갈비골목, 중앙시장과 인접해 있다.
#근처여행지 #소양강스카이워크 #국립춘천박물관



소양강담 카페거리

1973년 소양강담 완공 후 조성된 카페거리는 막국수거리이기도 하다. 닭갈비·막국수 맛집이 근방에 있으니 식사와 후식을 한자리에서 즐긴다. 모든 카페에서 도보로 5분이면 소양강에 닿으니 커피를 가지고 나와 강변을 걸어도 좋다.
#근처여행지 #소양강담 #청평사 #국립춘천숲체원 #강원도립화목원

구봉산 카페거리

구봉산 중턱에 있는 구봉산전망대 카페거리에서는 어느 곳을 방문하더라도 탁 트인 풍경이 외락 안긴다. 카페마다 마운틴뷰, 리버뷰 등 전망이 조금씩 달라 방문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인생 사진은 덤이다.
#근처여행지 #김유정문학촌 #강촌레일파크김유정레일바이크 #책과인쇄박물관



전국
우수 숙소

보성

신념으로 전통을 이어가는 한옥

역사를 보존하면서 개성 있는 매력을 보여 주는 전남 보성의 한옥을 찾았다.

글. 김재은 사진. 신규철

한국관광 품질인증
KOREA QUALITY

'여행자의 방'에서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인증업소 가운데 엄선한 숙소를 소개합니다.



취재
신규철

살아숨쉬는 역사와 문화의 현장 보성여관

1930년 경전선이 지나가는 기차역이 생기면서 벌교는 교통의 중심지로 번창하기 시작했다. 오가는 사람이 많아진 고장에 1935년 '보성여관'이 문을 열었다. 당시에는 흔치 않은 2층 규모로 1층은 객실인 운동방, 2층은 다다미방으로 이루어졌다. 지금과 비교하면 5성급 호텔을 방불케 하는 숙소였다. 벌교가 배경인 조정래의 소설 <태백산맥>에서 토벌대가 묵은 남도여관이 보성여관이다. 역사적·건축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고, 2012년 문화유산국민신탁이 보수해 여관으로 개관했다. 원형을 살리려 했다는 관장의 말처럼 곳곳에 옛 모습이 남아있다. 목재, 기와 등도 과거의 것을 최대한 보존했고 미음 자 구조와 긴 마루도 그대로다. 역사를 간직한 여관은 숙소 외에도 둘러볼 곳이 많아 절로 바쁘게 움직이게 된다. 보성여관의 역사, 소설 <태백산맥>, 벌교의 역사 관련 내용을 1층에서 전시하며 한쪽에 소설 <태백산맥>을 필사하는 공간도 마련해 놓았다. 조식으로 간단한 토스트와 음료가 나오는데 녹차물로 삶은 달걀이 별미다.

INFORMATION

주소 보성군 벌교읍 태백산맥길 19 문의 061-858-7528
홈페이지 www.boseonginn.org
주변 여행지 책 속에 빠져드는 경험, 태백산맥 문학거리

숙소의 보물 1호



다양한 문화 체험 공간, 소극장
판소리, 실내악, 연극 공연을 열고 녹차 화장품 만들기, 연자방 공예 등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단순히 숙박만 하는 숙소를 넘어 문화의 장으로 가꾸려는 뜻을 보여 주는 공간이다.





예술품을 함께 즐기는 숙소 춘운서옥

보성역에 내려 마을길을 15분여 쉬엄쉬엄 걸어가다 보면 멋스러운 분위기의 한옥에 당도한다. 입구를 통과하자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지는 정원에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윤영돈 대표는 1987년 전라남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이력이 있는 가옥을 매입해 2015년 숙소로 오픈했다. 자신의 호이기도 한 '춘운'을 집에 붙여 글과 그림이 있는 봄 구름 같은 가옥으로 조성했다. 춘운의 의미에 걸맞은 숙소를 위해 뛰어난 예술품을 찾아 방방곡곡 돌아다녔다. 그렇게 3000여 점의 예술품을 모았고 수십 점만 숙소에 걸어 놓았다. 미술관에 대어할 만큼 수준 높은 작품을 무료로 감상한다는 사실이 즐겁다. 모든 방에 작품을 전시하지만, 보성 여행의 묘미를 한층 끌어올리는 곳은 별채실이다. 명필로 유명한 설주 송운희의 호를 따 설주실을 만드는 등 보성 작가와 연계해 별채실을 구성하고 그들의 작품을 걸었다. 같이 운영하는 카페는 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한데, 숙박객은 10퍼센트 할인해 준다. 시그너처 메뉴는 보성산 녹차라테와 백향과 에이드다.

INFORMATION

주소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211-9 문의 010-8786-1114

홈페이지 www.cwhanok.com

주변 여행지 끝없이 이어지는 푸른 녹차밭의 향연, 대한다원

숙소의 보물 1호



춘운서옥과 역사를 함께한 석물

잘 가꾼 돌이 한옥의 멋을 더한다. 나무와 석물이 조화를 이룬 뜰은 춘운서옥의 자랑이다. 그중 조선 시대에 만들었다고 추정하는 문인석은 대표가 특히 아끼는 것.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문인석이 이 집을 지키다.





손님을 위해 계속 노력하는 한옥 한국천연염색 숨

언덕 밑 작업실에서 천연 염색을 하는 사람들 손이 바쁘다.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한국천연염색 숨'은 기존에는 작업실만 천연 염색을 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언덕 위 한옥은 빈 채로 두었다. 그러던 2017년 4월, 천연 염색 외에 한옥을 활용해서도 우리 문화를 알리자 생각해 언덕 위 한옥을 숙소로 꾸몄다. 편안하고 즐거운 숙박을 제공하려고 숨은 끊임없이 고민했다. 공용 화장실만 쓰던 예전과 다르게 모든 방에 화장실을 설치했다. 피부가 예민한 사람을 고려해 각 방에 직접 만든 침구를 비치했다. 피부를 자극하지 않는 천연 염색 인견 이불과 녹차잎으로 채운 베개가 포근한 휴식을 선사한다. 단체 손님이 묵는 특실 중 편백방은 30명까지 수용하는 누마루를 단독으로 쓴다.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 누마루에서 일행과 음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것도 좋겠다. 희망자를 대상으로 명상, 발효 된장 만들기 체험, 국궁 등 다양한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머무는 시간이 알차다. 그중 가장 인기 높은 것은 천연 염색 체험이다.

INFORMATION

주소 보성군 개기로 1529-45

문의 061-852-5622 홈페이지 www.koreasum.co.kr

주변 여행지 토속적인 불상 양식을 보여 주는 반석리 석불좌상

숙소의 보물 1호



전통과 지혜가 담긴 천연 직물

한국천연염색 숨은 작업실 옆 밭에서 기른 쪽, 메리골드, 홍화에서 얻은 색을 입혀 의류, 침구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연구해 천연 염색 보급에 힘쓴다. 전문가 교육과정도 진행한다.





우리 고향 지키는 남도 인물 기행

자신이 살던 도시를 떠나 남도에서 지역의 정체성을 찾고 재생·발전에 힘쓰는 문화 기획자들을 만났다.

글·사진. 이영란

© 신구정

목포



언제든 마음 편히 누울 고향 같은 목포 홍동우(주식회사 공장공장 공동대표)

청년 대상 전국 일주 상품을 운영하던 여행업체 대표가 연고지 없는 목포에 탄실한 새 도시를 마련했다. 단골 식당 사장님에게서 장인으로 인연을 맺게 한 '오거리식당'을 비롯한 목포 구도심은 그가 인생을 다시 설계할 수 있도록 힘을 준 작은 사회다. 그가 운영하는 목포 여행 커뮤니티 '관찰아 마을'은 목포에서 단기 혹은 장기간 머물고픈 여행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도시 청년들이 목포 여행을 통해 로컬 여행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신의 경험을 살려 지역 청년과 미래를 고민하며 문화 기획, 마을 재생 사업 등으로 지역 관광의 미래를 개척 중이다.



취재 협조. (사)한국관광개발연구원, 트래블리스크럼

가을 추천 여행지

목포 구도심에 위치한 '한마을떡'에 가면 1935년생 바리스타 강정숙 여사가 정성껏 내린 커피와 떡을 맛볼 수 있다. 80년 넘는 그의 구수한 인생 이야기와 따뜻한 환대는 덤이다.

나주



새롭게 조명받는 나주의 시간들

남우진(농업회사법인 목서원 대표)

전주가 고향인 기업인이 5년 전 나주 목서원에 정착해 나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보다 더 나주를 잘 알고 사랑하는 현지인이 되었다. 나주향교가 지척임에도 30여 년간 손길이 미치지 않은 100년 전 고택을 밤낮으로 고쳐 숙박·체험·휴식 공간 '3917 마중'으로 탈바꿈했다. 나주 배를 넣은 양갱과 비누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은 여행에 즐거움을 더해 준다. 고목과 꽃이 풍요로운 정원에서는 클래식 음악 공연이 펼쳐지기도 한다. 향후 이곳에 지역 청년 예술가를 위한 갤러리와 작업 공간을 조성해 나주의 문화 예술 시장을 '마중'할 예정이다.



가을 추천 여행지

4세기에 창건한 불회사는 유서 깊은 발효차 '비로약차'의 산실이다. 별빛, 달빛, 영화, 음악을 감상하는 템플스테이와 입구에서 있는 소박하고 정겨운 표정의 석장승이 이롭다.

담양



지역 정체성을 공유하는 담양

전고필(전라도지오그래픽 총감독)

담양 관방제림 인근에는 이색 중고 서점이 자리한다. 향토사와 지역 정보, 다양한 여행 서적을 판매하는 책방 '이목구심서'다. 이곳을 이끄는 사람은 광주와 서울 등지에서 20년간 지역 활동을 펼치다 귀향한 전고필 전라도지오그래픽 총감독. 이목구심서의 주인공은 전국 각 지역의 특성을 알려 주는 스승 같은 책, 향토사를 기록한 책, 문화 소외 지역을 연구한 책, 테마 여행기 등 소중한 가치를 지닌 책이다. 그는 골목 깊숙한 공간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 주고 지역의 전통과 역사를 담아내는 문화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한다.



가을 추천 여행지

담양의 자랑 소쇄원은 어느 곳 하나 귀하지 않은 공간이 없다. 산에서 내려온 계곡물이 정원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담장 아래를 뚫어 물길을 낸 선조의 지혜가 마음을 사로잡는다.

광주



크고 작은 비엔날레의 도시, 광주

이한호(유스컴퍼니 대표)

부산이 고향인 문화 기획자는 광주 양림동을 여행하다 문득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전 광주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궁금해졌다. 잊힌 광주의 근대사와 마치 운명처럼 마주한 것이다. 이후 그는 생명력을 잃거나 주목받지 못한 양림동에 문화를 입히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오래된 동네와 전통시장을 재생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광주에 터전을 잡은 지 어느덧 10여 년. 이한호 대표는 오늘도 양림동 복합 문화 공간 '10년 후 그라운드'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변화를 모색하며 광주를 문화 예술 도시로 만들어 가고 있다.



가을 추천 여행지

양림동 서양 선교사 묘역에는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펼치다 생을 마감한 의사, 교육자들이 잠들어 있다. 이끼 덮인 묘비, 낙엽이 운치 있는 고목 사이를 가을 햇살 쬐며 산책하기 좋다.

자줏빛 달이 뜨는 섬 자월도

인천 자월도 국사봉을 오르고 내리는 동안 부드러운 어조로 밀려오는 파도 소리에 귀 기울였다.

글. 신준범 사진. 주민욱(이상 월간 <산> 기자) 진행. 김규보

紫月島

인천

조선 인조 때, 관아에서 일하던 이가 자월도로 귀양을 왔다. 첫날 밤, 도통 잠이 오지 않아 나간 해변에서 보름달을 보았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자 달이 자줏빛으로 변하며 거센 바람이 몰아쳤다. 그는 하늘도 자신의 억울함을 알아준 다며 자월도(紫月島)라 이름을 지었다 한다.

아침 배를 놓칠 뻔했다. 시화공업단지과 반월산업단지로 출근하는 차량의 홍수. 시화방조제에서 바다가 드러나고 나서야 출근 차량들과 이별할 수 있었다. 배에 겨우 몸을 실어 떨어지는 육지를 바라본다. 일상과의 이별, 모든 관계와의 하룻밤 작별이다. 이별은 휴식이 되기도 한다.

목은 세월에 담긴 진심

50분 항해를 마치고 블랙야크 익스트림팀 김민선, 연세산악회 최동혁, 인천대학교 산악부 김성원 씨와 섬에 든다. 선착장 관광안내소가 먼저 눈에 띄었다. 간이 사무실을 지키는 어르신께 국사봉 산행 코스를 묻자, 섬을 시계 방향으로 돌며 둘러볼 명소를 읊었다. 구구절절 이어지는 설명을 끊을까 고민했으나 기계적인 설명이 아니었기에 차마 그럴 수 없었다. 목은 세월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를 듣노라면 자월도엔 풍경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 것만 같았다. 섬 최고봉인 국사봉으로 향했다. 해발 0미터에서 출발한 산행은 시작부터 난처하다. 등산로 입구로 연결될 줄 알았으나 도로가 이어진다. 산 입구 찾기는 마을 주민에게 묻자 해결되었다. 임도를 가리키며 “원래 등산로 이정표가 있었는데 없어졌다”라고 한다.





미터 만에 닿은 정상, 신선의 왕궁인 양 짙은 초록 넝쿨이 330제곱미터(100여 평) 정상 일대를 에워싸 호위하고 있다. 전망대이자 쉼터인 팔각정에 오르자 비로소 드러나는 바다. 산에선 바다가 그림고, 바다에선 산이 그림기 마련인데, 섬산은 그런 심리를 다 알고 있다는 듯 절묘하게 경치를 내어 준다.

하늘 궁전의 출현이다. 파란 하늘과 뭉게구름이 르네상스 시대 궁전처럼 웅장한 모양으로 다가온다. 서쪽으로는 덕적도가 헤엄치는 능선인 듯 뻗었고, 북쪽으로는 송도신도시가 첨단 도시의 위용을 드러낸다. 내리막길을 이어 간다. 임도를 지나 짙은 숲 산등성이를 넘었다. 매미 떼가 마지막 힘을 짜내 사랑을 갈구하는 소리에서, 청춘 닳은 여름의 시간을 지나고 있음을 실감한다.

드문드문 핀 꽃이 말을 걸어온다. 초록 세상에서 노랗고 파란 꽃을 피우기 위해 쉼 없이 삼켰던 햇살, 세력 싸움에 밀릴까 조바심 내며 뺨은 뿌리로 삼킨 물방울들. 무한 경쟁에서 참고 삼켜 낸 것들을 응어리로 꼭꼭 모아 뒀다가 터뜨린 찬란한 고백. 원추리, 참나리, 달개비, 기생초, 꽃댕강나무의 구구절절한 고백에 평범한 숲길이 특별해진다. 마을로 내려와 숙소에 짐을 풀고 팽팽히 당겼던 등산화 끈을 풀어 헤친다. 짧지만 달콤한 휴식을 취하고 다시 햇살 속으로 뛰어든다. 선착장 문화관광해설사 어르신이 꼭 가야 한다고 권한 하니깨(하니포) 목숨에 갔다. 자월도는 한일자(一)처럼 길게 뻗었으며, 섬 전체에 산줄기가 일자로 나 있다. 묘한 건 어디서든 고개 넘어 복사면에 들면 오지 섬처럼 고요하다는 것이다.

●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에서 가까운 역은 수도권 전철 1호선 동인천역이다. 여객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자월도까지 50분 정도 걸린다.

이 계절의 산행은 곤혹스러운 면이 있다. 풀이나 넝쿨이 등산로를 완전히 뒤덮어 생채기 몇 개를 봐야 통행을 허락한다. 밤나무, 소사나무, 굴참나무, 자귀나무, 소나무, 팔배나무, 뽕나무, 고로쇠나무를 헤아리며 눈인사를 한다. 최소 일주일 은 아무도 오지 않은 듯한 짙은 숲을 치고 오른다. 넝쿨이 많지만 가시가 짧아 등산 스틱을 활용하면 어렵지 않다. 공격적이기보다는 최소한의 자기 보호를 위한 방어에 가까운 초본식물이다. 한해살이풀이라 하여 아무렇게나 막살지 않는다. 하루살이라 하여 하루를 흥청망청 살지는 않는다. 나무도 풀도 곤충도 최선을 다해 살고 있음을 산행을 통해 배운다.

하늘과 뭉게구름의 절묘한 경치

임도 벤치에서 물을 들이켠다. 짙은 햇살만큼 파란 하늘, 땀을 흥건하게 빼기에 제격이다. 국사봉을 휘감아 도는 임도를 지나 정상으로 향한다. 짧은 오르막이 끝나는 곳에 이름 없는 봉우리가 있다. 터는 좁지만 봉화대로 쓰였을 법한 돌담이 있고, 돌담 가운데에 뿌리내린 소사나무가 주인장 역할을 하고 있다. GPS로 확인한 고도는 175미터, 지도상 최고봉인 국사봉보다 10미터 높다. 높이로만 정상이 결정되지 않는 것은 정상다운 봉우리 기세를 보기 때문이다. 조망이 얼마나 좋은지, 터가 얼마나 넓은지 같은 봉우리다운 맛에 따라 정상이 바뀌기도 한다. 살짝 내려섰다가 얇은 오르막을 올라서면 '벌써 정상'이다. 선착장에서 1.8킬로



바다 앞에서 증폭되는 고요함

목섬 입구에서 배롱나무꽃이 늘어서서 흥조를 띠고 있었다. 원두막 정자가 전망 좋은 곳에 놓였고, 아래로 목섬이 보였다. 목섬 가는 길은 코스모스나 겹꽃무궁화 같은 꽃으로 화원을 만들어 놓았다. 잘 정돈된 화원이 아니어서 야생화 초원인지 혼동되었지만, 섬사람의 거친 낭만이 풍겨 왔다. 바다 사이로 난 짧은 다리를 지나 목섬에 올라서니 작은 전망대가 망망대해 쪽으로 나 있었다. 섬은 그 어느 해보다 조용하다. 바다 앞에 서니 고요함이 증폭되는 것만 같다.

섬 남쪽으로 넘어와 해안 도로를 따라 서쪽으로 걸었다. 장골해수욕장과 큰말해수욕장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눈망을 맑은 아이를 닮은 작은 모래 해변 서너 개가 연달아 나타났다. 이윽고 넓은 장골해수욕장. 감미로운 해변 풍경은 귀양살이 온 이가 억울함을 토로하기 제격이었다. 그렇게 자월의 달을 기다렸다. 아무도 없는 해변에 폐장했다는 현수막만 펄럭이고 나머지는 침묵했다. 바람이 사람 온기처럼 따뜻했다. 르네상스 시대의 몰락 같은 황홀한 노을을 기대했으나, 현실은 흑백사진이었다. 밤이 되어도 자줏빛 달은 떠오르지 않았다.

달이 뜨면 토로할 억울함이 있던 것 같은데 기억나질 않는다. 다만 부드러운 어조로 밀려오는 파도 소리에 마음이 차분해졌다. 밀물이라 하여 힘으로 밀어붙이는 건 아니었다. 조용한 해변에 달맞이꽃이 덩그러니 피어 있었다. ☒



* '건강 여행'은 월간 <산>과 제휴한 칼럼으로 'BAC 섬&산 100' 시리즈를 재편집했습니다.



완주에서 인생샷

조선 시대에 쌓은 위봉산성에서 인생 사진을 남긴다. 과거에 어진을 봉안할 목적으로 지은 위봉산성은 현재 숲이 무성한 산책로로 유명하다.



위봉산성




청정자연을 품은
감성도시,
완주로 떠나는 여행





Stone animal statue (Jinmyosu)
of tomb of King Muryeong, Baekje,
National Treasure

Jinmyosu

Jinmyosu, a bizarre-looking stone animal statue, was what the excavation team first encountered during the 1971 discovery of the tomb of King Muryeong in Gongju, Chungcheongnam-do Province. Dating back to the Later Han period, the imaginary animal has a horn and flame-like wings, and is believed to have guided spirits to the immortal world. To date, Korea's one and only Jinmyosu is the one excavated from the tomb of King Muryeong. The one-horned animal has wings on the side, and a mouth and body painted red to ward off evil spirits. Its right hind leg is presumed to have been broken when the queen was laid to rest. Jinmyosu faithfully stood guard at the entrance of the tomb to protect King Muryeong and his queen, and its 1446-year-long mission drew to an end when it became known to the world. 

50th Anniversary of Discovery of Tomb of King Muryeong: Preparing for the Next Half-Century, Gongju National Museum
September 14, 2021 to March 6, 2022
For inquiries, contact 041-850-6300

culture

- 134
작품에 철학을 담는 정재영 작가
- 144
세계 영화속 가족 이야기
- 152
예술로 일군 르네상스, 싱가포르



정재영
작가의 스튜디오

정재영 작가와 그의 스튜디오

TIKE-

작가의 방



작품 앞에서 정재영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낸다.
글. 이내경 사진. 이규열



정재영





‘Like-150mm installation’, 1996

**20대 정재영은 정형화된
절차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
그때마다 제자를 아끼는
스승 박서보는 대답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installation’, 2000



연이은 캔버스 일곱 개가 하나의 거대한 작품을 이룬다. 화면 간 경계는 사라진 지 오래다. 패널 위 거친 붓터치와 힘차게 흩뿌려진 흑백 물감이 작품 바깥으로 경쾌한 에너지를 뿜는다. 그 앞에 선 정재영이 웃는다. 지난 10년간 해외 활동에 주력하다가 올해 3월 ‘화랑미술제’와 5월 아트 페어 ‘아트 부산’에서 최근작을 소개하며 복귀한 그를 만났다.

창작에 제한을 두지 않는 시골 소년

경북 예천에서 태어난 소년의 꿈은 건축가였다. 세상에 관심이 많던 아이는 동네에서 돌과 흙을 가지고 놀다가도 담을 쌓는 집이 보이면 달려가 한참 구경하곤 했다. 학교에 가서는 늘 공책에 무엇인가 끄적거렸다. 처음에 꾸짖던 선생님도 나중에는 두 손 두 발 들었다. “재영이, 너는 그림 그려라.” 집에서는 서예 붓으로 쓰고 또 썼다. 온종일 홀로 앉아 주야장천 붓질을 하니 닳아서 버린 붓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 국민학교 한 반 60여 명 학생 중 운이 좋아야 20등 안에 들까 말까 했어도 손재주가 많아 미술과 기술 과목만은 늘 100점이었다.

실력을 눈여겨본 선생님의 추천으로 중학교 2학년 때 미술에 입문했다. 유교 전통이 고스란한 마을에서 아버지는 장남의 유별난 재능을 지켜 주고자 했다.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한다”라며 방학마다 서울에 보내 미술을 공부하도록 했고, 대학 입시에 연거푸 네 번 고배를 마셔도 믿고 응원했다. 그 덕분에 소년 정재영은 자유롭게 꿈꾸는 청년으로 성장했다.

소원하던 홍익대학교에 입학해 미술계의 기라성 같은 작가 박서보, 하종현, 이두식과 스승과 제자의 연도 맺었으나 청년은 목말랐다. 획일화된 정규 커리큘럼은 정재영의 꿈틀대는 창작 에너지를 표출하기 부족했다. 1990년 마음 맞는 동기 열 명이 어울려 결성한 ‘황금사과’는 다양한 작품을 시도하는 그룹이었다. 그의 대표 연작 ‘Like-150mm’를 제작할 무렵이었다. 1991년 여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기상예보를 듣다가 불현듯 영감이 떠올랐다. 자신이 좋아하는 비가 150밀리미터 쏟아진다는 뉴스가 예술가로서 도달해야 할 이상향을 일러 주는 기분이었다.

정재영은 150밀리미터를 향해 정진했다. 1996년 고약한 냄새가 나는 생선 상자 500여 개를 전시장 한





'Moment', 2014, Mixed media on panel, 182x225x10cm

쪽에 담처럼 높이 쌓은 'Like-150mm installation'은 작가가 전남 여수를 여행하다 아이디어를 얻은 작품이다. 모든 상자를 까맣게 칠하고 귀퉁이에 'LIKE150MM~' 문자를 새겨 정체를 숨겼다. 맞은편에는 상단부와 하단부에 영어 단어 'a dolmen(고인돌)'과 향수 브랜드 '파코'를 프린트한, 커다란 검은 패널을 진열해 놓았다. 이후 그 향수를 작품과 공간에, 갤러리에 오는 길목의 가로수마다 뿌렸다. "경북궁 동쪽 사간동에 향기가 진동했어요. 향수가 나쁜 체취를 가리는 허위이면서 새로운 내력을 만들어 주는 매개체인 셈이었죠." 청년 정재영의 작품은 실험의 연속이었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과정 자체를 즐겼고, 즐기니 좋은 결과가 따라왔다. 졸업할 즈음에는 판화에도 매력을 느낀다. 동문이 함께 전시하는 홍익판화가협회전에서 그가 선보인 작

품은 파격이었다. "판화는 찍는 개념이잖아요. 문득 '왜 종이에 찍어야 하지?'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종이 대신 돌에 작품을 찍어 설치했어요. 이때부터 돌이 제 작품의 주요 소재가 되었죠." 20대 정재영은 정형화된 절차에도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 그럴 때마다 그를 아끼는 스승 박서보는 대답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제이 영으로 도전한 국제 아트 페어

조금 돌아갔을 뿐이다. 2003년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교수로 임용된 후 정재영은 스승의 길을 걷는다. 명예로운 직업이지만 교수로서 해야 할 의무에 쫓기다 보니 예술은 뒷전이 되었다. 결국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교수직에서 물러나며 결심한다. 직장인이 아닌 예술가로 살기로.


멀어진 동안 예술에 대한 마음은 깊어져 있었다. 주요 소재인 돌에 대한 관점도 진지해졌다. 영원불변한 돌에 변화무쌍한 인생을 접목하자 회이가 밀려오며 마음은 겸손해졌다. 2014년 발표한 'Moment'는 그의 고민이 깊이 밴 연작이다. 철판을 순식간에 구기거나 캔버스에 돌을 박았다가 빼낸 자국을 영원히 남도록 보존하는 작업이다. 오르막 내리막 있는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 구긴 부분은 그의 소재인 돌을 확장한 것이다. "내 철학은 나에게서 도출해요. 중앙에 그은 선은 예술가의 정체성이예요. 중심이 뚜렷한 작가가 보이는 이의 공감을 끌어내는 법이죠."

2010년부터는 국제 아트 페어로 눈길을 돌렸다. 아무 연고 없는 곳에서 작품으로 승부해 보고 싶었다. "국제 아트 페어에서 처음으로 작품이 팔렸을 때 정말 기뻐요. 이제는 다음 해에도 만나자면서 인사를 건네는 컬렉터가 많아요." 제이 영은 유럽을 주 무대로 활동하며 인지도를 높여 갔다. "이름이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친한 큐레이터가 JY라고 부르더군요. 프랑스에서는 '지용', 미국에서는 '재용'... 누구나 발음하기 쉽게 제이 영(J Young)이라고 작가명을 지었어요."



'Moment', 2021, Mixed media on panel, 72x53cm

**청년 정재영의 작품은 실험의 연속이었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과정 자체를 즐겼고, 즐기니 좋은 결과가 따라왔다.**



“순간의 감정을 느끼는 대로
붓끝으로 표출했더니
내면세계가 그대로 캔버스에 옮겨
갔어요. 의도하지 않았어도
의도하게 되었고, 나와 작품 간
경계도 허물어졌어요.”

나는 누구인가? 그 답을 어린 시절에서부터 끄집어 올린다. 답을 하나하나 쌓아 완성한 답장은, 예술품은 곧 정재영이 된다.

2018년 프랑스 ‘아트 파리 아트 페어’ 오프닝에서 펼친 퍼포먼스는 세계인에게 제이 영이라는 이름을 강렬하게 각인했다. 경남 양산 통도사 종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가로 10미터 넘는 캔버스 위에 길이 2.5미터 서에 붓으로 굵고 힘차게 검은 원을 그리고, 그 속에 흰 물감과 노란 물감을 흠뻑려 자신의 영혼을 형상화했다. 이후 캔버스를 고이 접어 시신처럼 얹혀 관에 넣고 합장하며 퍼포먼스를 마무리했다. “저는 한국적인 재료와 이미지로 제 철학을 구현해요. ‘인간은 결국 죽는다. 그 어떤 사람도 죽는다’라는 생각을 그 순간 느끼는 대로 붓끝으로 쏟아 냈더니 내면세계가 그대로 캔버스에 옮겨 갔어요. 의도하지 않았어도 의도하게 되었고, 나와 작품 간 경계도 허물어졌어요. 관에 행위와 정신을 작품으로 보관한 셈이에요.”

작품 자체가 곧 정재영

코로나19가 세계를 팬데믹에 빠뜨린 이 순간, 정재영은 또 다른 기회를 맞았다. 국제 아트 페어가 줄지어 취소되면서 최근작 ‘답’ 연작을 10년 만에 한국 아트 페어에 출품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답’은 정체성을 탐구하는 작품이다. 나는 누구인가? 근원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건축가가 되고 싶던 어린 시절에서부터 끄집어 올린다. 잔잔한 물결이 파동치는 답을 하나하나 쌓아 완성한 답장은, 예술품은 곧 정재영이 된다. “나이에 걸맞은 작가가 되려고 해요. 예술가 이전에 철학자가 되고 싶고요. 나이가 들수록 철학에 조예가 깊어지고 그 지식이 작품에 반영돼 흘러가길 바라요. 떨리는 손이 화폭에 드러나도 그게 바로 나니까요.”

‘Like-150mm’, 2021, Mixed media on paper, 60×40cm



‘Like-150mm’, 2021, Mixed media on paper, 60×40cm



정재영 1964년 경북 예천에서 태어나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회화 전공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2년 중앙미술대전 최우수상과 이듬해 대한민국미술대전 우수상 등 각종 공모전에서 수상했다. 서울, 일본 도쿄, 독일 뮌헨, 미국 뉴욕에서 개인전을 열었으며 독일 쾰른 아트 페어, 미국 시카고 아트 페어 등 여러 아트 페어에 참가했다. 2018년에는 프랑스 아트 파리 아트 페어에서 오프닝 퍼포먼스 작가로 선정돼 주목받았다. 올해 10월 서울 모체이 갤러리와 중국 이우시 칠묵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A



M



L



Y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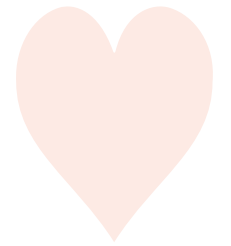


F



I

家族



함께 혹은 따로 결국에는 하나로, 가족

명절엔 역시 영화. 웃다 울다 자꾸 떠오르는 세계 영화속 가족 이야기를 모았다.

글. 김규보



천국의 아이들 A
 감독 | 마지드 마지디
 출연 | 레자 나지, 아미르 파로크 하스미안

아이가 순수하다는 통념은 말로 아이를 가두는 억압일 수 있다. 아이는 무궁한 가능성을 향해 매 순간 스스로 자신을 결정하는 존재니까. 이란의 가난한 가정 아홉 살 알리는 심부름하다 동생 구두를 잃어버린 뒤 자신의 운동화를 동생과 번갈아 신기로 결정한다. 아픈 엄마가 병원 갈 돈도 없는 형편이기에 부모님이 알아채지 못하게 비밀에 부친 것. 어린이 마라톤 대회 수상 선물이 운동화임을 확인한 알리는 또 결정한다. 대회에 참가하기로. 최선을 다한 알리는 1등을 했다. 3등 경품이 운동화였다. 최선을 다해도 어쩔 도리 없는 상황은 언젠든 들이닥친다. 알리는 스스로 결정한 길에서 많은 것을 배웠을 것이다. 아이도, 부모도 결정하고 배우는 인생 역정을 통과한다.



당갈 12
 감독 | 니테쉬 티와리
 출연 | 아미르 칸, 파티마 사나 셰이크

딸의 재능을 발견하고 레슬링을 가르치는 아버지에게 쏟아지는 조롱의 눈빛들. 그래도 아버지는 당당하다. 집안일을 배우다 열네 살이 되자마자 누군지도 모르는 남자와 결혼하는 친구들과 달리, 두 딸은 집안일을 금지시킨 아버지의 지도로 레슬링 선수의 길을 걷는다. 신분제인 카스트제도가 여전히 통용되는 인도에서, 여성의 정당한 목소리가 묻히기 십상인 분위기에서 아버지는 딸이 주체적인 삶을 살길 바라며 "너만의 승리가 아닌 모든 소녀의 승리를 위해 싸워야 한다"라고 격려한다. 인도 최초의 여자 레슬링 국제 대회 챔피언이 써 내려간 신화 같은 이야기를 각색한 영화로, 아버지의 속 깊은 사람을 유쾌하면서 애뜻하게 그려 냈다.



안토니아스 라인 19
 감독 | 마를렌 고리스
 출연 | 빌레케 반 아메루이, 엘스 도터만스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다 늙고 죽는 서사에 등장하는 혈연만 가족일까? 그렇다는 믿음은 신성한 것일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딸과 고향에 돌아온 안토니아는 가장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마을에서 자신만의 공동체를 형성한다. 동성 연인과 사는 딸, 모성애라는 틀에 갇히지 않는 손녀, 지적장애인, 파계한 천주교 신부, 바보 취급을 받던 일꾼이 모여 농사짓고 밥을 먹고 서로 위로한다. 사회가 낙인찍기 쉬운 약자들이지만 그들의 공동체는 배경인 네덜란드 농촌 풍경처럼 정답다. 순환하는 계절 속에서 관계를 파종하고 열매를 거두어들이는 사람들. 신성에 가까운 결속으로 가족 이상의 관계를 일군 이들이 가족의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어웨이 워고 15
 감독 | 샘 멘데스
 출연 | 존 크래신스키, 마야 루돌프

출산을 앞둔 대부분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지 생각한다. 아이에게 무엇을 해 줄지 걱정한다. 버트와 베로나도 그랬다. 베로나가 임신하자 둘은 아이와 살 만한 도시를 찾아 떠난다. 미국의 다섯 도시에서 입양한 아이와 사는 부부, 반려자가 도망쳐 홀로 딸을 키우는 게 걱정인 사람에게 조언을 얻고 그들의 일상을 관찰한다. 하나하나 독특한 방식으로 가족을 일궈 나가는 모습에 감명을 받고 언젠는 실망하면서 생각을 깊어 올린다. "내 안의 좋은 것을 꺼내 그것으로 가정을 꾸리는 거야.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해." 버트와 베로나는 살던 집으로 돌아온다. 아이는 버트와 베로나의 일상을 살 것이다.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가? 아니, 지금 '그대로' 가족이다.



로마 15
 감독 | 알폰소 쿠아론
 출연 | 알리차 아파리시오, 마리나 데 타비라

같은 곳을 바라봐야 가족이라기보다, 보는 곳이 서로 다르더라도 보는 지금을 함께한다는 사실이 따뜻해 가족이다. 아들 셋, 딸 하나를 키우는 가정의 가사도우미 클레오는 부부와 아이를 진심으로 대한다. 데모와 진압이 반복되는 1970년대 멕시코의 격변기 속에서도 평화로워 보이는 가정은 사실 무너지고 있었다. 외도하는 남편이 몇 달간 집을 비우는데 양육까지 외면한다. 클레오 또한 남자친구가 임신한 자신을 버리고 도망쳤으며 아기를 사산한다. 아내와 클레오는 상처는 달라도 상처 입은 서로를 위로한다. 결국 바닷가에서 아이들과 아이들의 엄마, 클레오는 부둥켜안는다. 연대하는 그들은 가족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에게겐 수많은 부모와 형제와 자식이 있다.



마이 시스터즈 키퍼 12
 감독 | 닉 카사베츠
 출연 | 카메론 디아즈, 아비게일 브레스린

죽어 가는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누구를 죽임과 다름없는 상황으로 몰아야 한다면. 둘 다 가족이라면. 병에 걸린 딸 케이트를 살리고픈 부부는 딸의 유전자와 동일한 아이를 유전공학을 통해 낳아야 할지 고민한다. 그렇게 딸 안나가 태어난다. 안나는 언니에게 제 대혈, 줄기세포, 골수를 내주고도 더 내주려 성장 주사를 맞아야 했다. 나라는 사람의 의미가 언니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만 있는 현실을 태어난 지 10년 남짓한 아이가 받아들이는 힘들다. 안나는 어느 날부터 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 영화는 가족이기에 앞서 인간이고, 인간이기에 존엄한 가족이 당신에게 어떤 존재였느냐고 묻는다. 답하는 과정에서 세상 단 하나인 생명을 만난다.



인생 15
 감독 | 장미머우
 출연 | 공리, 갈우

엇그제는 좋았다가, 좋던 그것 때문에 나빠진 어제. 오늘은 나쁘던 그것 덕분에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런 나날이 쌓여 간다. 인생이다. 중국의 부자 지주 아들 푸구이는 도박에 빠져 전 재산을 날리고 집을 빼앗긴다. 철부지 남편을 견디다 못한 아내가 아이들과 집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일도 겪는다. 푸구이는 그림자극 공연으로 겨우 끼니를 잇는 비참한 신세가 된다. 그러는 사이에 사기도박으로 집을 빼앗은 이가 공산당에 의해 반동분자라는 명목으로 처형된다. 계속 부유했다면 푸구이가 처형당했을지 모른다. 공산당 정권 수립,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의 파란만장한 시대가 삶에 굴곡을 빚어도 들여다보면 꼭 우리네 평범한 가족사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새옹지마, 인생.



가버나움 15
 감독 | 나딘 라바키
 출연 | 자인 알 라피아, 요르다노스 시프로우

열 살쯤 되었을까. 레바논 빈민촌에 사는 자인이 특, 한 마디를 내뱉는다. "사는 게 뭐 같다." 죽히 며칠 썩지 않은 꼬질꼬질한 얼굴엔 냉담한, 어쩌면 비관적인 표정이 서렸다. 부모는 어린 동생을 팔아 치우듯 가게 주인과 결혼시킨다. 자인처럼 열 살쯤 된 동생은 얼마 안가 죽는다. 가게 주인에게 상해를 입힌 자인이 감옥에 갇혀 재판을 받는다. 출생 기록이 없어 정확하진 않으나 열 살쯤 된 자인은 재판 정에서 고발한다.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님을 고소하고 싶어요." 부모는 아이에게 절대적 존재다. 명령을 내리는 권력자가 아니라 자립할 때까지 삶을 이끄는 스승이자 돌보는 보호자로서. 이 진실이 균림하거나 무관심한 가정의 누구에겐 거짓이 된다.



캡틴 판타스틱 15
 감독 | 맷 로스
 출연 | 비고 모텐슨, 조지 맥케이

규범이나 법률은 우주가 탄생한 빅뱅 때에 함께 탄생한 게 아니다. 당연하다. 그러한 사회적 기준이 무조건 옳다 믿는 생각도 마찬가지. 벤은 깊은 숲속에서 여섯 자식을 가르친다. 학교에서 역사나 수학을 공부하는 일반 교육과 다르다. 아찔한 수직 암벽을 등반하고, 날카로운 칼로 사슴을 사냥하고, 산길을 달려 몸을 단련한다. 벤은 넘어지고 깨진 자식을 일으켜 주기보다 일어나라고 말한다. 교육기관에 미등록된 벤만의 홈 스쿨링은 사회적 기준과 확실하게 동떨어져 있다. 사회는 그들에게 끄악한 시선을 보낸다. 그로 인해 가족이 갈등하기도 한다. 영화는 누가 옳은지 결론 내지 않는다. 다만 서로 의지하고 치유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마지막 장면에서 비춘다.



인생 후르츠 16
 감독 | 후시하라 켄시
 출연 | 쓰바타 슈이치, 쓰바타 히데코

노력과 결실을 단위로 환산하고는 투입은 줄이고 산출은 늘리라 재촉하는 시대. 아흔 살 쓰바타 슈이치, 여든일곱 쓰바타 히데코 부부는 항상 오늘을 충만하게 산다. 과일 50종과 채소 70종을 보살피고 텃밭에서 가꾼 작물로 음식을 만든다. 수십 년간 방문한 가게 주인에게 맛있게 먹었다면서 엽서를 쓴다. 아내는 건축가 남편이 맡은 일에 대해 이런저런 의견을 말한다. 남편은 아내의 조언을 존중하며 지지한다. 일본 시골의 사계절 풍경이 서정적으로 흐르는 가운데, 다큐멘터리는 돌을 합쳐 177살 노부부의 일상을 가만히 따라간다. 반려자를 소중히 여기고 배려하는 부부의 하루에 저비용과 고효율의 시간은 끼어들 틈이 없다. 부부는 그렇게 함께한다.



토니 에드만 19
 감독 | 마렌 아데
 출연 | 산드라 휠러, 페테르 시모니슈에크

사랑하는 방법은 제각각이다. 상대방이 기겁케 느끼는 방식이 있고 불편해하는 방식도 있다. 형식은 그렇대도 진실한 사랑은 가슴에 가 닿는다. 아버지가 딸 이네스를 보러 루마니아에 예고 없이 방문한다. 딸은 무척 바쁘다. 하루 종일 전화를 붙들고 일한다. 아버지가 보기에 딸은 웃음을 잃은 채 일만 쫓는다.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고 외부만 주시한다. 유머를 즐기는 아버지는 딸 앞에서 '토니 에드만'이라는 가상 인물을 연기한다. 시답잖은 농담을 던지며 따라다니는 아버지가 지겨운 딸. 행복하나는 아버지의 질문에 왜 못나고 따지는 딸. 아버지는 과한 방식이나마 계속 가슴을 두드렸고, 결국 가슴을 울린다. 둘은 진심으로 포옹한다. 가족은 늘 그래 왔다는 듯이.



컬러풀 웨딩즈 12
 감독 | 필립 드 쇼브홍
 출연 | 프레데릭 벨, 엘로디 풍탕

세 딸이 각각 아랍인, 유대인, 중국인과 결혼했다. 관용을 뜻하는 틀레랑스 정신을 떠올려도 프랑스 부부는 내심 마음에 안 든다. 막내 딸만은 독실한 천주교 백인 프랑스인과 결혼하길 바라는데, 실제로 막내딸이 천주교 신자 프랑스인을 소개한다. 부부가 기쁘게 나간 자리에 딸은 독실한 천주교 흑인 프랑스인을 데려온다. 불만 대폭발. 부부는 의견이 갈려 이혼 이야기를 꺼내고, 막내딸은 결혼을 포기하려 한다. 긴장이 고조되는 중 아버지는 프랑스로 건너온 예비 사돈과 '절친'이 된다. 친구만 되었을까. 부부는 가족을 전과 다르게 바라본다. 중요한 건 딸의 행복임을 깨달은 덕분이다. '너를 위해'라는 생각에 숨은 '나를 위한' 마음을 버리자 가족 모두 행복해졌다.

2021.9.17.금(Fri) - 12.19.일(Sun)
 청주시립미술관 1층 로비, 2층, 3층 전시실 CMOA 1F, 2F, 3F
 김윤철, 문준용, 박기원, 박진아, 백남준, 신봉철, 우재길, 이이남, 하동철 Yunchul Kim, Joon Moon, Kiwon Park, Jina Park, Namjune Paik, Bongchull Shin, Jaegil Woo, Leenam Lee, Dongchul Ha

2021.9.9.목(Thu) - 11.21.일(Sun)
 오창전시관 Ochang Gallery
 양민하 Minha Yang

2021.9.17.금(Fri) - 11.14.일(Sun)
 청주시립미술관 1층 전시실 CMOA 1F
 제니퍼 스타인캠프 Jennifer Steinkamp





하나의 렌즈 다양한 이야기

두 손은 조종기에, 두 눈은 하늘에 떠 있는 드론에 집중한다.
드론의 렌즈는 내 눈과 마찬가지로 김동필 드론 사진가와 이야기를 나눴다.

글. 표다경

● **직장을 다니면서 드론 사진가로 활동 중이세요. 사진에 관심이 생긴 계기가 궁금합니다.** 1991년 공인회계사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 직업을 지금도 사랑하고요. 어느 날 제2의 인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 고민하던 중에 독일 사진가 안드레아스 구르스키의 사진을 보고 감명받았어요. 동호회에서 활동하며 사진에 점차 빠졌고, 전문 사진가로 거듭나고 싶었어요. 도전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고민과 두려움을 이겨 내고 2014년에 대학원 사진학과에 진학했습니다.

● **곡선과 직선의 조화가 아름다운 사진이 인상적입니다. 드론을 회전시키며 촬영하는 기법도 특이하고요. 사진가님이 생각하는 드론 촬영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높은 위치에서 피사체를 내려다본다는 점입니다. 수평, 수직 이동이 자유로운 것도 빼놓을 수 없지요. 원근감이 사라진 사진을 바라보면 자연은 점, 선, 면으로 완성한 조형물이에요. 특히 눈과 밭은 이런 요소가 잘 드러난 곳입니다.

● **올해도 전국을 돌아다니며 촬영하셨어요. 아끼는 장소가 있나요?** 농경지 촬영에는 농작물과 토양이 중요한 요소라 제주도를 좋아합니다. 제주도는 밭에서 나는 작물이 다양하고, 화산성이어서 토양이 특이해요. 밭을 밟고 구분 짓는 밭담과 해풍에 따라 시시각각 모습을 달리하는 파도가 근사합니다. 도시화로 세계중요농업유산인 밭담이 사라지고 있어 아쉬울 따름입니다.

● **모든 작품이 소중하겠지만 그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작품을 소개해주세요.** 제가 늘 무겁게 생각하는 작품은 2018년 8월에 라오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촬영 당시에는 풍경을 잘 담았다고 여겨 만족했어요. 귀국 후 홍수로 농경지가 침수 중인 상황임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복구되었는지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해 10월에 다시 방문했습니다. 현장은 처참했고요. 소생이 불가능한 농작물 앞에서 만감이 스쳤습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았죠.

● **산악 사고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해 구조 대상자를 찾은 좋은 사례도 있지만, 간과해선 안 되는 드론의 위험성도 있지요. 앞으로 드론의 영역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만큼 드론과 조종자도 늘어나겠지요. 드론 조종자는 드론이 생명과 재산을 훼손할 수 있는 장비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조종에 앞서 비행 연습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하며, 조종 시에는 안전 수칙 지키기가 기본입니다. 드론을 어떻게 쓰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구매를 보류하세요. 충분히 고민하길 바랍니다.**

● **앞으로 어떤 작품을 내놓을 계획이신가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보은 법주사를 2020년 4월부터 매달 방문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간직한 기와를 사진으로 기록하는 중이에요. 기와를 상공에서 본 적 있으세요? 이번 작업으로 저는 기와의 매력에 빠졌답니다. <KTX매거진>을 통해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10월 8일부터 28일까지 평택 송탄국제교류센터 일대에서 펼쳐지는 '평택국제사진축전'에 참여합니다. 부산에서 개인전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문화로 일군 르네상스 싱가포르

도시 개발 계획이 이룩한 문화가 싱가포르만의 특색이 되었다.

글. 이내경



연평균 900회 국제회의가 열리는 세계 최고의 컨벤션 도시, 지구촌에서 관광객이 많이 찾는 도시 5위권. 1965년 8월 9일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분리 독립한 싱가포르의 발전은 눈부시다. 이 국가를 급부상하게 한 정책은 세계 최고 문화 예술 도시로 거듭나고자 수립한 '르네상스 시티 프로젝트'. 싱가포르는 2000년부터 12년 동안 문화 예술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 있는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주력했다. 그 결과 관련 직군에 총 2만 개 넘는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시민의 일상에 문화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이와 발맞춰 도심의 스카이라인은 감탄을 자아낼 정도로 화려해졌다. 배를 떠받치는 형상의 복합 리조트 마리나베이 샌즈, 20~25미터 높이의 슈퍼트리가 군락을 이룬 가든스 바이 더 베이 등 혁신적 건축물이 즐비하다. 역사는 짧아도 영감이 샘솟는 도시다.

→ 아트 사이언스 뮤지엄 (Art Science Museum)

예술과 과학이 만나 상상을 현실화한다. 총 21개 갤러리에서 예술, 과학, 문화, 기술이 어우러진 전시를 연중 개최한다. 대표 상설 전시 <퓨처 월드: 예술과 과학의 만남>은 인터랙티브 디지털 설치물을 활용해 상상을 무한으로 확장한다. 만질 때마다 색이 변하고 다른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수많은 공을 전시한 '라이트 볼 오케스트라', 공간을 가득 메운 LED 조명이 반짝거리는 '크리스털 유니버스' 등 작품이 모두 특별하다. 저명한 건축가 모세 사프디가 방문객을 환영하는 듯이 활짝 편 손모양으로 지은 건물도 볼거리다.



← 차이나타운 벽화 by 입여충 (Yip Yew Chong)

차이나타운 골목골목을 누비다 보면 싱가포르에 정착한 중국 이민족의 풍습에 녹아든 자신을 발견한다. 로컬 아티스트가 건물 벽면에 담은 그림 덕분이다. 특히 옛 생활상과 어린 시절의 추억을 옮긴 입여충 작가의 벽화는 여백을 두어, 보는 이가 참여하도록 유도해 더욱 재밌다. 과거 글을 모르는 이민자의 편지를 대필하는 작가를 그린 '편지 쓰는 사람' 속 주인공 맞은편에 빈 의자를 그리는 형식이다. 무심코 길을 지나던 사람도 그림과 하나가 되어 사진을 남기게 되는 거러다.



→ 에스플러네이드(Esplanade)

뾰족뾰족한 차양 7000여 장이 지붕을 뒤덮은 거대한 쌍둥이 건물이 열대 과일 두리안을 연상시킨다. 알루미늄 소재를 이용해 공학적으로 설계한 차양은 위치에 따라 모습이 미묘하게 달라지며 싱가포르의 강한 햇볕을 가려 실내 온도를 쾌적하게 유지하는 기능을 지녔다. 독특한 외관도 매력이지만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 구성된 내부에는 콘서트홀, 극장, 스튜디오 등이 층마다 자리해 문화와 예술에 흠뻑 취하기 충분하다. 특히 콘서트홀은 세계적 음향 디자이너 러셀 존슨의 작품으로, 소리를 전 객석에 풍부하게 전달한다. 에스플러네이드 투어도 놓치지 말자.



프로모션



여행하듯 쇼핑을 즐긴다 노벤탐타 디 피아베 아울렛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주택가를 콘셉트로 삼은 ‘노벤탐타 디 피아베 아울렛’을 소개한다.



접근하기 편한 아울렛

쇼핑은 해외여행 필수 코스다. 수입하는 제품의 경우 한국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하는 브랜드숍이 숙소나 근처 역과 가까우면 일정을 짜기 편하다. 다양한 브랜드를 한곳에 모아 놓은 아울렛이 근처라면? 더할 나위 없겠다. 유럽과 캐나다에서 쇼핑 명소로 자리 잡은 맥아더글렌 그룹의 ‘노벤탐타 디 피아베 아울렛’은 이탈리아 주요 여행지와 가까워 인기가 높다. 베네치아와 트레비소에서 차로 각각 40분과 30분, 아드리아해에선 20분 정도 걸린다. 기차로는 베네치아 산타루치아역에서 트리에스테행 기차를 타고 산도나디피아베-예술로역에서 하차하면 된다. 역에서 아울렛까지는 차로 10분 거리다. 베네치아 로마광장과 아울렛을 오가는 셔틀버스도 운행한다.

150개 이상의 다채로운 브랜드

모자이크와 프레스코 벽화로 꾸민 아울렛에 들어서니 이탈리아의 어느 주택가를 거니는 기분이다. 아울렛 내에 베네치아의 상징인 곤돌라 실물을 전시해 두어 여행지 분위기를 물씬 풍긴다. 그 덕분에 노벤탐타 디 피아베 아울렛은 ICSC(국제쇼핑협회) 유럽이 발표한 ‘2015 최고의 건축 쇼핑센터’에 선정됐다. 근사한 건물 내부에는 연중 30~70퍼센트 할인하는 브랜드로 가득하다. 한국인이 좋

아하는 이탈리아 유명 브랜드뿐 아니라 나이키, 아디다스, 록시땅 등 스포츠와 뷰티를 망라한 150개 이상 브랜드가 알차게 들어섰다. 보테가 베네테, 펜디, 마르니 매장은 이곳에서만 만날 수 있다.

코로나19 시대에도 안전하고 편하게 쇼핑 즐기기

쇼핑하기에 앞서 게스트 서비스 데스크로 향하자. 한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아울렛이니만큼 브랜드, 부대시설을 한국어로 표기한 가이드 지도를 준비했다. 방문 예정인 매장을 살피는 동안 효율적인 동선이 눈에 그려진다. 길을 헤맬 걱정을 덜었다.

쇼핑하다 보면 한두 시간은 훌쩍 지나간다. 슬슬 다리가 아프고 배도 고프다. 복합 문화 공간인 노벤탐타 디 피아베 아울렛은 쇼핑만 하고 돌아가긴 아쉽다. 정통 베네치아 스타일 샌드위치를 선보이는 ‘트라메’, 달콤한 초콜릿을 내놓는 ‘린트’ 등 이탈리아 유명 레스토랑과 디저트 가게, 카페 등이 아울렛 곳곳에 자리한다. 맛있는 요리를 먹으면 다시 쇼핑할 힘이 생긴다.

전 세계 사람이 찾는 노벤탐타 디 피아베 아울렛은 철저한 방역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쓴다. 매장, 레스토랑, 화장실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게스트 서비스 데스크에서는 일회용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도 제공한다. 모든 매장이 입장 인원을 철저히 지키는 덕분에 여행자는 안전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다.



Noventa Di Piave
노벤탐타 디 피아베 아울렛

☉ 영업시간

오전 10시~오후 8시

🌐 홈페이지

www.mcarthurglen.com/designer-outlet-noventa-di-piave

할인에 할인을 더하는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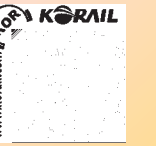
잊지 말고 방문하세요 #게스트서비스데스크

☆ 혜택 1

노벤탐타 디 피아베 아울렛의 게스트 서비스 데스크에서 환전과 텍스 리펀이 가능하다. 쇼핑 합계 금액이 154.95유로(약 21만 원) 이상이어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여권, 텍스 리펀 신청서, 신용카드를 제시하면 된다. 현장에서 받지 못하더라도 걱정하지 말자. 이탈리아는 텍스 리펀 신청서가 발행 될 기준으로 3개월 동안 유효하다.

☆ 혜택 2

대한항공 탑승권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시럽 웰렛'에서 '맥아더글렌' 브랜드 카드를 발급받으면 연중 30~70퍼센트 할인 금액에서 10퍼센트 추가 할인해 주는 패션 포트 카드를 지급한다. 오프 시즌 세일 기간에는 중복 할인이 불가능하지만, 할인 제외 품목에 한해 패션 포트카드의 추가 10퍼센트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객관적인 아침

이장욱

객관적인 아침

나와 무관하게 당신이 깨어나고

나와 무관하게 당신은 거리의 어떤 침묵을 떠올리고

침묵과 무관하게 한일병원 창에 기대 한 사내의 손에서

이제 막 종이비행기 떠나가고 종이비행기,

비행기와 무관하게 도덕적으로 완벽한 하늘은

난감한 표정으로 몇 편의 구름, 띄운다.

지금 내 시선 끝의 허공에 걸려

구름을 통과하는 종이비행기와

종이비행기를 고요히 통과하는 구름.

이곳에서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소실점으로 완강하게 사라진다.

지금 그대와 나의 시선 바깥, 멸종 위기의 식물이 끝내

허공에 띄운 포자 하나의 무게와

그 무게를 바라보는 태양과의 거리에 대해서라면.

객관적인 아침. 전봇대 꼭대기에

겨우 제 집을 완성한 까치의 눈빛으로 보면

나와 당신은 비행기와 구름 사이에 피고 지는

희미한 풍경 같아서.

당신은 어떤가

오늘도 나와 무관하게 아침은 오후에 자리를 내어 준다. 도로 위의 차들은 직선으로 지나간다.

객관적으로 흘러가는 세상에서 어쩌면 나는 묻고 싶었는지 모른다. 당신은 어떠냐고.

글. 이우성(시인) 진행. 표다경

시 그만 써도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시인이 몇 명 있다.

물론 이우성 기준. 이미 말도 안 되게 치명적으로 아름다운

시를 썼으니까, 그만 써도 충분하지 않겠느냐는 의미다.

시인이려면 누구나 바람은, 단 한 편이라도 세계를 울리는 시를

쓰는 것 아닐까? 나는 이장욱의 첫 시집을 읽고 이 시인에게

무엇을 더 기대하는 것은 욕심이라고 생각했다.

언어의 한 절정을 느끼고 돌아온 자가 쓴 시 같아서.

'객관적인 아침'은 첫 시집 <내 잠 속의 모래산>에 수록된 시다.

나는 이 시를 설명하기 위해 이 글을 쓰는 것은 아니다. 다만

몇 가지를 말하려고 한다. 객관적인 아침은 어떤 아침일까?

당신이 나와 무관하게 깨어나는 것이 왜 새삼 특별할까?

종이비행기와 하늘은 서로 연결되어야 했을까? 하늘은 도덕적인

대상일까? '무게'를 바라보는 '거리'가 어떻게 존재할까?

반면에 그것은 왜 존재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나는 시가

단어와 단어 사이의 미술이라고 생각한다. 단어와 단어 사이에

그려지는 풍경, 감정을 시라고 부른다고 믿는다. 그런데 나는

'객관적인'과 '아침'을 나란히 배치하는 감각을, 음, 저 시집이

나온 게 2002년이었으니, 익숙하게 체득한 상황은 아니었다.

나와 당신 사이의 아침에 '무관하다'라는 감정을 집어넣는 것

역시 낯설었다. 종이비행기 하나가 날아가는 풍경을 나라면

어떻게 묘사했을까? 내가 끌어올 수 있는 단어는 이장욱과

달랐을 것이고, 이장욱은 당시의 누구와도 달랐다. 보통 이런 걸

새롭다고 한다. 내가 판단하기에는 정확한 표현은 아닌 거 같고,

달랐다고 하는 것도, 음, 부족하다. 어떤 특별함 같은 것일 텐데,

아무도 볼 수 없는 공의 궤적을 읽어 내는 극소수의 타자가 지닌

감각 같은 거? 그래서 오히려 '발견'이라고 하는 게 더 적합할 것

같다. 그렇다면 풍경의 발견, 감정의 발견, 이런 걸까?

부질없는 얘기다. 아름다우니 그것으로 되었다. 나는 이 시를

좋아해서 사람들에게 자주 보여 주었는데 대부분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인내심을 갖고 여러 번 읽은 친구 중 한 명은,

그래서 종이비행기가 날아가고 있다는 거네? 병원 창에 기대

사내가 있는 거로 봐선 누가 아픈가? 멸종 위기의 식물이

나오니까 죽음에 관한 이야기도 있는 거고? 슬픈데 슬프다고

말하지 않는 거구나 등의 이야기를 쏟아 내기도 했다.

나는 그 감정의 '거리감'이 시이며, 죽음같이 어쩔 수 없는

슬픔을 '객관적인'이라는 단어로 일축해 버린 재능을 설명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 시는 수학이 아니어서 어느 순간

무엇인가 총체적으로 몰아치기도 하고, 일순간에 사라지기도

하니까. 논리나 단계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 나는 묻고 싶은 것이다. "당신은 어떤가"라고. 그리고

바람이 있다면 가을에 죽음과 일상이 공존하는 어떤 풍경과

그 안에 담긴 아름다움을 발견하기를. 오늘도 나와 무관하게

아침은 오후에 자리를 내어 주고, 도로 위의 차들은 직선으로

지나가고, 그 위로 햇빛이 나비를 밀어 올리는 풍경. 거의 빛과

비슷하게 반짝이는 날갯짓. 가을의 풍경과 가을의 감정을

나름의 방식으로 조합하는 경험을 누리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는 그것이 자신의 감정과 거리를 두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방식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누군가에게

위로받는 대신 자신을 위로하는 행위이기도 할 테고.

가끔 장례식장을 지나가거나 뉴스를 보면 나와 무관하게 죽은

사람들과 나와 무관하게 슬퍼하는 사람들을 마주친다.

나와 무관하게 흘러가는 구름과 나와 무관하게 잊히는 기억들.

소멸의 순간을 자각하지 못하는 때에도 세상은 객관적으로

흘러간다. 우리는 그 풍경과 감정을 잃어버리거나

놓쳐도 괜찮다. 그 역시 무관한 일일 테니.

그러나 지금 차창 밖에서 다가오고 희미해지는 풍경과

감정에 대해서라면 누구라도 할 말이 있지 않을까? 잊고 지낸

기억이 있고, 간절한 사람이 있으며, 소중한 약속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 건... 나의 오지랖이다. 무려 20년 전,

한 젊은 시인이 보고 느낀 세계의 정서는 여전히 낯설고

독특하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 "나에게 당신은 어떤가"라고

묻는다면 아까도 말했듯 나는 이렇게 치명적으로 아름다운 시를

썼는데 어떻게 더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가끔 이 시를 생각하면, 내 주변을 흐르는 풍경과

감정이 총체적으로 다가오고 사라진다. 의심할 바 없이 그건,

행복의 감정이다. 뛰어난 시인에게 갖는 그 흔한

질투조차 느껴지지 않는다. ☑



Film x Train



도심을 향해 폭주하는 기관차를 막아라!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베테랑 기관사와 신참 차장인 폭발성 화물을 싣고 질주하는 기관차를 세우려 뛰어 들었다.

글. 전찬일(영화 평론가) 진행. 김규보



〈언스토퍼블〉,
토니 스콧 연출, 2010

경력 28년의 베테랑 기관사 프랭크와 4개월에 불과한 신참 차장 윌은 평상시와 다른 하루를 맞는다. 오후에 벌어질 대형 사고를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같은 시각, 한 조차장에서 폭발성 화물이 가득 실린 777호 열차를 다른 선로로 옮기려는 지시가 내려진다. 하지만 거들먹거리는 두 정비공의 부주의로 기관차는 승무원 하나 없이 달리게 되고, 엄청난 굉음과 함께 시속 100킬로미터 넘는, 도저히 멈춰 세울 수 없는(unstoppable) 폭주를 시작한다. 폭탄 과물로 변해 버린 기관차는 몇 시간 내에 도시를 관통할 것이고, 대재난은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그때 같은 선로에서 폭주 기관차를 향해 달리던 프랭크와 윌은 목숨을 담보로 건 일대 모험을 감행한다. 운행 본부의 상관 코니 등과 협력하면서. 간단한 줄거리만으로도 기차가 프랭크나 윌에 버금가는 주인공이라는 것쯤은 대번에 알 수 있을 터. 아니나 다를까, 여태 짙은 그 어떤 영화 이상으로 기차의 비중이 결정적·절대적이다. 일말의 공포감을 일게 하기도 하나, 영화 내내 질주하는 기차를 목격하는 쾌감이 여간 진한 게 아니다.

1억 달러(약 1140억 원)를 들여 만든 〈언스토퍼블〉은 2010년 11월 14일 북미 지역에서 개봉한 첫 주말에 2300만 달러(약 262억 원)에 근접하는, 나쁘지 않은 흥행 성적을 올렸다. 하나 끝내 총수익이 8000만 달러(약 912억 원)를 넘는 데 그쳤으며, 전 세계 수익도 1억 6800만 달러(약 1916억 원)에 달하는 정도였다. 미국보다 4일 앞서 세계 최초로 선보인 국내 성적도 총 45만 명 관람으로, 그해 외국 영화 순위 40위였다. 나 역시 '영화 속 기차' 연재를 하기 전까지 이 영화

를 잘 모르고 있었다. 주연인 덴절 워싱턴이 얼마나 좋은 배우인지 명확히 인지했고, 감독이 "이만큼 드라마가 탄탄한 액션물을 만들 수 있는 감독은 할리우드에 의외로 많지 않다"라고 평가받은 토니 스콧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도, 정작 영화를 보려 애쓰지 않았다.

개인적 선호 여부를 떠나, 고회를 두 해 남긴 2012년 생애를 마감한 토니 스콧은 감독으로서나 기획자, 프로듀서로서 명장이었다. 카트린 드뇌브, 데이비드 보위 주연의 〈악마의 키스〉로 주목할 만한 데뷔전을 치른 후, 〈탑건〉으로 톰 크루즈를 스타덤에 오르게 한 그 감독 아니던가. 이후 사망 전까지 20여 편의 영화와 TV 쇼를 연출했고, 50여 편의 제작에 참여했다. 〈리벤지〉 〈폭풍의 질주〉 〈마지막 보이스카웃〉 〈트루 로맨스〉 〈크림슨 타이드〉 〈더 팬〉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 〈스파이 게임〉 〈맨 온 파이어〉 등이 그의 연출작이요, 박찬욱 감독의 〈스토커〉는 그가 형 리들리 스콧 등과 함께 기획·제작한 대표작이다.

그러나 그의 연출작 중 어느 것도 영화 예술·미학적으로 형 리들리 스콧의 수·결작에 미치지 못했다. 리들리는 SF 걸작 〈에일리언〉과 〈블레이드 러너〉를 거쳐 〈델마와 루이스〉 〈글래디에이터〉 〈블랙 호크 다운〉 〈아메리칸 갱스터〉 〈프로메테우스〉 〈마션〉 등을 빛어 낸 거장. 리들리 스콧은 19세기 초 니콜레옹 시절 명예를 회복하고자 시비에 휘말린 한 사내와 15년간 결투를 벌인 한 남자의 드라마를 극화한 장편 데뷔작 〈결투자들〉로 1977년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돼 만장일치로 신인작품상을 거머쥐어 일찌감치 거장의 싹을 입증했다. 예술과 상업 영화 사이를 오가며 크고 작은 성취를 올린 형과 달리 토니는 상업 일반도 노선을 달렸다.

지금 이 순간, 자문해 본다. 영화가 예술 이전에 오락·산업을 지향·목표하기 마련이거늘 대중적 상업 영화를 만들어 왔다는 것이 무슨 문제란 말인가. 편견 아닌가? 그런 열린 시선으로 바라보면 〈언스토퍼블〉은 흥미진진한 웰메이드 오락 영화로 비상한다. 실화를 적잖이 과장·윤색해 빛은 영화의 결말은 물론 예정돼 있다. 도식적이기도 한 플롯 탓에 때론 실소가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미션 임파서블'일 것만 같은 도전에 전격 투신하는 두 주인공의 용단에 갈채를 보내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뻔한 결론을 향해 질주하는 과정에서도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감·긴박감을 만끽할 수 있다.

더 이상 부연이 필요 없을 할리우드 최고 명배우 덴절 워싱턴과 극장판 〈원더 우먼〉과 〈원더 우먼 1984〉 〈스타트렉〉 시리즈, 그리고 수작 〈로스트 인 더스트〉의 명배우 크리스 파인과의 연기 호흡이나 세대 차이 따윈 대수롭지 않다는 듯 옥신각신하면서도 두 캐릭터 간에 펼쳐지는 브로맨스를 지켜보는 재미도 강렬하다. 대참사 직전, 두 주인공이 펼치는 결말부 기차 액션 시퀀스는 가히 압도적이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사태를 한층 악화시키는, 탐욕스러우면서도 무능하기 짝이 없는 경영층을 향한 은근한 비판이나 프랭크로 대변되는 노동자 계층에 보내는 통쾌한 성원·찬사, 보통 사람의 영웅화 서사 등의 함의도 작지 않다.

〈언스토퍼블〉은 결코 액션을 전시·자랑하는 그렇고 그런 영화가 아니다. 〈스피드〉 혹은 〈설리: 허드슨강의 기적〉의 기차 버전이라 할 문 제작으로 손색없다. 내게는 토니 스콧과 '열차 영화'의 재발견으로 다가섰다고 해도 과장만은 아니다. 감독은 이 영화 이전에, 미국 뉴욕 지하철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열차 재난 영화 〈펠름 123〉을 만든 바 있다. 이참에 그것도 본다면 영화 속 열차와 함께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릴 수 있겠다. ☑





<철도로 보는 세계의 문화>

인류 역사는 철도 개통 이전과 이후로 나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많은 인원, 무거운 화물을 아무리 먼 거리라도 정한 시각에 한 번에 이동하는 일이 가능해지면서 경제·사회·문화가 완전히 달라졌다. 산업혁명을 이끌고, 지역을 서로 이어주고, 자긍심을 갖게 하고, 침략과 수탈의 수단이 되기도 한 철도의 역사를 영국·독일·미국·러시아·인도·한국 등 나라별로 나누어 들려준다. 아이 눈높이에 맞춘 친절한 글과 그림이 눈에 쏙쏙 들어온다. **백나영, 이은지** 지음 **지문, 김희정** 그림 **가교출판** 펴냄



<세상 어딘가에 하나쯤>

시인이자 시집 전문 서점 주인. 이 험한 세상이 아직 그나마 살 만한 온기를 유지하는 건 시를 쓰는 사람, 시집 전문 서점을 지키는 사람 덕분일지 모른다. 유희경 시인이 연 서점 'ワイト 앤 시니컬'이 다섯 살을 넘겼다. 5년 동안 서점을 하며 만난 사람, 서점의 소리와 조명·음악·책상·의자, 서점에서 치른 행사를 시인의 언어로 담았다. 시인의 글은 시라는 아름다운 세계와 일상의 경계를 넘나든다. 어딘가에 하나쯤 이런 서점이 있다는 사실이 고맙다. 서점에 가고 싶어진다. **유희경** 지음 **달** 펴냄



<대한민국 오지여행>

복적복적, 여행지 대신 인파를 구경하는 곳 말고 좀 다른 곳 없을까 궁리하는 때다. 여행 기자와 철도 여행 마스터 두 전문가가 뭉쳐 '나만 알기 미안한 최고의 언택트 여행지'를 골랐다. 한 명은 국내외 오지를 두루 다녔던 연합뉴스 기자, 또 한 명은 한국의 모든 기차역을 방문했을 만큼 기차와 기차 여행에 밝은 한국철도 직원. 이들이 '바로 쓴' 책답게 생생한 설명과 사진이 엉덩이 들썩이게 한다. 무료 캠핑장, 차박 명소 같은 꿀팁까지 알차게 정리했다. **성연재, 이은덕** 지음 **그리고책** 펴냄



<위대한 고독의 순간들>

서울 예술의전당 미술사 명강연으로 이름 높은 저자가 지난해 <인간다움의 순간들>에 이어 이번엔 <위대한 고독의 순간들>을 냈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에 활동한 화가 이야기다. 쿠르베, 모네, 반 고흐, 톨루즈로트레크는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익숙하다는 말이 잘 안다는 말은 아니다. 그들이 무엇을 표현하려 했는지, 왜 그렸는지, 화가의 내면부터 시대 배경을 아우르는 글의 내용이 대단하고 문장은 유려하다. 시리즈 세 번째 책을 기다린다. **이진숙** 지음 **돌베개** 펴냄

춘천커피도시페스타

일시 2021년 **9**월 **3**일 - **19**일 장소 **춘천시 일원** 5대 커피거리, 애니메이션박물관



온라인 춘천커피도시 메타버스 플랫폼 / www.cccf.co.kr
 춘천 5개 카페거리_호수길, 소양강댐, 구봉산, 거두되계길, 육림고개길(명동시내일원)

오프라인 애니타운 문화행사 / 춘천애니메이션박물관 일원, 행사기간 내 토,일(9.4.~19.)
 로봇커피 특별전, 커피문화체험, 춘천카페 명소 어반스케치전, 커피 생산국 대사관 풍물전 등



EXHIBIT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입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빅 브라더: 다시는 결코 혼자일 수 없음을 대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중앙정부의 통제가 몇몇 국가에서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통제 사회의 단면을 예술로 고찰했다. 이연숙·임용현·덩위핑·아시아 흑손·정말러 등 국내외 8명(팀)이 펼치는 비디오·홀로그램·사진 작품 10점엔 소수가 다수를 통제하고 다수가 소수를 감시하는 사회의 명암이 암시적으로 드러난다. 코로나19와 병존하는 오늘을 들여다보며 내일을 고민하도록 이끄는 전시다.

기간 11월 14일까지 문의 1899-5566(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19년 프랑스 파리 오리지널 전시 전경

<바다, 미지로의 탐험>

세계 최대 규모 자연사아카이브를 소장한 프랑스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심해 생물 콘텐츠를 한국에서 최초 공개한다. 파리에서 26만 명이 관람한 전시의 첫 해외 전시로, 프랑스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제작한 3D 해양 생물 표본과 심해 시청각 자료를 대거 선보인다. 이번 아니라 심해 탐험, 해양 생물 관찰 등 아날로그·디지털 체험 시설을 운영해 미지의 세상인 바닷속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한다. 기간 9월 25일~2022년 3월 6일 문의 02-2289-5443(서울 북서울꿈의숲 상상특목미술관)



<김영배>

1960년대부터 간결한 색상과 절제된 구도로 자신만의 회화 미학을 다져 온 거장 김영배의 60년 작업 궤적을 살핀다. 구상과 비구상, 추상과 초현실주의 화풍을 넘나드는 그는 한국 예술사에 굽적한 흔적을 남겼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등이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이번 개인전에서는 당대 주류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 나간 그의 작품 24점과 최근 작품 2점을 함께 감상한다.

기간 9월 26일까지 문의 02-753-6502(서울 일우스페이스)



<달: 일곱 개의 달이 뜨다>

우리에게 친숙한 달을 모티프로 한 조각, 설치, 도자, 미디어 작품 총 170여 점을 모았다. 인간과 예술이 달과 관계하는 양상을 탐구한 작업 중 김영원 작가의 인체 조형물 '중력 무중력'은 현실과 이상을 중력과 무중력으로 빚어 표현한다. 한호 작가는 키네틱 아트 '영원한 빛-천지창조'를 통해 우주로 진입하는 느낌을 선사한다. 이 외에도 안규철·연봉상·이강호·최단미·허강 작가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달을 해석한다.

기간 11월 28일까지 문의 055-340-7000(경남 김해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감사한 분들께
테라원 건강을 선물하세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
특별 강화 공정을 거쳐, 고단백 제품으로
마음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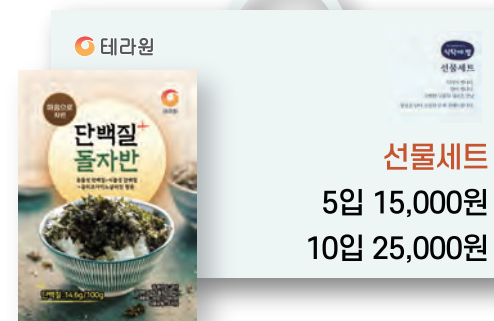
이번 추석선물은
테라원 선물세트로
최고의 명절 특가찬스!

단백질
한가득



1 동물성, 식물성
단백질을 한번에!

마음으로 차린
단백질+ 돌자반



선물세트
5입 15,000원
10입 25,000원

4 환과 파우더를
한번에!

프로틴파우더 200g + 환 5개
35,000원



2 영양가득 선식에
단백질을 듬뿍!

프로틴 파우더

200g*2통
선물세트
35,000원



3 경옥고 처방
+ 고농축 단백질

단백한 하루(환)

4.5g*15개
남/여 각 선물세트
70,000원



(G. bimaculatus추출 동물성 단백질)

주문전화 02-6959-4456 | 010-6348-8483

홈페이지 주문 <http://terraone.co.kr/>

o 홈페이지에서 더 다양한 세트상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카톡채널 테라원

테라원



SHOW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매각시>

'강원도 소재 시놉시스 공모전'에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시놉시스를 김래임 작가가 희곡화하고, 김혁수 예술감독이 연출했다. 연극은 1900년대 초반, 자취를 감춘 '관노가면극'을 복원하기 위해 강릉을 제 집처럼 드나드는 동권의 여정을 따라간다. 춤과 동작만으로 진행되는 한국 유일의 무언극인 관노가면극을 소재로 전통의 맥을 잇고자 노력하는 동권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낸다.

기간 9월 3일~4일 장소 강원도 춘천문화예술회관 문의 033-255-0496



<포 비올라>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는 현악사중주단 노부스 콰르텟, 아벨 파르렛의 전·현직 비올리스트 이승원, 김규현, 김세준, 문서현이 호흡을 맞춘다. 비올라 네 대 버전으로 편곡한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와 파르티타> 2번 중 '샤콘'으로 시작하는 프로그램은 녹스 '9개의 손가락', 보웬의 '비올라 네 대를 위한 판타지 Op.41' 등으로 이어진다. 비올라 네 대의 앙상블이 비올라의 모든 것을 알려 준다.

일시 9월 18일 오후 8시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문의 02-338-3816



<카포네 트릴로지>

2015년 초연부터 2016년 재연, 2018년 삼연까지 매 시즌 매진을 기록한 연극이 3년 만에 돌아왔다. 20세기 가장 악명 높은 마피아 알 카포네가 주름잡던 미국 시카고를 배경으로 렉싱턴 호텔 661호에서 10년 간격을 두고 발생한 세 가지 사건을 코미디 '로키', 서스펜스 스릴러 '루시퍼', 하드보일드 '빈디치'의 옴니버스 형태로 구성한다. 배우 세 명이 에피소드마다 다른 캐릭터로 분해 연연을 펼친다.

기간 9월 14일~11월 21일 장소 서울 두산아트센터 문의 1577-33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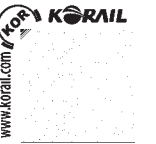
<하데스타운>

2019년 그래미 어워즈에서 최고 뮤지컬 앨범상, 토니 어워즈에서 8개 부문 상을 받은 뮤지컬이 전 세계 최초 라이선스 공연으로 한국 관객을 만난다. 끊임없이 사랑을 상기시키는 신화 속 이야기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로 재해석해 몰입도를 높인다. 하반기 기대작답게 라인업도 화려하다. 몽상가 오르페우스 역을 조형균·박강현·시우민이, 헤르메스 역을 최재림·강홍석이 연기한다.

기간 9월 7일~2022년 2월 27일 장소 서울 LG아트센터 문의 1577-3363

MOVIE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선의 삶>

제4회 문학동네 대학소설상 수상작인 임솔아 작가의 장편소설 <최선의 삶>을 스크린에 옮겼다. 2000년대 초반을 배경으로 누구나 과거에 거쳤거나 현재 거치고 있는 열여덟의 순간을 섬세하게 포착했다. 열여덟 살 강이에게는 친구 소영과 아람이 전부다. 모르는 곳으로 떠나고 싶던 강이는 친구들을 따라 집을 나서나 셋의 관계에 균열이 생긴다. 학창 시절 혼란스러워하던 우리 모두의 한때를 담았다. 9월 1일 개봉.

감독 이우정 출연 방민아, 심달기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이 되려 노력하는 교사 경석의 교실에서 도난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필 딸도 교통사고를 당한다. 학생 세익을 의심하지만 세익은 자신이 절대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지는 경석. 영화는 우리가 사실로 믿는 것이 진실인지, 정말 좋은 사람이란 무엇이고 그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날카롭게 묻는다. 짜임새 있는 드라마와 안정적인 연기로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CGV 아트하우스 상 등을 수상했다. 9월 9일 개봉.

감독 정욱 출연 김태훈, 이효제



<레미니센스>

영화 <엑스맨>의 울버린, 휴 잭맨이 4년 만의 복귀작으로 선택해 기대감을 높인다. 제목 '레미니센스(remembrance)'는 오래된 과거일수록 더욱 또렷이 기억나는 망각의 역현상을 뜻한다. 과학자 닉은 기억을 선택해 다시 체험할 수 있는 기억 탱크를 개발한다. 기억 탱크를 운영하다만 나 사랑에 빠진 메이가 어느 날 사라지고, 닉은 추적 끝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다. 미스터리와 로맨스를 조합한 스토리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8월 25일 개봉. 감독 리사 조이 출연 휴 잭맨, 레베카 퍼거슨



<아담>

임신한 사미아는 미혼모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모로코 문화 때문에 고향을 떠나 떠돈다. 남편과 사별한 후 딸 와르다를 홀로 키우는 아블라는 사람과의 만남이 두려워 사미아를 돕지 못하나 위험한 길가에서 밤을 지새우는 사미아가 신경 쓰여 잠시 함께 지내기를 허락한다. 그사이 싹트는 우정이 감동적이다. 감독의 경험담에서 출발한 영화로, 각자 상처를 품고 사는 사람들의 사연이 여성과 약자의 위치를 고찰하게 한다. 8월 25일 개봉. 감독 마리암 투자니 출연 루브나 아저발, 니스린 에라디

A Memorable Trip to Wonderful Wolchulsan

Article and photos by **Travis Saito** (Korea Travel Qrator, USA)



Korea has some of the most beautiful landscapes I have ever seen. I decided to challenge myself in search of the real beauty of Korea. Wolchulsan National Park located in Yeongam, Jeollanam-do Province is just the right place to experience this beauty. My adventure began with a visit to Wolchulsan National Park, one of the smaller national parks in Korea, followed by Mojeong Mural Village. The park offers peaceful camping spots and several hiking trails. As I ascend to the top of Cheonhwangbong Peak (809 meters), I was amazed to see a forest of bamboo trees. The view here was strikingly different compared to that of other national parks like Bukhansan. Next, I noticed a temple site called Cheonhwangsa Temple Site. I was impressed by the small, delicate temple and the mountainous ridges in the backdrop. The cool breeze blowing every now and then helped to keep me refreshed from the start. After a short rest, I continued my way

over to Gureumdari Bridge, meaning "cloud bridge." The view was really breathtaking. The bridge is about one-third of the way to the peak, and I was able to get a perfect view of the mountain range of Cheonhwangbong and the small town of Yeongam. Over rocky steps and multiple flights of stairs, I made it down to a viewpoint showing rocks known as "Six Brothers Rocks," which looks like a group of people or brothers talking to one another. The scene stayed in my mind as I returned to the start of the trail. The next day, after a relaxing night's sleep, my legs were well-rested for more walking at Mojeong Mural Village. The small village of Mojeong features many traditional paintings of Korea. Some showed festivals while others presented landscapes of forest and rivers. They reminded me again of the detailed, exquisite nature of the artistic village. From mountainous temples to traditional houses, the area of Yeongam is highly recommended for all nature lovers in Korea. ☑



Traveler's Room

Wolindang Wolindang offers a traditional *hanok* experience in the agricultural county of Yeongam, Jeollanam-do Province. Here, you can immerse yourself in the Korean way of life from centuries ago. The owner wanted to show me something outside. She pointed at a chimney where the smoke was escaping. Below the chimney was the *agungi*, or fireplace, for the central heating of the house. It was truly amazing how warm and quiet the *agungi* was. My stay at Wolindang was a pleasant experience for the night, as well as an opportunity to appreciate how innovative Korean culture is when it comes to architecture and everyday life. **061-471-7675 wolin.modoo.at**

* Korea Quality, certified by the Korea Tourism Organization, is a certified designation system that helps tourists select high-quality facilities and services.



Webzine Event

기간 2021년 8월 31일~9월 20일
경품 파나소닉 진공청소기 1명
 파나소닉 헤어드라이어 1명
 이디야 아메리카노 300명
 * 경품은 10월 웹진 오픈 후 일괄 발송됩니다.



다양한 소식과 푸짐한 이벤트를 만나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K-water 웹진을 만나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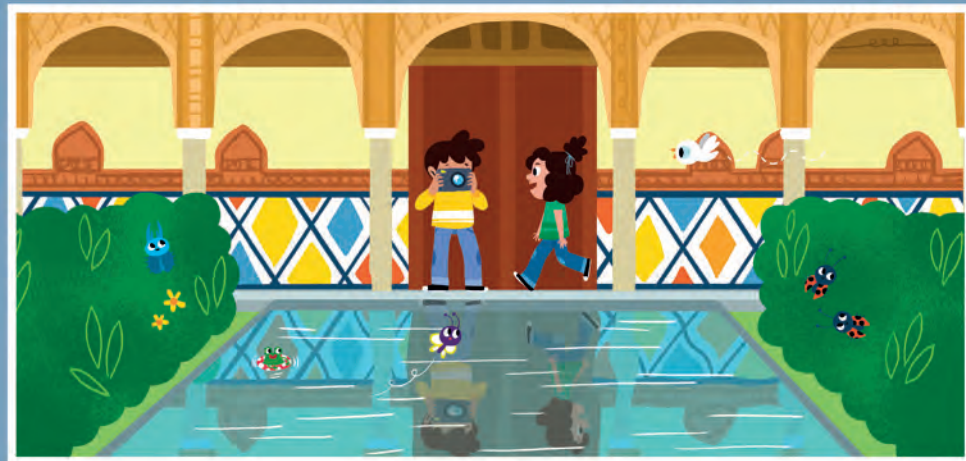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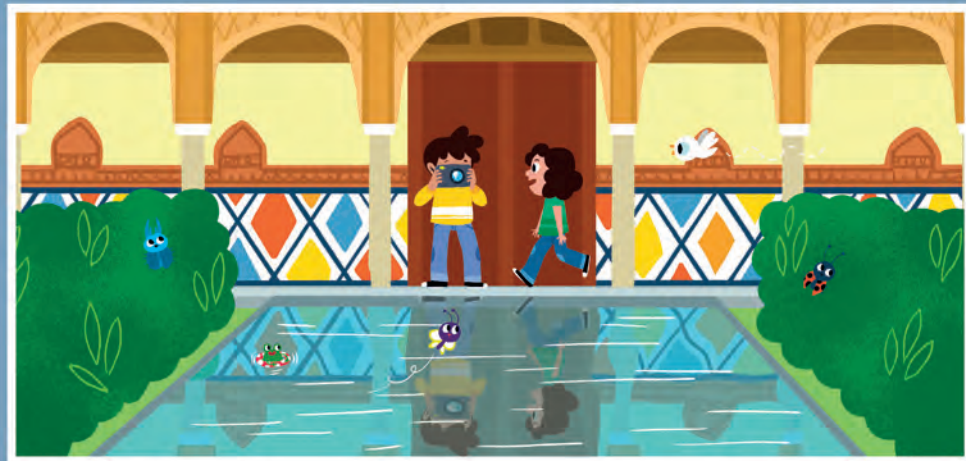
세계상에 행복을 가놓다, World Top K-water 물, 자연 그리고 사람

K-water 웹진 <물, 자연 그리고 사람>과 함께하는 즉석 당첨 이벤트!
 K-water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추가해도 OK!
 웹진 신규 구독 신청까지 완료하면 더욱 푸짐한 선물이 발송되는 즐거움을 두 배로 높여주는 K-water 웹진 이벤트, 함께해요!



알함브라 궁전

스페인 그라나다에 있는 아름다운 궁전이에요. 네모난 연못이 멋져요.



자료 합조. 한빛에듀

미션1 서로 다른 그림 10개를 찾아보세요.

미션2 두 그림 속 무당벌레는 모두 마리



INFORMATION

<똑똑한 두뇌 연습-세계 여행 다른 그림 찾기>

책으로 세계 여행지를 만난다. 공항에서 출발해 프랑스 파리 에펠탑, 그리스 산토리니, 스페인 그라나다의 알함브라 궁전, 슬로바키아 보이니체성, 몽골 초원을 여행한다. 때로는 여행자처럼, 때로는 탐험가처럼 세계를 유람하며 다른 그림을 찾아보자. 그곳에 사는 사람들 외에 건축물, 자연, 동물과 식물을 살펴보는 즐거움이 있다. 제니 에스피노사 지음 한빛에듀 펴냄



*정답: 무당벌레는 모두 3마리

용평리조트

가볍게 떠나는 글램핑 BBQ

언택트 여행이 인기인 요즘, 용평리조트가 장비를 챙기지 않고도 청정 자연 속에서 편하게 글램핑 BBQ를 즐기는 '용평 글램핑 파크'를 선보인다. 숙박이 아닌 당일 이용 상품으로, 4-5인용 텐트와 BBQ 그릴을 포함해 장비 걱정 없이 글램핑을 누린다. 배드민턴 라켓, 캐치볼 공 같은 다양한 운동기구를 대여해 줘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는 글램핑이 더욱 즐겁다. 맥주를 비롯한 각종 음료를 무제한 제공하는 것도 장점. 고기를 구워 먹으며 취향에 따라 마음껏 골라 마실 수 있다. 운영 시간은 1부(13시~16시)와 2부(17시 30분~21시)로 나뉜다. 기간은 10월 하순까지.

☎ 02-6925-3193 ypsshop.pscms.co.kr



롯데호텔 울산

다시 돌아온 '헬로 웨일(Hello Whale)'

아이와 함께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롯데호텔 울산의 '헬로 웨일(Hello Whale)' 패키지를 눈여겨보자. 객실 앞에서부터 고래 그림 객실 번호와 '언더 더 시(under the sea)'라는 문구가 기대감을 높인다. 내부는 고래 캐릭터 침대, 고래 일러스트 벽지 등으로 꾸며 수족관에 온 느낌을 자아낸다. 패키지에 포함된 입장권으로 고래문화마을을 방문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귀여운 조각상 등 볼거리가 가득해 아이와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좋다. 집에 돌아가서는 호텔이 선정한 고래 인형과 고래 가운으로 여행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다. 기간은 11월 30일까지.

☎ 052-960-1000 www.lottehotel.com/ulsan-hotel



휘닉스 평창

반려동물과 함께 만끽하는 핏캠프

사랑스러운 반려동물과 캠핑 나들이를 떠나고 싶다면 휘닉스 평창의 포레스트 핏캠핑을 추천한다. 잔디 광장이 널찍해 반려동물이 마음껏 뛰놀기 제격이다. 캠핑객에게 제공하는 장난감 등 반려동물 전용 키트도 놓칠 수 없다. 캠핑만 하기 아쉽다 느끼는 고객을 대상으로 '스카이로얄 워드 핏캠핑'도 마련했다. 포레스트 핏캠핑과 더불어 블루동 프리미엄 객실인 스카이로얄에서 1박을 하는 패키지다. 객실에 비치된 소형 편백 욕조 등 핏 용품을 이용해 반려동물과 오붓한 시간을 보낸다. '스카이로얄 워드 핏캠핑' 기간은 11월 30일까지.

☎ 1577-0069 www.phoenixhr.co.kr



<KTX매거진> 8월호를 보고 나서



영화로운 도시 영주 힐링 여행 표지의 영주 소수서원이 눈길을 사로잡네요. <안녕, 모란> 전시도요. 코로나19 때문에 여행을 가지 못해 아쉬웠는데 완전 꿀팁. 매거진이 데이터 코스를 만들어 줬어요! 황세연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새 발견, 인천 서구 핑크물리를 보러 드림파크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쓰레기 매립장의 변신! 남녀노소 편안하게 다닐 수 있어 인천을 대표할 관광지로 강력 추천해요. 아가지기 한 볼거리가 많아요. 박명숙 서울시 광진구 독성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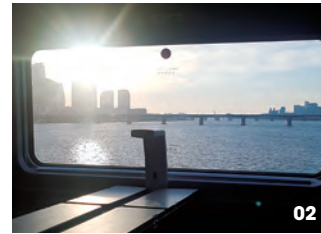
공주님, 모란으로 위로를 주시네 전시 사진이 기억에 강렬하게 남아 국립고궁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모란꽃처럼 가장 아름다운 삶의 순간에 안녕을 비는 마음이 송고해 보았습니다. 박샘이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기차로 여행하면서

01 푸른 바다가 보고 싶어 포항 칠포해수욕장을 다녀왔습니다. 바다를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 온갖 근심이 사라집니다. 바다 내음을 한껏 들이켜니 머리가 맑아집니다. 떠나고 싶을 때는 무작정 기차표를 예매해 보세요. 구시웅 대구시 수성구 청솔로



02 어머니가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을 하셔서 서울에 왔다가 공주로 내려가는 열차 안입니다. 한강철교를 지나며 사진을 찍어 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마음 놓고 여행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이선희 대전시 서구 관저로
03 사돈 될 분을 처음 만난 날입니다. 서울과 창원의 중간 지점에서 인사 나누고 아이들이 쥐여 준 선물과 함께 흐뭇하게 돌아갑니다. 인락한 기차처럼 마음도 편합니다^^ 김재숙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 01 기사를 읽은 소감과 여행 사진을 기다립니다.
- 02 독자 평과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추억이 담긴 사진을 보내주세요 (사진은 600KB 이상).
- 03 이메일 주소는 ktx@swadcom.co.kr입니다.
- 04 이름, 연락처, 주소를 꼭 기재해 주세요.
- 05 마감은 9월 15일입니다.

독자 편지에 선정된 분께는?

코웨이 뷰티 브랜드 리엔케이(Re:NK)의 '핑크 볼륨 래디언스 컬러 크림'을 선물로 드립니다. 피부 속부터 차오르는 핑크빛이 얼굴 아래 반사판을 댄 듯 화사함을 선사합니다. 뭉치지 않는 부드러운 발림성과 산뜻한 마무리가 특징인 크림은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 사용하세요. 얼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흡수시킨 다음 이마, 눈 아래와 콧등, 턱 중앙 등 입체감이 필요한 부분에 한 번 더 발라 줍니다.



제4회 철도사진공모전 수상작 '고향가는 길'

- 172 한국철도 소식
- 178 시간표
- 188 편의시설 및 부가서비스
- 190 열차이용안내
- 192 비상시 행동매뉴얼

KORAIL 한국철도
Information

한국철도 소식 KORAIL NEWS



한국철도, 코로나19 방역 더욱 철저히 강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앞장서 온 한국철도가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방역 활동을 강화했다. 우선 서울역 등 41개 역사의 열차 타는 곳에 체온 측정기와 손 소독 기계를 설치했다. 감염 예방 차원에서 모든 기계는 접촉 없이 이용한다. 아울러 각 역의 방역 통로에 1명 이상 안내 인력을 배치했다. 이들은 철도 이용객이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및 발열 측정 등의 안전 수칙을 지키도록 돕는다. 전국 철도역에 하루 2회 이상 방역을 시행 중이며, 열차는 운행 전후와 차량 기지에 입고될 때마다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취약 계층의 건강한 여름 나기를 위한 물품 지원

한국철도가 지난 8월 저소득층 가정에 도시락과 냉방 용품을 지원했다. 방학이면 끼니를 거를 때가 많은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3000만 원 상당의 도시락, 식품 키트 등을 400여 명에게 전달했으며 무더위에 취약한 저소득층 1600가구에 여름용 침구류, 선풍기 같은 용품을 제공했다. 총 1억 원 상당의 지원 물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통시장과 사회적 기업에서 구매했다. 이번 지원 활동은 한국철도 본사와 지역본부에서 지자체, 복지관 등과 연계해 전국 단위로 진행했다.



제12회 철도사진공모전 개최

한국철도가 9월 7일까지 '2021년 철도사진공모전'을 진행한다. 올해 12회를 맞은 공모전 주제는 '철도와 함께한 아름다운 순간'으로, 철도 소재 작품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직접 촬영한 사진 최대 3점을 출품할 수 있다.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한 차세대 친환경 고속열차 KTX-이음 개통을 기념해 수상작 중 2점은 KTX-이음 사진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한국철도는 "철도의 매력을 담은 사진으로 코로나 시대를 보내는 분들께 위안과 희망을 드리려 한다"라며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철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역·열차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꼭 지켜주세요!

위반시 최고 10만원 과태료 부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한국철도, '상반기 BEST 친절 사례' 격려 전 직원이 투표로 뽑아 선정

BEST 친절 사례 후보 11

1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을 세심하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행신역)
2	난처한 상황에 맞닥뜨린 장애인 고객과 가족에 대한 세심한 배려(분당선 수서역)
3	잃어버린 줄도 몰랐던 지갑을 승무원 덕분에 찾았습니다(동해열차승무사업소)
4	대전역 카트 대여 서비스 덕분에 여행이 즐거웠습니다(대전역)
5	적극적인 응대와 친절로 지연 열차 고객을 감동하게 하다(익산역)
6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 주신 직원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순천역)
7	긴급한 도움 요청에 멀리까지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동대구역)
8	다른 곳에서 발생한 불편사항임에도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신경주역)
9	제 생명의 은인, 코레일 감사합니다(부산고속열차승무사업소)
10	응급환자에 신속히 대처하는 모습에 감명받았습니다(부산고속열차승무사업소)
11	마스크 미착용 고객에 잘 대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부산경남본부 영업차)

2021년 상반기 한국철도 BEST 친절 사례 투표 결과(중복 투표)

1위 후보 2	유호준 역무원(43.1%)
2위 후보 9	윤종현 열차팀장(36.4%)
3위 후보 5	김경철 역무원(22.8%)
4위 후보 10	이충환 여객전무(20.4%)

한국철도가 직원 사기를 북돋고자 '상반기 BEST 친절 사례'의 주역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상반기에 제보된 고객의 소리를 모아 심사를 통해 11건의 우수 사례를 선정한 다음 전 직원 투표를 시행해 순위를 결정했다. 그 결과 화장실에서 곤란한 상황에 부딪친 장애인을 도운 분당선 수서역 유호준 역무원이 1위의 주인공이 되었다. 다음으로는 열차 내 응급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한 부산고속열차승무사업소 윤종현 열차팀장과 이충환 여객전무가 각각 2위와 4위를 차지했다. 3위에는 적극적인 안내를 시행해 무궁화호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친절 사례로 바꾼 익산역 김경철 역무원이 올랐다. 한국철도는 "칭찬은 접객 서비스를 하는 직원들에게 큰 힘이 된다"라며 "고객의 소리에 친절 사례를 많이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KTX 모든열차
#15~30% 할인

N카드 기업용

#전구간 이용형
#특정구간 이용형
#20인 이상 법인

기업 임직원 출장엔 빛수차감형 할인카드 N카드(기업용)

기업회원에 가입한 임직원을 위한 철도운임 할인과 다양한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는 한국철도만의 기업전용 프로그램입니다.

PC <https://biz.letskorail.com>
Mobile <https://mbiz.letskorail.com>

세계유산과 함께하는 힐링폴링 수원화성

한국철도 수원역 여행센터는 2021 세계유산축전과 발맞추어 수원문화재단의 야외 AR 방탈출게임 '수원화성의 비밀' 프로그램과 열차를 연계한 패키지 상품을 판매한다. 패키지 상품 구매 시 소정의 상품을 선착순 증정하고 할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기간은 12월 31일까지. 문의 031-243-7878 (한국철도 수원역 여행센터)



출처: 이규영

QR코드를 스캔하면 수원화성 축제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021 수원화성 미디어아트쇼 '만천명월: 정조의 꿈, 빛이 되다'

화서문을 배경 삼아 펼쳐지는 미디어아트쇼가 '만천명월'이라는 테마로 관광객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정조의 애민 정신과 수원화성에 담긴 문·무·예·법의 철학을 특수 조명, 입체 사운드 효과로 생동감 넘치게 전달한다. 주말에는 자연을 배경으로 한 실경 공연을 진행한다.

기간 9월 24일~10월 24일
장소 수원화성 화서문 외

2021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 '의궤가 살아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의궤'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관련 기록을 재현하고 재해석한 프로그램이다. 수원화성 축성 과정을 담은 <화성성역의궤>,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 행사를 정리한 <원행을묘정리의궤>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했다. 축전은 온라인에서도 감상할 수 있다.

기간 10월 2일~24일
장소 수원화성 일원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1795년, 정조대왕이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을 기념해 화성을 방문한 대규모 행차를 재현하는 화려한 행사다. 온라인으로 열려 아쉽지만, 신청자는 집에서 그간의 행렬 영상을 유튜브로 시청하며 '집콕 키트'를 배송받아 만드는 색다른 체험도 가능하다.

기간 10월 9일~10일
주소 www.swcf.or.kr/shcf

수원화성문화제

지난해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된 '수원화성문화제'를 랜선으로 만난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자는 주제로 기획한 축제는 50만 명이 찾는 한국 대표 문화제다. 온라인상에서 여는 올해는 축제의 명장면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선보인다.

기간 10월 8일~10일
주소 www.swcf.or.kr/shcf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달라지거나 온라인 비대면 행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객열차에서 금지행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출입 금지장소 (운전실, 기관실, 발전실, 방송실)에 출입하는 행위 금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음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금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여객열차 밖에 있는 사람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금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흡연하는 행위 금지!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금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금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여객열차에 동승하거나 휴대하는 행위 금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법정 감염병자가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 금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에게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 배부하거나 연설, 권유 등을 하여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금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열차 내에서의 금지행위를 지켜주세요.

교통약자 전용 수어 동영상



일반 동영상



교통약자 전용 수어 동영상

KTX/KTX-산천 경부선 하행 From Seoul to Bu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행신 幸信 Haengsin	서울 首爾 Seoul	광명 光明 Gwangmyeong	천안아산 天安牙山 Cheonan Asan	오송 五松 Osong	대전 大田 Daejeon	김천(구미) 金泉(龜尾) Gimcheon (Gumi)	동대구 東大邱 Dong daegu	신경주 新慶州 Sin gyeongju	울산 蔚山 Ulsan	부산 釜山 Busan	비고 備考 Remark
1		05:15	05:32			06:14		06:57	07:15	07:28	07:49	
161		05:20	05:37			06:19		07:02	07:35	08:01	08:14	월
3		05:30	05:47	06:09		06:34	06:58	07:23	07:41	07:54	08:15	
5		06:00	06:17	06:39		07:04		07:47		08:12	08:33	
81		06:05	06:22	06:44	06:57	07:14	07:38	08:02		08:27	08:48	금토일 KTX-산천
181		06:05	06:22	06:44	06:57	07:14	07:38	08:02		08:27	08:48	월화수목 KTX-산천
7	06:13	06:35	06:52			07:34	07:58	08:23	08:41	08:54	09:15	
9		07:00	07:17	07:39	07:52	08:09		08:52		09:17	09:38	
11	07:08	07:30	07:47		08:15	08:34	08:58	09:23			10:03	
13		07:52	08:09			08:49		09:32			10:12	
15		08:00	08:18			09:00	09:24	09:48	10:07	10:20	10:41	
121		08:14	영등포 08:24	수원 08:47		09:57		10:40			11:20	
17	08:30	09:00				09:52		10:35			11:15	
19		09:30	09:47		10:16	10:35	10:59	11:23	11:42	11:55	12:16	KTX-산천
101		09:45	10:02	10:25		10:50		11:33	밀양 12:06	구포 12:32	12:45	
21		10:00	10:17	10:39		11:04		11:47	12:06	12:19	12:40	
123		10:14	영등포 10:24	수원 10:48		11:59		12:42	13:00	13:13	13:34	
163		10:20		10:54	11:07	11:24		12:07	밀양 12:40	구포 13:06	13:19	금토일
23		10:30	10:47	11:09	11:22	11:39	12:03	12:27		12:52	13:13	
25		11:00	11:17	11:39		12:05		12:48	13:07	13:19	13:41	
171		11:33	영등포 11:43	수원 12:07		13:17	13:41	14:05			14:49	토일
27		12:00	12:17	12:39		13:05		13:48	14:07	14:19	14:41	
29		12:27	12:44	13:06		13:32		14:16		14:41	15:02	
31		13:00	13:17	13:39	13:52	14:09	14:33	15:01	15:19		15:47	KTX-산천
103		13:10	13:27	13:49		14:15	14:39	15:04	밀양 15:37	구포 16:03	16:16	
33		13:20	13:37	13:59	14:12	14:29		15:12		15:36	15:58	
83	13:30	13:52	14:09			14:51	15:15	15:39		16:04	16:25	금토일
183	13:30	13:52	14:09			14:51	15:15	15:39		16:04	16:25	월화수목
35		13:56	14:13	14:35	14:48	15:05		15:48	16:06		16:34	광명 임시정차
85	13:55	14:17	14:34			15:14		15:58			16:38	금토일
185	13:55	14:17	14:34			15:14		15:58			16:38	월화수목 KTX-산천
37		14:21	14:38		15:06	15:25		16:08			16:49	
39		14:30	14:47	15:09		15:34		16:18	16:37	16:50	17:11	KTX-산천
87		14:44	15:01	15:23	15:36	15:53		16:36	16:54		17:22	금토일
41	14:38	15:00	15:17	15:39	15:52	16:09		16:53		17:18	17:39	
89		15:25		16:00		16:23		17:06			17:46	금토일 KTX-산천
43		15:40	15:57		16:25	16:44		17:27		17:52	18:13	
45		16:00	16:17			16:57	17:21	17:45	18:04		18:32	
125		16:04	영등포 16:17	수원 16:41		17:51		18:34		18:59	19:20	
47		16:30		17:04		17:29		18:12		18:37	18:58	
49		17:00	17:18		17:46	18:05	18:29	18:54		19:19	19:40	
105	16:48	17:15	17:32			18:15		18:58	경산 19:09	밀양 19:36	구포 20:02	20:15
51		17:25	17:42	18:04		18:29	18:53	19:18	19:36	19:49	20:10	김천(구미) 임시정차
53		18:00		18:34		19:00	19:24	19:49		20:14	20:35	
55		18:15	18:32		19:00	19:19		20:02		20:27	20:48	
57	18:08	18:30		19:05	19:17	19:34		20:17	20:36	20:48	21:10	
107		18:43	19:00	19:22	19:35	19:52	20:16	20:40	밀양 21:13	구포 21:39	21:52	
127		18:55	영등포 19:08	수원 19:33		20:44		21:27	21:45		22:13	
59		19:00	19:17	19:39	19:52	20:09		20:52		21:17	21:38	
91		19:22	19:39			20:19		21:03		21:28	21:49	금토일
61		19:37			20:17	20:34	20:58	21:23		21:48	22:09	
165		19:46	20:03	20:25		20:49		21:32	밀양 22:05	구포 22:31	22:44	금토
173		19:50	영등포 20:00	수원 20:23		21:33		22:16	22:34		23:02	금토일
93		19:56	20:13	20:35		20:58		21:41	22:00		22:28	금토일
63	19:38	20:00	20:17	20:39	20:52	21:09		21:51		22:16	22:37	
95		20:15	20:32	20:55		21:18		22:01			22:41	금토일
65		20:30				21:22		22:05			22:45	
109		20:50	21:07	21:29		21:54		22:39	밀양 23:12	구포 23:38	23:51	
67		21:00	21:16	21:39		22:04	22:28	22:53		23:18	23:39	
69		21:30	21:47		22:16	22:35	22:59	23:24	23:42	23:55	00:16	김천(구미) 임시정차
111		21:35	21:52	22:14	22:27	22:44		23:27	밀양 00:00	구포 00:26	00:39	
71		22:00	22:17	22:39		23:04		23:47		00:12	00:33	
73		22:30	22:47	23:09		23:34		00:17		00:42	01:03	
97		22:51	23:08			23:48		00:31			01:11	금토일
117		23:00	23:17	23:39	23:52	00:09	00:33	00:56				
119		23:30	23:47	00:09	00:22	00:37						

KTX/KTX-산천 경부선 상행 From Busan to Seoul

(2021년 9월 기준)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부산 釜山 Busan	울산 蔚山 Ulsan	신경주 新慶州 Sin gyeongju	동대구 東大邱 Dong daegu	김천(구미) 金泉(龜尾) Gimcheon (Gumi)	대전 大田 Daejeon	오송 五松 Osong	천안아산 天安牙山 Cheonan Asan	광명 光明 Gwangmyeong	서울 首爾 Seoul	행신 幸信 Haengsin	비고 備考 Remark
116						05:55	06:12	06:25	06:51	07:07		
82	04:45	05:08	05:20	05:38		06:20		06:44	07:10	07:26		월
118						06:34	06:52	07:05	07:30	07:46		화수목금토일
166	04:39	구포 04:53	밀양 05:19	05:52		06:34	06:52	07:05	07:30	07:46		월
2	05:10	05:33		05:58	06:21	06:45		07:09	07:35	07:51		
4	05:20		05:48	06:07		06:49	07:07		07:39	07:55		
6	05:40	06:03		06:28		07:10	07:27	07:40	08:06	08:22		
120				06:42	07:05	07:29	07:47	08:00	08:25	08:41		
8	06:10	06:33	06:45	07:03	07:26	07:51	08:08	08:21	08:47	09:03		
84	06:30	06:53	07:05	07:24		08:06	08:24			09:07		금토일
170	06:42		07:10	07:30		08:14		수원 09:25	영등포 09:47	09:56		토일
102	06:16	구포 06:30	밀양 06:56	경산 07:22	07:56	08:20	08:38	08:51	09:16	09:32		
10	07:00	07:23		07:48	08:11	08:35	08:53		09:25	09:41		
12	07:30	07:53	08:05	08:23		09:06		09:31	09:56	10:12		
86	07:50	08:13		08:38	09:01	09:25	09:43	09:56	10:22	10:38		금토일
14	08:10	08:33		08:58	09:21	09:46		10:10		10:46		
122	08:20	08:43		09:08		09:51		수원 11:01	영등포 11:23	11:32		
104	08:15	구포 08:29	밀양 08:55	09:28		10:10	10:28		11:01	11:17		
16	08:40	09:03	09:15	09:33		10:16	10:33		11:06	11:27	11:44	
18	08:50	09:13		09:38	10:01	10:26		11:10		11:26		
20	09:06	09:29		09:54		10:36	10:53	11:06	11:31	11:47		
22	09:36			10:17		10:58				11:51		
88	09:44	10:07		10:32		11:14			11:57	12:13		금토일
188	09:44	10:07		10:32		11:14			11:57	12:13		월화수목 KTX-산천
24	10:03			10:44		11:26		11:50	12:15	12:31		
26	10:20	10:43	10:55	11:13		11:55	12:13		12:46	13:02		
162	10:06	구포 10:20	밀양 10:46	11:22	11:45	12:10			12:53	13:09		금토일 KTX-산천
28	11:00	11:23		11:48	12:11	12:37	12:54		13:27	13:43		
30	12:00	12:23		12:49	13:12	13:37	13:55	14:08	14:33	14:49		
32	12:30	12:53	13:05	13:23		14:06	14:23		14:56	15:12		
34	13:10	13:33		13:58		14:40	14:57	15:10		15:46		
124	13:25			14:06		14:48		수원 15:58	영등포 16:20	16:29		
90	13:30			14:11		14:53	15:10	15:23	15:49	16:05		금토
106	13:29	구포 13:43	밀양 14:09	14:45		15:27	15:45	15:58	16:23	16:39		KTX-산천
36	14:00	14:23		14:48	15:11	15:36	15:53	16:07		16:48	17:05	
38	14:20		14:48	15:07		15:49	16:07			16:50		
40	14:30	14:53	15:05	15:24	15:47	16:12			16:55	17:23	17:43	
42	15:10			15:51		16:32				17:25		
92	15:20			16:01		16:43			17:26	17:42		금토일
172	15:25			16:06		16:48		수원 17:58	영등포 18:20	18:29		금토일
44	15:45	16:08		16:33		17:15		17:39	18:04	18:20		
108	15:35	구포 15:49										

KTX/KTX-산천 경전선 하행 From Seoul to Masan-Jinju

열차번호 列車番號	행신 幸信	서울 首爾	광명 光明	천안아산 天安牙山	오송 五松	대전 大田	김천(구미) 金泉(龜尾)	동대구 東大邱	밀양 密陽	진영 進永	창원중앙 昌原中央	창원 昌原	마산 馬山	진주 晉州	비고 備考
Train NO.	Haengsin	Seoul	Gwangmyeong	Cheonan-Asan	Osong	Daejeon	Gimcheon(Gumi)	Dongdaegu	Miryang	Jinyeong	Changwonjungang	Changwon	Masan	Jinju	Remark
201		05:05	05:22			06:04		06:50	07:23	07:41	07:53	08:02	08:09	08:33	KTX-산천
203		05:40	05:57	06:19	06:32	06:49		07:35 경산 07:46	08:13		08:39		08:51	09:15	KTX-산천
281		06:05	06:22	06:44	06:57	07:14	07:38	08:05	08:38	08:57		09:13	09:20	09:44	금토일 KTX-산천
205		08:25	08:42	09:10	09:29			10:12	10:45		11:11		11:23	11:47	
207		09:06	09:23	09:45		10:10	10:34	10:59	11:32	11:50		12:07	12:12		
285		09:30	09:47		10:16	10:35	10:59	11:26			12:22		12:34	12:58	금토일 KTX-산천
209		10:05	10:22	10:44		11:09	11:33	11:58	12:31		12:57		13:09	13:33	
211	12:28	12:50	13:07		13:36	13:55		14:38		15:26	15:37	15:46	15:51		
213		13:40		14:14		14:39		15:22	15:55		16:21		16:33	16:57	
287		14:30	14:47	15:09		15:34		16:21	16:54	17:12	17:24		17:34		금토일 KTX-산천
283		15:11	15:28		15:56	16:15		17:01	17:34		18:00	18:09	18:16	18:40	금토일 KTX-산천
215		16:20	16:37		17:05	17:24		18:10	18:43	19:02	19:14		19:24		KTX-산천
217		17:35	17:52		18:20	18:39	19:03	19:31			20:32	20:37			KTX-산천
219	17:36	18:05	18:22	18:45		19:10	19:34	19:59	20:32		20:58		21:08		김천(구미) 임시정차
221		20:40	20:57	21:19	21:32	21:49		22:35		23:24	23:35	23:44	23:51	00:15	KTX-산천
223		22:10	22:27			23:09	23:33	23:57	00:30			01:02	01:07		KTX-산천

KTX/KTX-산천 경전선 상행 From Jinju-Masan to Seoul

(2021년 9월 기준)

열차번호 列車番號	진주 晉州	마산 馬山	창원 昌原	창원중앙 昌原中央	진영 進永	밀양 密陽	동대구 東大邱	김천(구미) 金泉(龜尾)	대전 大田	오송 五松	천안아산 天安牙山	광명 光明	서울 首爾	행신 幸信	비고 備考
Train NO.	Jinju	Masan	Changwon	Changwonjungang	Jinyeong	Miryang	Dongdaegu	Gimcheon(Gumi)	Daejeon	Osong	Cheonan-Asan	Gwangmyeong	Seoul	Haengsin	Remark
202		05:00	05:06	05:14	05:25	05:42	06:18		07:00			07:42	07:59		KTX-산천
204	06:16	06:41	06:47		07:03	07:20	07:57	08:20	08:44	09:02		09:34	09:50		KTX-산천
206	08:58	09:24		09:36	09:47	10:04	10:40		11:22			12:07	12:28	12:45	KTX-산천
208	10:06	10:32	10:38	10:46		11:11	11:45		12:28		12:53	13:18	13:34		KTX-산천
282	11:24	11:50		12:02	12:26	13:00	13:23	13:47	14:12	14:37	14:53				금토일 KTX-산천
210		12:40		12:52	13:16	13:51		14:33			14:57		15:22	15:38	
212	12:52	13:18	13:24	13:32	13:43		14:30	14:53	15:17	15:35		16:07	16:35	16:55	
214	14:34	15:00		15:12		15:36	16:10		16:52			17:35	17:51		
284	15:25	15:51		16:03	16:27	17:04	17:27	17:51	18:09			18:41	18:57		금토일 KTX-산천
216		16:50	16:56	17:04	17:15		18:02	18:25	18:49		19:13	19:39	19:55		
218	17:45	18:11		18:23	18:47	19:21		20:03			20:46	21:02			
286	18:21		18:33	18:43	19:00	19:37	20:00	20:24	20:42		21:14	21:30			금토일 KTX-산천
220		20:00	20:06		20:22	20:39	21:12	21:35	22:01	22:19		22:51	23:07		KTX-산천
288	20:05	20:31		20:43	21:07	21:41	22:04	22:28	22:46	22:59		23:35			금토일 KTX-산천
222		21:08		21:20		22:17		22:59		23:23	23:48	00:09	00:26		KTX-산천
224		21:43	21:49			22:19	22:52		23:34		00:18	00:34			

KTX/KTX-산천 동해선 하행 From Seoul to Pohang

열차번호 列車番號	행신 幸信	서울 首爾	광명 光明	천안아산 天安牙山	오송 五松	대전 大田	김천(구미) 金泉(龜尾)	동대구 東大邱	포항 浦項	비고 備考
Train NO.	Haengsin	Seoul	Gwangmyeong	Cheonan-Asan	Osong	Daejeon	Gimcheon(Gumi)	Dongdaegu	Pohang	Remark
297		05:05	05:22			06:04		06:47	07:22	금토일 KTX-산천
231		05:40	05:57	06:19	06:32	06:49		07:32	08:07	KTX-산천
233		06:45	07:02	07:25		07:50		08:33	09:08	
235	07:48	08:10	08:28	08:51	09:03	09:20		10:04	10:39	KTX-산천
237		09:25	09:42		10:10	10:29		11:13	11:48	월화수목 KTX-산천
291		09:25	09:42		10:10	10:29		11:13	11:48	금토일 KTX-산천
239	10:23	10:45	11:02	11:24	11:37	11:54		12:37	13:12	KTX-산천
243		12:41			13:22	13:39		14:22	14:57	
241		13:00	13:17	13:39	13:52	14:09	14:33	14:57	15:33	KTX-산천
245	14:13	14:35	14:52	15:14		15:39	16:03	16:28	17:03	
293		15:11	15:28		15:56	16:15		16:59	17:34	금토일 KTX-산천
295		15:11	15:28		15:56	16:15		16:59	17:34	월화수목 KTX-산천
247		16:20	16:37		17:05	17:24		18:07	18:43	KTX-산천
249		17:35	17:52		18:20	18:39	19:03	19:28	20:03	KTX-산천
251		20:40	20:57	21:19	21:32	21:49		22:32	23:07	KTX-산천
253		22:20	22:37		23:05	23:24		00:08	00:43	KTX-산천

KTX/KTX-산천 동해선 상행 From Pohang to Seoul

열차번호 列車番號	포항 浦項	동대구 東大邱	김천(구미) 金泉(龜尾)	대전 大田	오송 五松	천안아산 天安牙山	광명 光明	서울 首爾	행신 幸信	비고 備考
Train NO.	Pohang	Dongdaegu	Gimcheon(Gumi)	Daejeon	Osong	Cheonan-Asan	Gwangmyeong	Seoul	Haengsin	Remark
232	05:37	06:18		07:00			07:42	07:59		KTX-산천
234	07:15	07:57	08:20	08:44	09:02		09:34	09:50		KTX-산천
236	09:59	10:40		11:22			12:07	12:28	12:45	KTX-산천
238	10:15	10:52		11:34	11:51	12:04	12:30	12:46		
298	10:41	11:22	11:45	12:10			12:53	13:09		금토일 KTX-산천
240	11:04	11:45		12:28		12:53	13:18	13:34		KTX-산천
242	12:37	13:14	13:37	14:02	14:19			15:03		월화수목 KTX-산천
292	12:37	13:14	13:37	14:02	14:19			15:03		금토일 KTX-산천
244	14:04	14:45		15:27	15:45	15:58	16:23	16:39		KTX-산천
246	15:37	16:14		16:56			17:39	17:55		
248	16:23	17:04	17:27	17:51	18:09		18:41	18:57		KTX-산천
250	18:00	18:37		19:19	19:36	19:49	20:15	20:31		
294	18:56	19:37	20:00	20:24	20:42		21:14	21:30		금토일 KTX-산천
296	19:00	19:37	20:00	20:24	20:42		21:14	21:30		월화수목 KTX-산천
252	19:22	20:03		20:45	21:02	21:15	21:41	21:57		KTX-산천
254	21:36	22:17		22:59		23:23	23:48	00:09	00:26	KTX-산천

KTX-이음 강릉선 하행 From Seoul to Gangneung-Donghae

열차번호 列車番號	서울 首爾	청량리 淸凉里	상봉 上鳳	양평 楊平	만종 萬鍾	횡성 橫城	둔내 屯內	평창 平昌	진부(오대산) 珍富(五臺山)	강릉 江陵	목호 墨湖	동해 東海	비고 備考
Train NO.	Seoul	Cheongnyangri	Sangbong	Yangpyeong	Manjong	Hoengseong	Dunnae	Pyeongchang	Jinbu(Odaesan)	Gangneung	Mukho	Donghae	Remark
801	05:11	05:32	05:38		06:23			06:45		07:08			
803	06:01	06:22		06:49	07:12		07:28	07:38	07:48	08:05			
841	07:01	07:22	07:28	07:51	08:14	08:22		08:38	08:47	정동진 09:14	09:35	09:42	
851		07:50	07:56		08:39			09:00	09:09	09:26			토일
805	08:01	08:22		08:48	09:11	09:20	09:29	09:40		10:01			
853		08:45	08:51		09:34	09:43	09:53		10:08	10:25			토일
807	09:01	09:22	09:29		서원주 10:19	10:21		10:40		10:57			
881		09:45		10:11	서원주 10:30			10:55		정동진 11:27	11:48	11:55	금토일
809	10:01	10:22		10:48	11:11		11:26	11:37		11:58			
843	11:01	11:22	11:28	11:50	서원주 12:10	12:21		12:41		정동진 13:10	13:31	13:38	
855		12:05			12:53					13:30			금토일
883		13:00	13:06		13:49		14:04			정동진 14:45	15:06	15:13	금토일
811	13:01	13:22	13:28		14:11	14:20		14:36	14:45	15:02			
813	13:31	13:52		14:18	14:41		14:56			15:23			
815	14:01	14:22		14:48	서원주 15:07	15:19		15:34		15:56			
857		15:10		15:37	16:00					16:37			금토일
845	15:01	15:22	15:28		16:11	16:20	16:30		16:45	정동진 17:12	17:33	17:40	
859		15:50			16:37					17:14			금토일
817	16:01	16:25		16:51	17:14	17:23		17:38	17:47	18:04			
861		18:13	18:19		서원주 18:58			19:26		19:43			금토일
819	18:01	18:22		18:48	19:11	19:19	19:29	19:39	19:47	20:04			
847	18:31	18:52	18:58		19:41	19:56	20:06			정동진 20:38	20:59	21:06	
821	19:01	19:22	19:28	19:51	20:14	20:23	20:34	20:44		21:06			
863		19:55		20:22	20:45		21:09			21:26			금토일
885		20:15			21:								

KTX/KTX-산천 호남선 하행 From Yongsan to Gwangju-Mokpo

열차번호 列車番號	행신 幸信	서울 首爾	용산 龍山	광명 光明	천안아산 天安牙山	오송 五松	서대전 西大田	익산 益山	정읍 井邑	광주송정 光州松汀	나주 羅州	목포 木浦	비고 備考
Train NO.	Haengsin	Seoul	Yongsan	Gwangmyeong	Cheonan Asan	Osong	Seodaejeon	Iksan	Jeongeup	Gwangju songjeong	Naju	Mokpo	Remark
401			05:10	05:25		05:55		06:23	06:39	06:58		07:29	KTX-산천
403			05:50	06:05	06:28	06:40		07:08	07:24	07:43	07:55	08:21	KTX-산천
471			06:12	06:27	06:50	07:02	07:21 계통 07:37	논산 07:55 08:18					KTX-산천
405	06:02	06:24	06:31	06:47		07:16 공주 07:33		07:51	08:07	08:26	08:36	09:01	
473		06:49	06:56	07:11	07:34	07:46	08:03						
491			07:40	07:55		공주 08:37		08:55		09:22			금토일
407	07:20	07:42	07:49	08:04		공주 08:46		09:04	09:20	09:39	09:49	10:14	KTX-산천
409			08:22	08:37	08:55	09:07		09:35	09:51	10:11	10:21	10:46	
411			09:22	09:37				10:30		10:57			
475			09:36	09:52	10:14	10:27	10:46 계통 11:01	논산 11:19 11:45	김제 11:57 12:13	장성 12:31 12:45	12:57	13:23	KTX-산천
477			10:10	10:26	10:48	11:01	11:22 계통 11:38	논산 11:56 12:21					KTX-산천
413		10:34	10:41		11:14	11:26		11:54	12:10	12:29	12:39	13:04	
415			12:20	12:35	12:58	공주 13:22		13:40	14:09	14:19	14:44		KTX-산천
417	12:18	12:40	12:47			13:27		13:55	14:11	14:30			KTX-산천
419	13:05		13:32	13:47	14:10			14:45	15:01	15:21	15:31	15:56	KTX-산천
421			14:50	15:05	15:28	15:40 공주 15:57		16:15	16:31	16:50		17:21	
423			15:36	15:51		16:21	16:37	16:55	17:11	17:30	17:40	18:05	
425			16:10					17:13		17:40			
427		16:38	16:45	17:00	17:23	공주 17:47		18:05	18:21	18:40	18:50	19:15	KTX-산천
481			17:12	17:28			18:11 계통 18:27	논산 18:45 19:10	김제 19:22 19:37	장성 19:56 20:10	20:22	20:48	
429		17:38	17:45			18:25		18:53		19:22	19:32	19:57	KTX-산천
483			17:50		18:23	18:48							
431			18:35	18:50	19:13	공주 19:37		19:55	20:11	20:29			
433		19:36	19:43	19:58		20:28 공주 20:44		21:02	21:18	21:37	21:47	22:12	
435			20:35	20:51	21:13	21:26		21:54	22:10	22:29	22:39	23:04	KTX-산천
485			21:11	21:27	21:49		22:16 계통 22:31	논산 22:49 23:13					KTX-산천
437			21:21	21:36		공주 22:18		22:36		23:03			
439	21:59		22:25	22:41	23:03	23:16		23:44	00:00	00:19	00:29	00:54	

KTX/KTX-산천 전라선 하행 From Yongsan to Yeosu-Expo

열차번호 列車番號	행신 幸信	서울 首爾	용산 龍山	광명 光明	천안아산 天安牙山	오송 五松	공주 公州	서대전 西大田	익산 益山	전주 全州	남원 南原	곡성 谷城	구례구 求禮口	순천 順天	여천 麗川	여수엑스포 麗水엑스포	비고 備考
Train NO.	Haengsin	Seoul	Yongsan	Gwangmyeong	Cheonan Asan	Osong	Gongju	Seodaejeon	Iksan	Jeonju	Namwon	Gokseong	Guryegu	Sunchon	Yeocheon	Yeosu-Expo	Remark
501			05:10	05:25		05:55			06:26	06:42	07:09			07:41	07:55	08:03	KTX-산천
503	06:43	07:05	07:12	07:27	07:50	08:02	08:19		08:37	08:54	09:21		09:39	09:55	10:09	10:17	
581			07:45	08:00				08:44 계통 09:00	논산 09:18 09:42	09:59	10:26	10:36		11:00		11:19	
505			08:40	08:55		09:25	09:41		09:59	10:16	10:43	10:53	11:05	11:21	11:35	11:43	
507	09:26	09:48	09:55	10:11	10:34	10:46	11:03		11:23	11:40	12:07	12:17		12:41	12:55	13:03	KTX-산천
509			10:55	11:10	11:33	11:46	12:02		12:20	12:37	13:04		13:23	13:39	13:53	14:01	
587			12:15	12:30	12:53			13:19 계통 13:34	논산 13:51 14:16	14:32							KTX-산천
511			12:20	12:35	12:58		13:22		13:43	14:00	14:27	14:37		15:01		15:20	KTX-산천
543	12:18	12:40	12:47			13:27			13:58	14:14	14:41			15:12	15:26	15:34	토일 KTX-산천
589			13:16	13:32	13:54			14:20 계통 14:35	논산 14:53 15:18	15:34							금토일
513			14:12	14:28		14:57	15:14		15:31	15:48	16:15			16:47	17:01	17:09	
583			14:40	14:56	15:18	15:31		15:49 계통 16:05	논산 16:23 16:51	17:07	17:34		17:53	18:08	18:22	18:30	KTX-산천
515		16:38	16:45	17:00	17:23		17:47		18:10	18:27	18:54	19:04	19:15	19:31	19:45	19:53	KTX-산천
517		17:38	17:45			18:25			18:57	19:15	19:42		20:15	20:29	20:37		KTX-산천
519	18:23		18:50	19:05	19:28		19:52		20:10	20:26	20:53		21:12	21:28	21:42	21:50	KTX-산천
521			20:05	20:21	20:43				21:19	21:35	22:02	22:12		22:36	22:50	22:58	
541			20:35	20:51	21:13	21:26			21:57	22:13	22:40		23:12	23:26	23:34		금토 KTX-산천
523			21:50	22:05					22:57	23:14	23:41			00:12	00:26	00:34	KTX-산천

KTX-이음 중앙선 하행 From Cheongnyangni to Andong

열차번호 列車番號	청량리 淸涼里	양평 楊平	서원주 西原州	원주 原州	제천 堤川	단양 丹陽	흥기 興基	영주 榮州	안동 安東	비고 備考
Train NO.	Cheongnyangni	Yangpyeong	Seowonju	Wonju	Jecheon	Danyang	Punggi	Yeongju	Andong	Remark
701	06:00	06:26		06:49	07:06	07:21		07:42	08:02	
781	08:10			08:57	09:14	09:29	09:42	09:54	10:14	토일
703	09:00			09:47	10:04	10:18	10:32	10:43	11:03	
705	11:00	11:26	11:45		11:52	12:09		12:42	13:02	
707	14:00			14:47	15:05	15:19	15:33	15:44	16:04	
709	16:00		16:43		16:50	17:07	17:22	17:44	18:04	
711	19:00			19:48	20:05	20:19	20:33	20:44	21:04	
713	22:00	22:27		22:50	23:07			23:40	00:00	

KTX/KTX-산천 호남선 상행 From Gwangju-Mokpo to Yongsan

(2021년 9월 기준)

열차번호 列車番號	목포 木浦	나주 羅州	광주송정 光州松汀	정읍 井邑	익산 益山	서대전 西大田	오송 五松	천안아산 天安牙山	광명 光明	용산 龍山	서울 首爾	행신 幸信	비고 備考
Train NO.	Mokpo	Naju	Gwangju songjeong	Jeongeup	Iksan	Seodaejeon	Osong	Cheonan Asan	Gwangmyeong	Yongsan	Seoul	Haengsin	Remark
402			05:41	05:59	06:16		06:45	06:59	07:25	07:39			
404	05:25	05:52	06:02	06:21	06:40		공주 06:58 07:17		07:51	08:07	08:24	08:41	KTX-산천
474					06:25 논산 06:50	계통 07:08 07:24		07:49	08:15	08:33		08:55	KTX-산천
472	05:33	06:00	06:10 장성 06:25	06:43 김제 06:58	07:12 논산 07:36	계통 07:54 08:10	08:29	08:42	09:08	09:24	09:29		
406	07:07	07:34	07:44	08:03	08:20		공주 08:38 08:56		09:30	09:44			
408	08:20	08:47	08:57	09:16	09:35		10:04	10:18	10:44	11:03		11:25	KTX-산천
476					09:05 논산 09:30	계통 09:48 10:04	10:23			11:05			KTX-산천
410	09:15	09:42	09:52		10:24				11:20	11:34			KTX-산천
412	10:03		10:37		11:06			12:02	12:21	12:26			
492			11:10		11:39		12:07		12:41	12:55			금토일
414			11:25	11:43	12:00		공주 12:18	12:44	13:23	13:28			
416	11:05	11:32	11:42		12:14		12:43	12:57	13:23	13:37			KTX-산천
478					13:10 논산 13:35	계통 13:53 14:09	14:29		15:03	15:17			KTX-산천
418	12:55	13:22	13:32	13:51	14:08		14:36		15:10	15:28	15:33		
420	13:53	14:20	14:30	14:49	15:06		공주 15:24 15:42		16:16	16:30			
422	14:29	14:56	15:07	15:25	15:45		공주 16:03		16:48	17:09	17:14		KTX-산천
424	15:57	16:24	16:34	16:53	17:13		공주 17:31	17:56	18:40		19:02		KTX-산천
426	17:03	17:30	17:40	17:59	18:18			18:54	19:20	19:34			KTX-산천
428			18:23		18:52				19:20	19:54	20:10	20:15	
484							19:26		19:59	20:15	20:25	20:42	KTX-산천
482	16:53		17:26 장성 17:40	17:58 김제 18:14	18:30 논산 18:55	계통 19:13 19:29	19:48	20:01	20:27	20:41			KTX-산천
430	18:02	18:29	18:39	18:58	19:15		공주 19:33 19:51	20:05	20:31	20:45			
432	18:52	19:19	19:29	19:48	20:05				21:01	21:15			
486						20:39	20:58	21:11	21:37	21:51			
434	19:52	20:19	20:29	20:48	21:08		공주 21:26 21:44		22:18	22:34	22:44	23:01	KTX-산천
436			21:00		21:29		공주 21:47	22:12	22:38	22:52			
438	20:55		21:28	21:47	22:06		22:35	22:49	23:33		23:55		KTX-산천
440	21:57	22:24	22:34		23:03				23:59	00:13			

KTX/KTX-산천 전라선 상행 From Yeosu-Expo to Yong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여수엑스포 麗水엑스포	여천 麗川	순천 順天	구례구 求禮口	곡성 谷城	남원 南原	전주 全州	익산 益山	서대전 西大田	공주 公州	오송 五松	천안아산 天安牙山	광명 光明	용산 龍山	서울 首爾	행신 幸信	비고 備考
Train NO.	Yeosu-Expo	Yeocheon	Sunchon	Guryegu	Gokseong	Namwon	Jeonju	Iksan	Seod								

ITX-새마을 경부선 하행 From Seoul to Bu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서울 Seoul	영등포 永登浦 Yeongdeungpo	수원 水原 Suwon	평택 平澤 Pyeongtaek	천안 天安 Cheonan	조치원 鳥致院 Jochiwon	대전 大田 Daejeon	영동 永東 Yeongdong	김천 金泉 Gimcheon	구미 龜尾 Gumi	대구 大邱 Daegu	동대구 東大邱 Dongdaegu	청도 淸道 Cheongdo	밀양 密陽 Miryang	구포 龜浦 Gupo	부산 釜山 Busan	비고 備考 Remark
1001	06:16	06:25	06:46		07:15		07:57	08:25	08:51	09:07	09:36	09:42	10:03	10:16 물금 10:34	10:43	10:55	
1021	07:04	07:13	07:34	07:53	08:06	08:27	08:51		09:42	09:58	10:27	10:33	경산 10:42	11:07	11:31 부전 11:48	신해운대 12:01	
1003	09:15	09:24	09:45		10:14	10:35	10:59	11:27	11:53	12:09	12:38	12:45	13:06	13:19	15:04 물금 15:22	15:31	15:43
1005	11:04	11:13	11:34	11:53	12:06		12:48		13:39	13:55	14:24	14:30	경산 14:39	15:49 물금 16:07	16:17	16:29	
1007	11:43	11:52	12:13	12:32	12:45	13:06	13:30	13:58	14:24	14:40 왜관 14:53	15:12	15:18		16:48	17:12 부전 17:27	신해운대 17:40	토일
1023	12:53	13:02	13:23		13:52		14:34		15:25	15:41	16:10	16:16					
1009	13:59	14:08	14:29	14:48	15:01		15:43	16:11	16:37	16:53	17:22	17:28	17:49	18:02	18:27	18:39	
1011	15:55	16:04	16:25		16:54		17:36		18:27	18:43	19:12	19:18			20:12	20:24	
1013	20:25	20:34	20:55		21:24		22:06		22:57	23:13	23:42	23:48		00:20	00:45	00:57	

ITX-새마을 경부선 상행 From Busan to Seoul

(2021년 9월 기준)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부산 釜山 Busan	구포 龜浦 Gupo	밀양 密陽 Miryang	청도 淸道 Cheongdo	동대구 東大邱 Dongdaegu	대구 大邱 Daegu	구미 龜尾 Gumi	김천 金泉 Gimcheon	영동 永東 Yeongdong	대전 大田 Daejeon	조치원 鳥致院 Jochiwon	천안 天安 Cheonan	평택 平澤 Pyeongtaek	수원 水原 Suwon	영등포 永登浦 Yeongdeungpo	서울 首爾 Seoul	비고 備考 Remark
1002	06:27	06:40	07:04	07:17	07:40	07:46	08:15	08:30		09:23	09:46	10:07		10:36	10:56	11:05	
1004	09:12	09:25	09:49	경산 10:14	10:25	10:31	11:00	11:15	11:42	12:10		12:51		13:20	13:41	13:49	
1006	11:34	11:47	물금 11:56 12:14		12:47	12:53	13:22	13:37		14:30		15:11	15:23	15:43	16:04	16:12	
1008	13:23	13:36	물금 13:45 14:03	경산 14:28	14:39	14:45	15:14	15:29	15:56	16:24		17:05	17:17	17:37	17:58	18:06	
1024	신해운대 13:51	부전 14:04 14:19	14:43		15:16	15:22	15:51	16:06		16:59		17:40		18:09	18:30	18:38	토일
1010	15:08	15:21	물금 15:30 15:48		16:21	16:27 왜관 16:45	16:59	17:14	17:41	18:09	18:32	18:53		19:22	19:43	19:51	
1012	17:16	17:29		18:03	18:26	18:32	19:01	19:16		20:09		20:50		21:19	21:40	21:48	
1022	신해운대 17:26	부전 17:39 17:54	18:18	경산 18:43	18:54	19:00	19:29	19:44	20:11	20:39	21:02	21:23	21:35	21:55	22:16	22:24	
1014	19:25	19:38	20:02		20:35	20:41	21:10	21:25		22:18	22:41	23:02		23:31	23:52	00:00	

ITX-새마을 호남선 하행 From Yongsan to Gwangju-Mokpo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용산 龍山 Yongsan	영등포 永登浦 Yeongdeungpo	수원 水原 Suwon	천안 天安 Cheonan	조치원 鳥致院 Jochiwon	서대전 西大田 Seodaejeon	계룡 鷄龍 Gyeryong	논산 論山 Nonsan	익산 益山 Iksan	김제 金堤 Gimje	정읍 井邑 Jeongeup	장성 長城 Jangseong	광주송정 光州松汀 Gwangjusongjeong	나주 羅州 Naju	목포 木浦 Mokpo	비고 備考 Remark
1071	08:32	08:39	09:01	평택 09:20 09:33	09:53	10:20	10:36	10:54	11:20	11:32	11:47	12:05	광주 12:29			
1061	10:50	10:57	11:19	평택 11:38 11:51	12:11	12:38	12:54	13:12	13:38	13:51 신태인 13:59	14:08	14:26	14:40	14:50 함평 15:01	일로 15:14 15:23	
1073	13:27	13:34	13:56	평택 14:15 14:28	14:48	15:16	15:32	15:50 강경 15:59	16:19	16:32	16:46	17:04	광주 17:28			
1075	15:22	15:29	15:51	16:20		17:05	17:20	17:39 강경 17:48	18:07	18:20 신태인 18:28	18:37	18:55	광주 19:19			
1063	19:13	19:20	19:42	평택 20:01 20:14	20:34	21:01		21:32	21:58	22:11 신태인 22:19	22:28	22:46	23:00	23:10 함평 23:21	23:40	
1077	20:10	20:17	20:39	평택 20:58 21:11	21:31	21:58	22:14	22:32 강경 22:41	23:01	23:14	23:28	23:46	광주 00:10			

ITX-새마을 호남선 상행 From Gwangju-Mokpo to Yong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목포 木浦 Mokpo	함평 咸平 Hampyeong	광주송정 光州松汀 Gwangjusongjeong	장성 長城 Jangseong	정읍 井邑 Jeongeup	김제 金堤 Gimje	익산 益山 Iksan	논산 論山 Nonsan	계룡 鷄龍 Gyeryong	서대전 西大田 Seodaejeon	조치원 鳥致院 Jochiwon	천안 天安 Cheonan	수원 水原 Suwon	영등포 永登浦 Yeongdeungpo	용산 龍山 Yongsan	비고 備考 Remark
1072			광주 06:30	06:54	07:11	07:26	07:40	08:06	08:24	08:40	09:05	09:26 평택 09:38	09:58	10:18	10:25	
1074			광주 08:50	09:14	09:31	09:46	10:00	10:26	10:44	11:00		11:43	12:12	12:32	12:39	
1062	10:42 일로 10:52	11:04 나주 11:14	11:26	11:41	11:58	12:12	12:26	강경 12:46 12:55		13:26		14:09	14:39	14:59	15:06	
1076			광주 13:50	14:14	14:31	신태인 14:40 14:49	15:03	15:29		16:00	16:25	16:46 평택 16:58	17:18	17:38	17:45	
1064	17:42 일로 17:51	18:03 나주 18:13	18:25	18:40	18:57	신태인 19:06 19:14	19:28	강경 19:47 19:57	20:15	20:31		21:14 평택 21:26	21:46	22:06	22:13	
1078			광주 18:48	19:12	19:29	신태인 19:38 19:47	20:01	강경 20:20 20:30	20:48	21:04	21:29	21:50 평택 22:02	22:22	22:42	22:49	

ITX-새마을 전라선 하행 From Yongsan to Yeosu-Expo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용산 龍山 Yongsan	영등포 永登浦 Yeongdeungpo	수원 水原 Suwon	평택 平澤 Pyeongtaek	천안 天安 Cheonan	서대전 西大田 Seodaejeon	계룡 鷄龍 Gyeryong	논산 論山 Nonsan	강경 江景 Ganggyeong	익산 益山 Iksan	전주 全州 Jeonju	남원 南原 Namwon	곡성 谷城 Gokseong	구례구 求禮口 Guryegu	순천 順天 Suncheon	여천 麗川 Yecheon	여수엑스포 麗水엑스포 Yeosu-Expo	비고 備考 Remark
1081	08:47	08:54	09:16	09:35	09:48 조치원 10:08	10:35	10:51	10:10		11:36	11:52	12:19	12:29	12:41	12:58	13:13	13:21	
1083	16:39	16:46	17:08	17:27	17:40	18:24	18:40	18:58	19:07	19:27	19:43	20:10	20:20	20:32	20:49	21:03	21:12	

ITX-새마을 전라선 상행 From Yeosu-Expo to Yong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여수엑스포 麗水엑스포 Yeosu-Expo	여천 麗川 Yecheon	순천 順天 Suncheon	구례구 求禮口 Guryegu	곡성 谷城 Gokseong	남원 南原 Namwon	전주 全州 Jeonju	익산 益山 Iksan	강경 江景 Ganggyeong	논산 論山 Nonsan	계룡 鷄龍 Gyeryong	서대전 西大田 Seodaejeon	천안 天安 Cheonan	수원 水原 Suwon	영등포 永登浦 Yeongdeungpo	용산 龍山 Yongsan	비고 備考 Remark
1082	08:55	09:03	09:18	09:34	09:46	09:56	10:24	10:42	11:01	11:11	11:29	11:45	12:28	12:57	13:17	13:24	
1084	15:52	16:00	16:15	16:31	16:43	16:53	17:21	17:39		18:05	18:23	18:39	19:22	19:51	20:11	20:18	

ITX-새마을 경전선 하행 From Seoul to Jinju-Ma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서울 Seoul	영등포 永登浦 Yeongdeungpo	수원 水原 Suwon	천안 天安 Cheonan	조치원 鳥致院 Jochiwon	대전 大田 Daejeon	김천 金泉 Gimcheon	구미 龜尾 Gumi	왜관 倭館 Wae-gwan	대구 大邱 Daegu	동대구 東大邱 Dongdaegu	밀양 密陽 Miryang	진영 進永 Jinyeong	창원중앙 昌原中央 Changwonjungang	창원 昌原 Changwon	마산 馬山 Masan	함안 咸安 Ham-an	진주 晉州 Jinju	비고 備考 Remark
1031	08:53	09:02	09:23	평택 09:42 09:55	10:16	10:40	11:31	11:47		12:16	12:22 경산 12:31	12:56	13:14	13:24	13:33	13:39	13:51	14:09	
1033	19:27	19:36	19:57	20:26	20:47	21:11	22:02	22:18	22:31	22:50	22:56	23:28	23:48	23:59	00:08	00:14	00:26	00:45	

ITX-새마을 경전선 상행 From Jinju-Masan to Seoul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진주 晉州 Jinju	함안 咸安 Ham-an	마산 馬山 Masan	창원 昌原 Changwon	창원중앙 昌原中央 Changwonjungang	진영 進永 Jinyeong	밀양 密陽 Miryang	동대구 東大邱 Dongdaegu	대구 大邱 Daegu	구미 龜尾 Gumi	김천 金泉 Gimcheon	대전 大田 Daejeon	조치원 鳥致院 Jochiwon	천안 天安 Cheonan	평택 平澤 Pyeongtaek	수원 水原 Suwon	영등포 永登浦 Yeongdeungpo	서울 首爾 Seoul	비고 備考 Remark
1032	09:08	09:28	09:39	09:45	09:55	10:05	10:22 청도 10:35	10:58	11:04 왜관 11:22	11:36	11:51	12:44	13:07	13:28	13:40	14:00	14:21	14:29	
1034	15:47	16:07	16:18	16:24	16:34	16:43	17:00	17:33	17:39	18:08	18:23	19:16	19:39	20:00		20:29	20:50	20:58	

새마을호 장항선 하행 From Yongsan to Ik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용산 龍山 Yongsan	영등포 永登浦 Yeongdeungpo	수원 水原 Suwon	평택 平澤 Pyeongtaek	천안 天安 Cheonan	아산 牙山 Asan	온양온천 溫陽溫泉 Onyangoncheon	신례원 新禮院 Sillyeowon	예산 禮山 Yesan	삼교 插橋 Sapgyo	홍성 洪城 Hongseong	광천 廣川 Gwangcheon	대천 大川 Daechon	웅천 熊川 Ungcheon	서천 舒川 Seochon	장항 長項 Janghang	군산 群山 Gunsan	익산 益山 Iksan	비고 備考 Remark
1051	09:40	09:48	10:11	10:31	10:51	10:58	11:07		11:25	11:33	11:44	11:59	12:16	12:27	12:40	12:45	12:53	13:11	
1053	11:52	12:00	12:23		12:59	13:06	13:15		13:32		13:47	14:00	14:17	14:28	14:41	14:46	14:54	15:12	
1055	13:45	13:53	14:16		14:52	14:59	15:08		15:25	15:33	15:48	16:01	16:18	16:29	16:41	16:47	16:54	17:12	
1057	15:30	15:38	16:01		16:37	16:44	16:53		1										

ITX-청춘 경춘선 평일 하행 From Yongsan to Chuncheon

열차번호 列車番號	용산 龍山	옥수 玉水	왕십리 往十里	청량리 靑凉里	상봉 上鳳	퇴계원 退溪院	사릉 思陵	평내호평 坪內好坪	마석 磨石	청평 淸平	가평 加平	강촌 江村	남춘천 南春川	춘천 春川	비고 備考
Train NO.	Yongsan	Oksu	Wangsimni	Cheongnyangni	Sangbong	Toegyewon	Sareung	Pyeongnaehopyeong	Maseok	Cheongpyeong	Gapyeong	Gangchon	Namchuncheon	Chuncheon	Remark
2001	06:00			06:17				06:39			06:57		07:12	07:15	
2003	06:56		07:10	07:15				07:36	07:42		07:55		08:10	08:13	
2005	07:52		08:06	08:11				08:33	08:38		08:52		09:06	09:10	
2007	08:51	09:02	09:06	09:11				09:33			09:51		10:06	10:09	
2009	09:57			10:14					10:38		10:53		11:07	11:10	
2011	10:58	11:09		11:17				11:39			11:57		12:11	12:14	
2013	12:00	12:10		12:18				12:40			12:58		13:12	13:15	
2015	12:53			13:09				13:31	13:44		13:52	14:01	14:09	14:12	
2017	14:00			14:17				14:38			14:56		15:11	15:14	
2019	15:20			15:36				15:58			16:16		16:30	16:33	
2021	16:00			16:16				16:38	16:51		16:59	17:08	17:16	17:19	
2023	17:00			17:17				17:39			17:57		18:12	18:15	
2025	17:46		18:00	18:05	18:13	18:22	18:26	18:32	18:37		18:52		19:06	19:09	
2027	18:56		19:10	19:15	19:23	19:32	19:36	19:42	19:47		20:02		20:17	20:20	
2029	19:58		20:12	20:17	20:25	20:34	20:38	20:44	20:49		21:04		21:19	21:22	
2031	20:32			20:49				21:10	21:16	21:26	21:34	21:43	21:51	21:54	
2033	21:21			21:38				21:59			22:17		22:32	22:35	
2035	22:48			23:05				23:26			23:44		23:59	00:02	

ITX-청춘 경춘선 평일 상행 From Chuncheon to Yongsan

(2021년 9월 기준)

열차번호 列車番號	춘천 春川	남춘천 南春川	강촌 江村	가평 加平	청평 淸平	마석 磨石	평내호평 坪內好坪	사릉 思陵	퇴계원 退溪院	상봉 上鳳	청량리 靑凉里	왕십리 往十里	옥수 玉水	용산 龍山	비고 備考
Train NO.	Chuncheon	Namchuncheon	Gangchon	Gapyeong	Cheongpyeong	Maseok	Pyeongnaehopyeong	Sareung	Toegyewon	Sangbong	Cheongnyangni	Wangsimni	Oksu	Yongsan	Remark
2002	06:08	06:12		06:27		06:41	06:47	06:53	06:57	07:06	07:14	07:19		07:33	
2004	06:54	06:58		07:13		07:27	07:33	07:39	07:43	07:52	08:01	08:06		08:20	
2006	07:22	07:26	07:35	07:44	07:52	08:02	08:07				08:29			08:47	
2008	08:12	08:16		08:30		08:45	08:51	08:57	09:01	09:10	09:19	09:24		09:37	
2010	09:21	09:25		09:40			09:58				10:20			10:37	
2012	10:23	10:27		10:42			11:00				11:22			11:39	
2014	11:14	11:18		11:33			11:51				12:13			12:31	
2016	12:10	12:14		12:29			12:47				13:10			13:25	
2018	13:15	13:19		13:34			13:52				14:14			14:29	
2020	14:06	14:10	14:19	14:28	14:36		14:49				15:11			15:27	
2022	15:29	15:33		15:48			16:06				16:28		16:36	16:46	
2024	16:12	16:16		16:31			16:49				17:12		17:20	17:30	
2026	17:01	17:05		17:20		17:34					17:59	18:03		18:17	
2028	18:14	18:18		18:33		18:47	18:52				19:14	19:19	19:24	19:33	
2030	18:53	18:57		19:12		19:26	19:32				19:54	19:59		20:13	
2032	19:39	19:43	19:52	20:01	20:09		20:22				20:45			21:01	
2034	21:12	21:16	21:25	21:34	21:42		21:55				22:17			22:33	
2036	22:14	22:18		22:33			22:51				23:13			23: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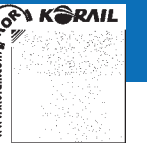
ITX-청춘 경춘선 주말·공휴일 하행 From Yongsan to Chuncheon

열차번호 列車番號	용산 龍山	옥수 玉水	왕십리 往十里	청량리 靑凉里	평내호평 坪內好坪	청평 淸平	가평 加平	강촌 江村	남춘천 南春川	춘천 春川	비고 備考
Train NO.	Yongsan	Oksu	Wangsimni	Cheongnyangni	Pyeongnaehopyeong	Cheongpyeong	Gapyeong	Gangchon	Namchuncheon	Chuncheon	Remark
2051	06:15			06:32	06:53		07:12	07:21	07:29	07:32	
2053	06:55		07:09	07:13	07:34	07:47	07:55		08:10	08:13	
2055	07:55		08:08	08:13	08:34	08:52	09:01	09:10	09:10	09:13	
2057	08:20			08:38	08:59	09:12	09:20		09:35	09:38	
2059	08:45	08:55	09:00	09:05	09:26	09:44	09:53	10:02	10:02	10:05	
2061	09:18			09:36	09:57	10:11	10:19		10:34	10:37	
2063	09:49			10:06			10:43		10:58	11:01	
2065	10:26			10:43	11:04		11:23	11:32	11:41	11:44	
2067	10:59	11:09	11:13	11:17		11:50	11:58		12:12	12:15	
2069	11:30			11:47	12:08		12:26	12:35	12:43	12:46	
2071	11:57	12:07	12:12	12:17		12:50	12:58		13:13	13:16	
2073	12:58		13:11	13:15	13:37	13:51	13:59		14:13	14:16	
2075	14:15			14:33	14:54	15:07	15:15		15:30	15:33	
2077	14:47			15:04			15:41	15:50	15:59	16:02	
2079	15:14			15:32	15:54	16:08	16:16		16:31	16:34	
2081	15:47			16:04	16:25		16:43	16:53	17:02	17:05	
2083	16:18			16:35		17:08	17:16		17:31	17:34	
2085	16:56			17:14	17:35		17:54	18:04	18:13	18:16	
2087	17:30			17:47	18:08	18:21	18:29		18:44	18:47	
2089	17:59			18:15	18:37		18:55	19:04	19:12	19:15	
2091	19:00			19:17	19:38		19:56	20:05	20:14	20:17	
2093	19:30			19:48	20:09	20:22	20:31		20:46	20:49	
2095	20:00			20:18	20:40		20:58	21:08	21:16	21:19	
2097	20:35			20:51		21:24	21:32		21:46	21:49	
2099	21:20			21:36	21:58		22:16	22:25	22:33	22:36	
2101	22:05			22:21	22:43		23:01		23:15	23:18	

ITX-청춘 경춘선 주말·공휴일 상행 From Chuncheon to Yong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춘천 春川	남춘천 南春川	강촌 江村	가평 加平	청평 淸平	평내호평 坪內好坪	청량리 靑凉里	왕십리 往十里	옥수 玉水	용산 龍山	비고 備考
Train NO.	Chuncheon	Namchuncheon	Gangchon	Gapyeong	Cheongpyeong	Pyeongnaehopyeong	Cheongnyangni	Wangsimni	Oksu	Yongsan	Remark
2052	06:06	06:10	06:19	06:28		06:46	07:09			07:25	
2054	07:07	07:11		07:26	07:34	07:47	08:10			08:26	
2056	08:12	08:16		08:31	08:39	08:52	09:15			09:31	
2058	08:47	08:51	09:00	09:09		09:27	09:50			10:07	
2060	09:32	09:36		09:51	09:59		10:34			10:49	
2062	09:52	09:56	10:05	10:14		10:32	10:55			11:11	
2064	10:22	10:26		10:41	10:49		11:23			11:39	
2066	11:25	11:29		11:44	11:52		12:25			12:43	
2068	12:28	12:31		12:46	12:54	13:07	13:30			13:46	
2070	13:11	13:15	13:24	13:33		13:51	14:14			14:30	
2072	13:38	13:42		13:57	14:05		14:39			14:56	
2074	14:05	14:09	14:18	14:27		14:45	15:07			15:24	
2076	14:50	14:54		15:08	15:16	15:29	15:52			16:08	
2078	15:07	15:11	15:20	15:30			16:09	16:14	16:18	16:28	
2080	15:52	15:56		16:11	16:19	16:32	16:55			17:12	
2082	16:15	16:19	16:28	16:37		16:55	17:19	17:23	17:28	17:38	
2084	16:55	16:59		17:14			17:52			18:08	
2086	17:26	17:30		17:45	17:53	18:06	18:29			18:44	
2088	17:55	17:58	18:07	18:16		18:34	18:56			19:12	
2090	18:25	18:28		18:43	18:51		19:26	19:31	19:35	19:45	
2092	19:00	19:04	19:13	19:22		19:40	20:02			20:18	
2094	19:34	19:38		19:53	20:01	20:14	20:37	20:42		20:55	
2096	20:30	20:34		20:49	20:57	21:10	21:33	21:38		21:52	
2098	21:15	21:19	21:28	21:38		21:56	22:20			22:36	
2100	21:48	21:52		22:06	22:14		22:48	22:51		23:05	
2102	22:13	22:17		22:34		22:53	23:16			23:32	

열차 시간은 운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코레일톡'에서 정확한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객실 | Passenger Compartment

KTX 930mm

**좌석 간격
Seat Space**

**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

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

**이동통신망
Free wireless Internet Service**

열차 내에서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전용 콘센트 & USB 포트
Socket & USB Port**

열차 내에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실 서비스 | First Class Service

KTX 1120mm

**좌석 간격
Seat Space**

**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

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

식음료 Refreshment

특실 이용객을 위한 셀프 서비스 물품은 KTX 3, 4호차와 KTX-산천 4, 14호차에 있으며 특실 생수 자판기는 KTX 3, 4호차 지정 장소에 있습니다.

**KTX 미니 도서관
KTX Mini Library**

단행본은 KTX 4호차와 KTX-산천 3, 13호차, 잡지·신문은 KTX 3, 5호차와 KTX-산천 3, 13호차 지정 장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편의 시설 | Amenities



화장실 Restroom

KTX 1, 2, 4, 6, 8, 11, 13, 15, 17, 18호차와 KTX-산천 3, 5, 6, 8, 13, 15, 16, 18호차와 KTX-이음 1, 6호차와 ITX-새마을 1, 4, 6호차와 ITX-청춘 3, 6호차에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시설
For the Handicapped**

전동휠체어석과 장애인용 화장실은 KTX 2호차와 KTX-산천 1, 11호차와 KTX-이음 3호차와 ITX-새마을 3호차와 ITX-청춘 3호차에 있습니다.



**수유실
Breast-Feeding Room**

유아 동반 고객을 위한 수유실이 KTX 8, 16호차와 KTX-산천 4, 14호차와 KTX-이음 4호차와 ITX-새마을 6호차와 ITX-청춘 6호차에 있습니다.



**물품 보관소
Luggage Storage Section**

각 객차에 위치한 승강대에 여행용 가방 등 큰 물건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갑자기 심장이 멈추거나 심장박동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전기 충격을 줘 정상 상태로 회복시키는 기계입니다. KTX 4, 10, 15호차와 KTX-산천 4, 14호차와 KTX-이음 3호차와 ITX-새마을 3호차와 ITX-청춘 3호차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동판매기
Vending Machine**

음료 및 스낵 자판기가 KTX 5, 9, 11, 13, 16호차와 KTX-산천 2, 6, 12, 16호차와 KTX-이음 3, 4호차와 ITX-새마을 3, 4호차 지정 장소에 있습니다.



**의약품
First-Aid Medicine**

KTX 열차 내에 상비약이 준비되어 있어 승무원에게 요청하면 필요한 약품을 제공합니다.



**금연
No Smoking**

역 승강장과 열차 안은 모두 금연 구역입니다. 안전한 열차 운행과 건강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열림 버튼
Open-Button (1mins)**

**1분 열림 버튼
The Button to Open the Door for 1 Minutes**

각 객실 출입문 위쪽에 위치하며 누르면 1분 동안 문이 열립니다.

부가 서비스 | Optional Services

KTX 셔틀버스 8507번 길라잡이

- ※ 사당역~광명역 간 직통 운행
 - 사당역 탑승 시 사당역 4번 출구 앞 → 광명역 서편(상징광장) 정류소
 - 광명역 탑승 시 광명역 3-1번 출구 → 서울대입구역 2번 출구 앞 → 사당역 3번 출구 앞
- ※ 운행 시간 오전 5시~자정(광명역 출발 막차 밤 11시 30분) / 배차 간격 10분
- ※ 대중교통 환승 할인 수도권 통합 환승을 적용해 기존 버스나 지하철 이용 시 할인 가능
- ※ 비용 절감 서울역과 비교해 광명역에서 KTX를 이용하면 2100원 절약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 길라잡이

- ※ 탑승 수속
 - 이용 시간 오전 6시 30분~오후 7시
 - 탑승 수속 마감 항공기 출발 3시간 전(대한항공 항공기 출발 3시간 20분 전)
 - 수속 가능 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티웨이, 에어서울, 진에어, 이스타, 에어부산
 - 수속 가능 노선 인천국제공항 출발 국제선 전 노선
- ※ 출국 심사
 - 이용 시간 오전 7시~오후 7시
 - 출국 심사 탑승 수속을 마치고 출입국사무소에서 사전 출국 심사 가능

※ 코로나19 여파로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 운영을 중단합니다. 운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KTX 특송

급송이 필요한 고객의 화물을 KTX를 이용하여 배송하는 서비스입니다. 배송품은 주요 고속철도역에서 접수하며, 고객이 요구할 경우 퀵서비스를 연결하여 배송해 드립니다.

취급역 서울, 용산, 광명, 천안아산, 오송, 대전, 동대구, 마산, 부산, 익산, 전주, 목포, 광주송정, 여수엑스포, 포항

문의 1544-7781



인천국제공항 연계 리무진

승차권 구입 전국 고속철도역, 코레일톡 승차장 광명역 서편 4번 출구 전용 정류장

※ 코로나19 여파로 광명역 인천공항 연계 리무진 운영을 중단합니다.

Rail+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길라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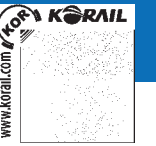
KTX 마일리지 1퍼센트 추가 적립, 모바일카드는 KTX 마일리지 전환 사용 가능

- ※ 플랫카드 구매처 CU편의점, emart24, 스토리웨이
- ※ 모바일카드 다운로드 '레일플러스' 스마트폰 앱(Android, iOS) iOS는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스티커 구매 → 부착 후 사용
- ※ 사용자 지하철, 버스, 기차, 택시, 유료도로, 편의점 등
- ※ 충전처 전철·기차역, 편의점(CU, emart24, 스토리웨이) 등
- * 자세한 내용은 레일플러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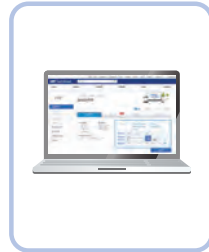


대중교통안심카드 railplus.korail.com
CU 레일플러스카드 QR코드를 스캔하면 레일플러스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승차권 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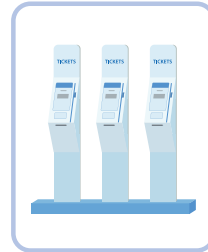
-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코레일톡은 열차 출발 전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결제 금액 5만 원 이상 시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가능합니다.
- 결제 후 스마트폰 승차권, 홈티켓으로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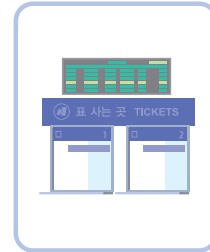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letskorail.com)



'코레일톡'
스마트폰 앱



승차권
자동 발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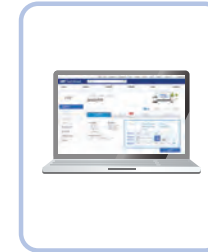
기차역 내 창구
또는 승차권 판매 대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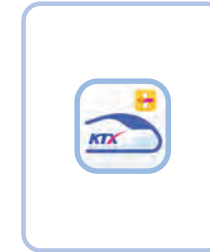
'네이버'·'카카오T'
스마트폰 앱

Ticket Boo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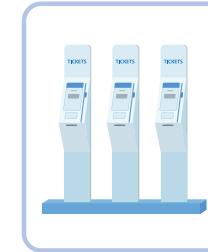
- Tickets can be purchased one month in advance and up to 20 minutes before departure (before departure in KORAIL Talk application).
- Installment option available if paying more than KRW 50,000 by credit card.
- Tickets issued as smartphone ticket or home ticket after pay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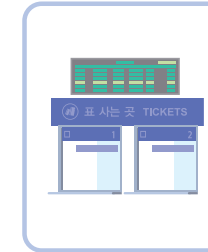
Let's KORAIL website
(letskorail.com)



KORAIL Talk
Mobile App



Ticket vending mach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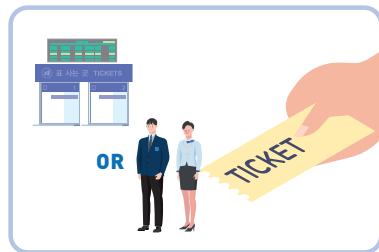
Ticket booth
or ticket retail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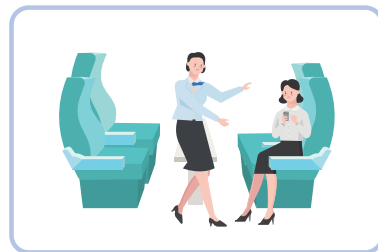
NAVER·KAKAO T
Mobile App

승차권 분실

- 회원번호, 신용카드 등으로 승차권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금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입석과 자유석 승차권, 분실한 승차권이 변경 또는 반환된 경우, 재발행한 승차권을 반환 또는 변경하거나 도착역 전에 내린 경우 승차권 반환 불가능



역 창구, 열차승무원에게 운임·요금을 다시 지불하고 분실한 승차권 재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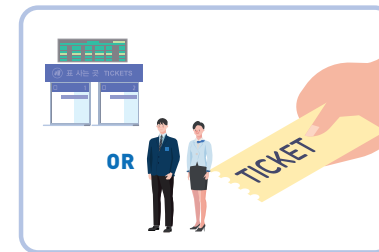
열차승무원에게 분실 승차권 미사용 확인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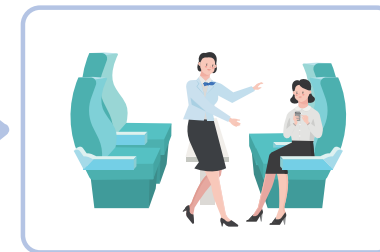
역 창구에서 승차권 금액 반환
(최저 반환 수수료 제외)

Ticket loss

- Refunds may be provided for ticket purchases made using the KORAIL membership number or a credit card.
Not applicable to standing tickets, change of lost tickets, change of reissued tickets, and unused sections from alighting before the destination station.



Pay fees at the ticket booth or to the on-board crew to reissue your ticket.



Check with the on-board crew that your lost ticket is unused.



Receive a refund for your lost ticket at the ticket booth.
(excluding service charge)

승차권 반환

- 승차권 반환 시에는 환불 청구 시각, 승차권에 기재된 출발역 출발 시각 및 영수증 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구분	출발 전		
	1개월~출발 1일 전	당일~출발 3시간 전	3시간 전 경과 후~출발 시간 전
월~목요일	무료		5%
금~일요일, 공휴일	400원(구입일 포함 7일 이내 환불 시 감면)	5%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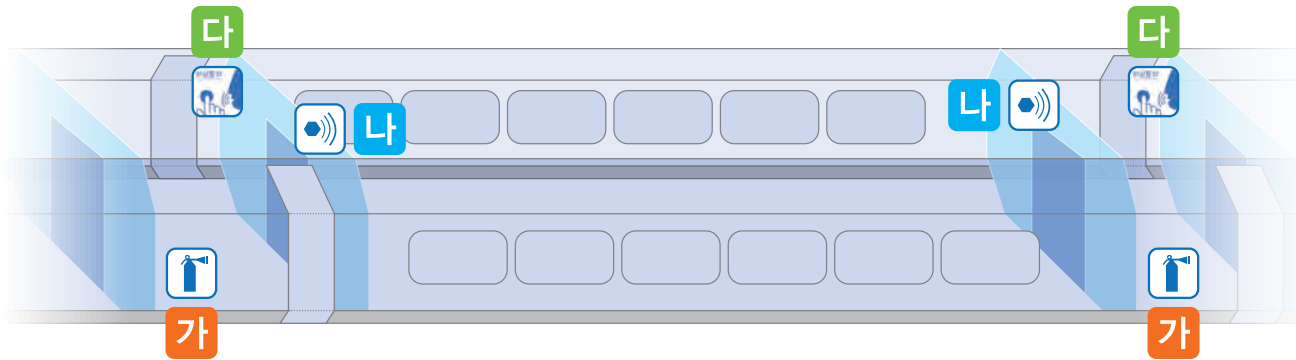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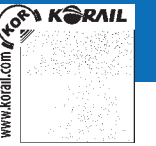
구분	출발 후(역 창구에서 환불 신청)		
	20분까지	20분 경과 후~60분	60분 경과 후~도착
월~목요일			
금~일요일, 공휴일	15%	40%	70%

Ticket Refund

- Ticket refund value is calculated based on the time of refund claim, departure time specified on the ticket, and original price of ticket on the receipt. Note that a service charge appl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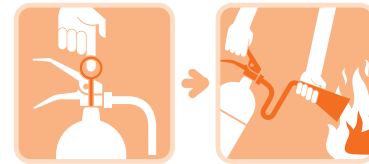
Classification	Before Departure		
	1 month – 1 day prior to departure	Day of departure – 3 hours prior to departure	3 hours – before departure time
Mon–Thu	Free		5%
Fri–Sun, holidays	KRW 400 [Free within 7 days from date of purchase]	5%	10%

Classification	After Departure (Request refund at ticket booth)		
	Up to 20 minutes	20 – 60 minutes	60 minutes – arrival time
Mon–Thu			
Fri–Sun, holidays	15%	40%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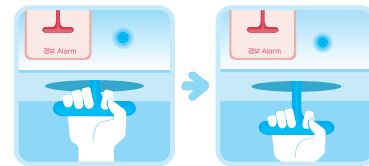
가 소화기 사용 요령
How to Use a Fire Extinguisher

- 승강문 옆 수하물실 아래에 있는 소화기를 꺼내 안전핀을 뽑는다.
Take out the fire extinguisher from the box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pin.
- 불이 난 장소에 골고루 분사한다.
Spray evenly at the area that is on fire.



나 비상 알람 장치
Emergency Alarm

- 객실 내부 출입문 상단의 적색 손잡이를 아래로 당긴다.
Pull down the red emergency alarm handle located at the upper part of the interior door.
- 비상 경보음이 객실 전체에 울린다.
The emergency alarm goes off.



다 승무원 통화 장치
Contacting the Train Crew

KTX | KTX 산천 | KTX 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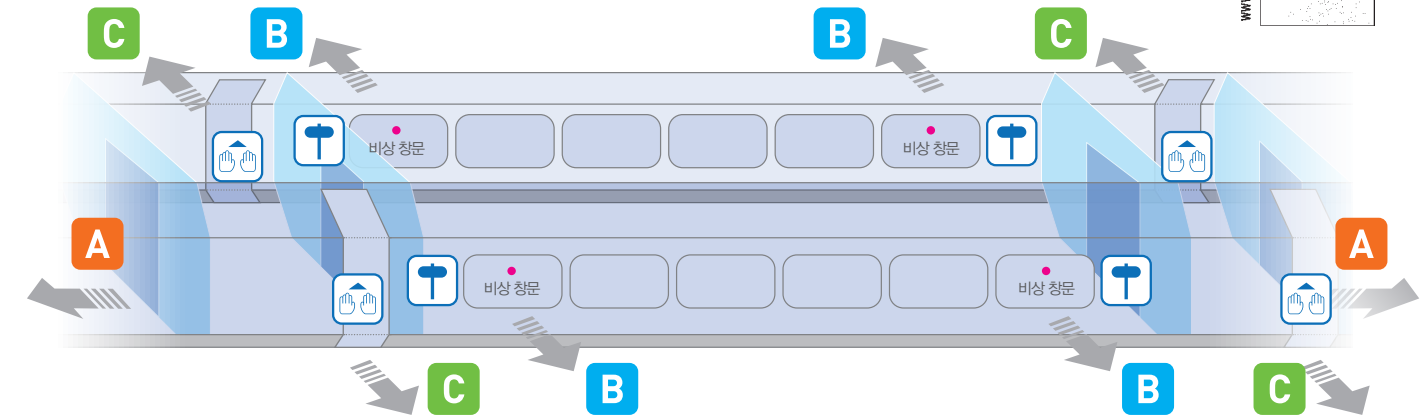
- 승강문 옆의 버튼을 누른다.
Press the intercom button next to the exterior door.
- 승무원이 응답하면 상황을 알린다.
Notify the train crew of the situation.



ITX 새마을 | ITX 정준

- 승강문 옆 또는 객실 안에 있는 승객용 비상 호출기 커버를 연다.
Open the emergency intercom box beside at the door or inside the car.
- 마이크를 꺼낸 후 적색 램프가 켜지면 마이크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상황을 알린다.
Take out the microphone. Once the red light is on, press the button on the left of the microphone and inform the situation.

QR코드를 스캔하면 기차 내 설비 사용법과 비상시 행동 요령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다른 객차로 대피
Escape to an Unaffected Car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다른 객차로 안전하게 대피한다. 부상자, 노약자, 임신부가 먼저 피신할 수 있도록 돕는다.
Follow instructions of the train crew and move to an unaffected car. Provide assistance to evacuate wounded, elderly people and pregnant women first.

A 터널 탈출 요령
Escape from a Tunnel

터널 내 비상사태 시 자세를 낮추고 비상 유도등을 따라 가까운 터널 입구로 탈출한다.
Follow the emergency exit light to go out the tunnel exit.

A 비상 사다리 위치
Emergency ladder location

KTX: 5호차, 14호차 | KTX-산천: 2호차(일부 편성 4호차)
KTX-이음: 1호차, 6호차 | ITX-새마을: 4호차

C 승강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xterior Door

KT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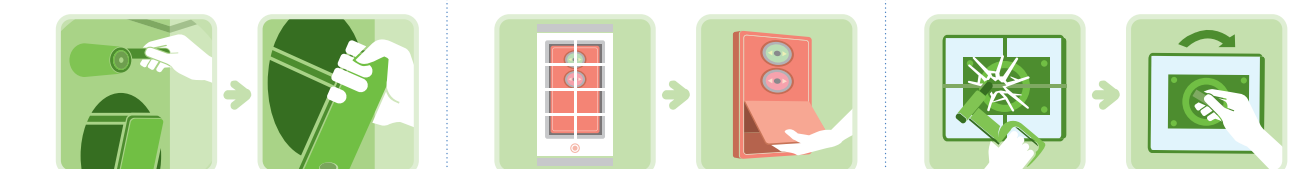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고 위 손잡이를 아래로 돌린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rs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upper handle down.
- 아래 손잡이를 앞으로 당기고 승강문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ower handle down and push the door.

KTX 산천 | KTX 이음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l next to the exterior door.
- 핸들을 2회 당기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handle twice and push the door.

ITX 새마을 | ITX 정준

- 승강문 옆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다.
Break open the emergency door release box.
-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ever to the right. Push door forward and to the s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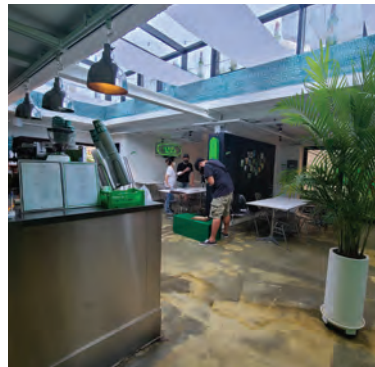


어디든

지도 앱을 소개하는 '잡학 사전'의 디자인 요소를 구하려 앱을 열고 적당한 화면을 찾아 캡처했다. '포토로그' 앱 차례가 되었는데, 이용자가 그동안 직접 촬영한 여행지 사진을 지도에 삽입하는 방식이어서 디자인에 쓸 이미지를 얻으려면 내가 그 과정을 진행해야 했다. 텅 빈 지도 속 도시들에 해당 지역에서 촬영한 사진을 넣고 또 넣었다. 열 개 도시에 사진을 채우고 작업을 마무리했지만, 대부분 도시에 내가 촬영한 사진을 담는 것도 가능했다. 홀로 혹은 가족과 떠난 여행지가 많고, <KTX매거진>에서 일하며 방문한 여행지도 많다. 음... 왠지 겸연쩍어 뭉뚱그렸다. 사실 <KTX매거진>에서 일하며 방문한 여행지가 훨씬 많다. 처음 가서 좋아 놀란 곳, 두 번째여서 행복해한 곳, 그리고 취재 목적으로만 세 번, 네 번 방문한 곳도 존재한다. 독자님들 덕분에 여행지에 가서 잘 보고 돌아와 글을 쓰고 뿌듯해한다. 이번 '테마 여행' 여행지 영월은 올해 4월호에 이어 두 번째 취재했다. 두 번째여도 어떤 데는 처음 보았고, 어떤 데에선 정말 좋아 행복했다. 다음 달엔 어디일까? 어디든 좋겠다. **김규보**

틈틈이 행복하기

1. 마감에는 소소한 게 다 행복하다. 이번 마감에 나의 힐링은 꽃이었다. 우리 집 발코니에 자라는 식물 중 문주란은 이 무렵 예쁘게 피어 좋은 향기를 풍긴다. 출근 전에 한 번, 퇴근 후에 한 번 향을 맡으며 에너지를 충전했다. 꽃에 출퇴근 도장을 찍은 격 ㅎㅎ 혹시 문주란 향수 파는 곳 아시나요? 2. 마감이 절정을 찍는 19일, 나는 8월 19일에 태어났다. 매년 야근하며 맞이하고 보내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편인데, 출근하는 길에 친구가 특을 보내 왔다. "마감이겠지만 틈틈이 행복한 하루 되길~" '틈틈이'라는 단어가 계속 맴돌았다. 그래서 노력했다. 틈틈이라도 즐기려고. 갈아타는 버스를 기다리면서 파란 하늘 보기. 특을 확인하지는 못해도 축하해 준 친구들에게 고마운 마음 갖기. 생일이라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는 선배님에게 감사하기. 다정 씨랑 옥상 올라가서 잠시라도 바람 쐬기. 생각해 보니 즐길 거리가 많았다. 그리고 한 가지. 마감하는 딸 힘내라고 매일 아침 챙겨 주는 엄마가 옆에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행복이다. 사진: 엄마 문 여사, 글: 딸 **이내경**



여러분 저 여기 있어요

2016년 11월호부터. 항상 '편집 후기' 우측 하단을 차지해 왔다. 글에도 무게가 있다는 듯, 진득하게 그 자리를 지켜 왔다. 위치를 좌측 하단으로 옮기게 된 2021년 9월호, 나의 59번째 '편집 후기'는 남다르게 기억될 것 같다. 이번 호가 특별한 이유는 하나 더 있다. 한숨 한 번 쉬고 이야기해도 될까요? 후우~ '에디터 체험기' 촬영이 역대급으로 힘들었다. 기획안에 밀키트를 내고, 회의 때 발표하고, 최종 기획안을 받아 보고, 리스트를 만들 때까지 행복했다. 스튜디오에서는? 정신이 없어서 눈물이 왈칵 날 뻔했으나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멘탈 잡고 세팅을 마쳤다. 금성사(현 LG) 가스버너로 요리한 디자이너 보영 선배가 MVP♥. 그리고 지난달에 이어 또 뽀빠 된 윤영미 아나운서님과 다녀온 춘천도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 킹카누에서 바라본 갈대숲은 진짜, 정말 아름다웠다. 물론 우리 아나운서님은 모든 순간 예쁘셨고요. 매 순간 편하게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니"라고 부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소심하게 불러 봅니다. 언니~ 언니~ 언니~ 우리 제주도에서 보아요♥ **표다정**

모두 고맙습니다

1. 안녕하세요. <KTX매거진> 신입 기자 김재은입니다. 모두가 저를 잘 챙겨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재밌게' '잘'을 신조로 늘 처음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배들 존경합니다. 2. 다정 선배의 '전국 맛집 탐방' 취재에 동행했다. 지난달 현정 선배 '여행자의 방' 취재도 같이 갔는데 필기를 제대로 못 해서 아쉬웠다. 이번에는 노트와 여분의 펜을 가방에 넣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다. 촬영 현장을 보면서 '선배들은 이렇게 취재하는구나!' 감탄했다. 이번 호 '여행자의 방'을 혼자 취재 다녀온 뒤여서 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왔다. 선배의 행동을 일일이 노트에 적자 선배가 웃었다(하지만 전 정말로 진지했어요). 가게 사장님이 촬영할 음식을 세팅해 주었을 때, 평상시와 같은 양과 재료인지 확인하는 선배의 모습에서 취재의 깊이와 진실성을 엿볼 수 있었다. 나도 언젠가 주도적으로 취재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취재 후 촬영한 음식을 먹고 술도 마셔 기억에 남았을지도...). 선배들~ 코로나19 끝나면 꼭 같이 술 마셔요! **김재은**

2021 비엔날레 여행의 해

대한민국 예술여행 대표도시,

광주디자인비엔날레 2021.9.1.(수)~10.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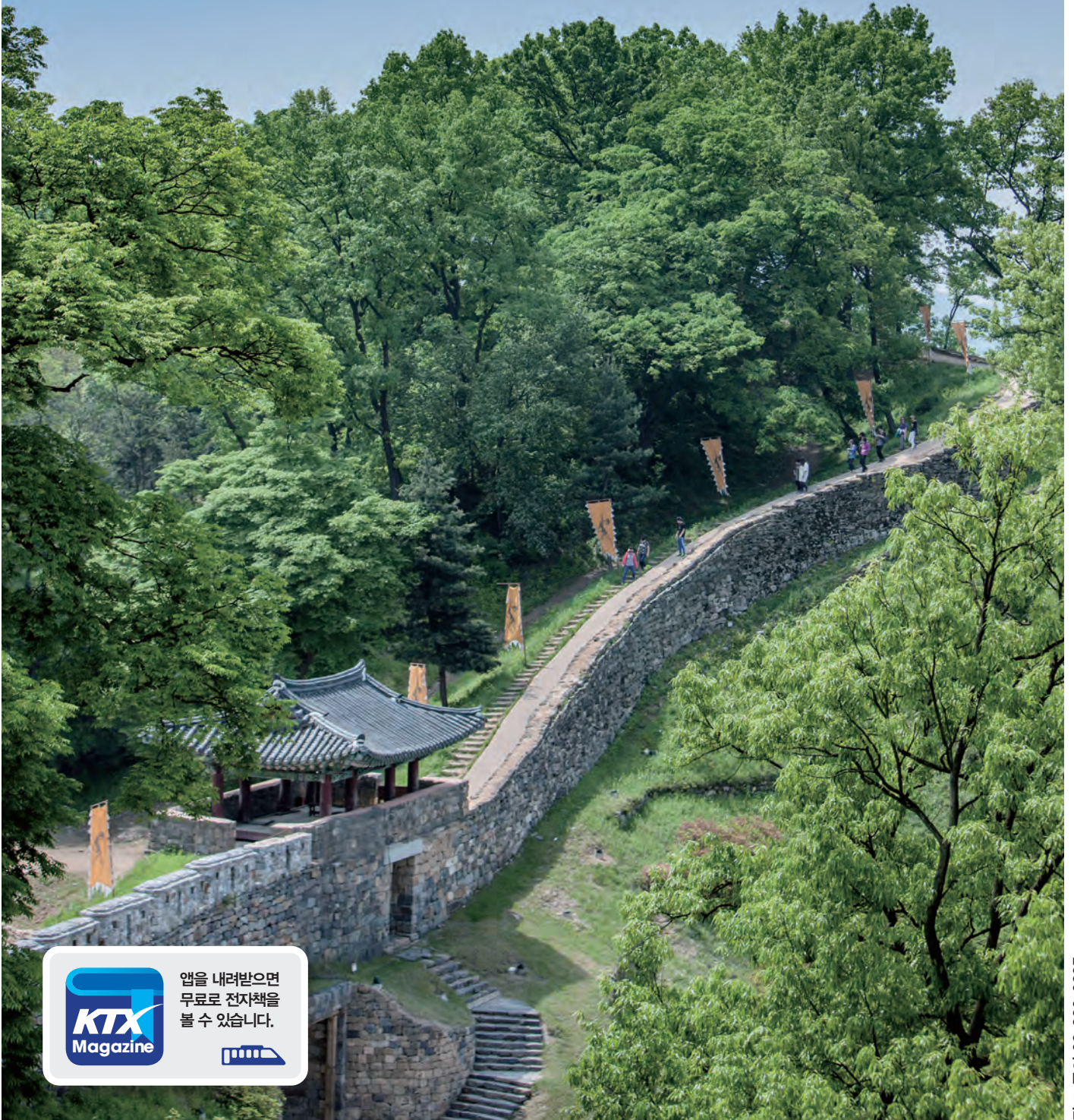
광주



KTX
기차 여행의 친구, KTX매거진


공주

백제문화제가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



앱을 내려받으면
무료로 전자책을
볼 수 있습니다.





그윽한
맛과 멋
완주

한 해의 결실을 수확하는 가을에 떠오르는 전북 완주 여행지를 찾았다.

글. 이내경 사진. 신규철

WANJU

TRAVEL SPECIAL

장독대에 술이 익어 간다. 좋은 술을 빚기 위해서는 여섯 가지 재료를 준비해야 한다. 쌀, 물, 누룩, 온도, 그릇 그리고 마음이다.

가을에 추수한 쌀로 만드는 술은 더욱 신선하고 부드럽다.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에서 전통주의 멋에 취한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완주의 여행지를 동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술의 모든 것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술 한 방울이 떨어져 사방에 퍼지는 모양을 형상화한 건물이 호기심을 자극한다. 대한민국의술테마박물관이 위치한 완주 구이면은 예부터 술이 유명한 고장이었다. 호남평야를 굽어보는 모악산 산중에서도 물맛이 으뜸인 수왕사에서 빛은 술 덕분이다. 조선시대 명승 진목대사가 고산병을 치료하고자 송화가루, 술잎, 송순을 주원료로 빛은 송화백일주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400년 가까이 전수된 사찰 법주다. 현재 명맥을 잇는 벽암 스님이 대한민국 식품 명인 제1호로 선정되면서 명성이 더욱 높아졌다. 술과 연이 깊은 지역에 세운 술 박물관이라는 사실에 기대감이 부른다.



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전시

술을 새로이 알아 간다. '술 꽃이 피는 역사관'은 박물관에서 맛보기 같은 공간이다. 온도와 습도를 맞추어 작품을 최상의 상태로 보존하는 수장고를 모티브로, 술과 관련한 물품과 생활유물 5만여 점을 전시한다. 넓은 공간 한편에는 술을 양조하는 순서대로 옛 도구를 배치하고, 다른 편엔 지역 소주, 막걸리, 와인 등을 주제별로 망라했다. 한 번에 술 500리터를 빚을 수 있는 소곡주 제조통, 향아리 걸면에 제조일자 와 제조량을 표시한 일제강점기 주세 검정용 술독, 술을 운반할 목적으로 만든 도자기인 술춘 등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도구가 당대에 술 빚던 이의 모습을 상상하게 한다. 유리병 막걸리도 흥미롭다. 재활용할 의도로 유리병을 택했으나 관리하기 어려워 정착하지 못했다. 눈이 닿는 전시물마다 낯선 과거를 마주해 보물을 발굴하는 기분이다.



발효 일일 체험·전문 교육

전통주를 제조해 본다. 고두밥, 누룩, 물을 적정 비율로 배합한 후 맨손으로 버무리자 고소한 향이 술술 올라온다. 대한민국의술테마박물관은 전통주 빚기, 하우스 맥주 만들기, 누룩 피자 만들기 등 일일 체험과 전통주, 와인, 명주 등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완주군 구이면 덕천전원길 232-58

☎ 063-290-3847



점점 전통 술에 매료된다. '술의 재료와 제조관' 초입에는 술을 빚는 열다섯 단계를 닥종이로 만든 인형이 안내한다. 인형의 귀여운 생김새에 집중력이 높아진다. 술은 빛은 이의 정성에 따라 맛이 달라지기에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자 기도를 올리는 형상부터 누룩을 띄우고 고두밥 짓고 물과 버무리 발효시키다가 청주, 탁주, 막걸리, 소주를 양조해 술통에 담아 배달하는 모습까지 인형으로 만들어 쏙쏙 이해가 된다. '대한민국 술의 역사와 문화관'에서 역사도 배운다. 삼국시대 제천의식에 등장한 술은 조선 시대에 이르러 황금기를 맞는다. 유교를 국가이념으로 채택한 당시에는 관혼상제 등에서 예를 갖추고자 가정에 술을 상비했고, 자연스레 집집이 술을 제조하는 가양주 문화가 발



달했다. 가문마다 향과 맛이 달라 술을 빚는 비법을 기록한 주방문이 대대로 이어질 정도였다.

찬란한 가양주 문화는 일제강점기에 무너진다. 내내 밝던 전시장이 어두워진다. '일제강점기, 우리 술의 말살' 전시 공간에서 안타까운 역사를 목도한다. 1909년 일본은 주류 종류와 제조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주세법을 시행해 민가의 자가용 주류에도 과세한다. 자가용 주조를 불법으로 취급하는 경교 문구가 붉은 글씨로 도배된 전단과 조선총독부의 양조장 통폐합 계획을 그린 '조선주 제조장 신배치 예정도' 등이 암울한 시대를 짐작하게 한다. 해방 전 다섯 차례 개정된 주세법으로 자가용 주조 면허자는 거의 사라졌고, 통폐합 과정에서 살아남은 주조업자가 내는 세금은 증가해 1934년에는 주세가 국세의 30퍼센트에 달했다. 안타까운 점은 현재 주세법도 일제강점기 주세법을 근간으로 시행된다는 것. 한국 술의 굴곡진 흐름을 가슴으로 느낀다.

우리 술 문화에 녹아드는 체험

이어지는 '주점 재현관'에서는 분위기가 한순간에 반전된다. 1960년대 양조장과 대폿집, 1990년대 호프집을 영화 세트장처럼 지어 놓았다. 전주 남부시장에서 장사하는 대폿집 옴팡집에서 시간 여행을 시작한다. 음식을 푸짐하게 내어 옴팡지다는 의미를 가진 옴팡집에서는 술자리가 한창이다. 그 사이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사진 한 장 찰카. 감쪽같이 실제 장면처럼 보여 찍은 이도 찍힌 이도 활짝.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관람의 마무리는 체험이다. 전시 내용을 상기하면서 전통주를 빚으니 이해도 두 배, 재미도 두 배다. 술의 모든 것을 알차게 둘러본 기분이다.

ATTRACTION

로컬푸드 행복정거장

생산부터 출하까지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받은 식재료가 싱그러움을 가득 전한다. 완주로컬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로컬푸드 행복정거장'은 농가가 당일 출하한 식재료를 소비자가 합리적 가격에 구매하고, 농부가 이윤을 창출하게 도와 모두가 행복해지는 공간이다. 현재 완주와 전주에 12개 지점이 있으며, 모약점은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사고파는 판매장과 함께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농가 레스토랑도 운영한다.

📍 완주군 구이면 모약산길 95 ☎ 1600-0125





WANJU

자연은 한없이 내줄 뿐 보채지 않는다. 1998년 개장한
고산자연휴양림은 국민 휴양림이자 완주군 축제의 장이다.
'나라꽃무궁화축제' '완주와일드&로컬푸드 축제' 등이
성대하게 열리는 장소다.

TRAVEL
SPECIAL

2



안수산 아래 아늑한 휴식처 고산자연휴양림

서로 거리 두기가 예의인 요즘 고산자연휴양림을 찾아 여유를 부린다.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일상생활의 제약은 우리에게 평범한 날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자연환경을 둘러볼 시간을 갖게 했다. 자유롭게 않은 지금은 지나간 여름날을, 어스레 다가온 가을날을 묵묵히 느끼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된다. 계곡물이 흐르는 울창한 숲에 둘러싸인 자연휴양림은 계절 변화를 만끽하는 최적의 장소다. 안수산 자락 아래 위치한 고산자연휴양림은 약 692만 제곱미터(209만여 평) 면적에 무궁화테마식물원, 숲속의 집, 야영장 등을 갖추어 사시사철 다른 매력으로 휴식을 선물한다.

180여 종 무궁화가 자라는 테마식물원

비밀의 화원에 입장한 듯하다. 고산자연휴양림 초입에 있어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식물원이다. 산림청이 지정한 무궁화 테마 도시 완주는 지역 곳곳에 무궁화를 심고 가꾼다. 2011년 전국에서 최초·최대 규모로 설립한 무궁화테마식물원은 총 200종 넘는 무궁화 중 180여 종을 11만 3000여 제곱미터(약 3만 4000평) 면적에 식재해 다양한 품종을 감상하도록 돕는다. 나라를 상징하는 꽃이기에 잘 안다고 생각한 무궁화에 대해 모르는 게 많았다. 7월에 개화해 약 100일 동안 매일 피고 지는 무궁화는 보통 한 그루에서 3000송이 이상 만개한다. 꽃 이름은 아침에 꽃봉오리를 터뜨리고 저녁에 시드는 과정이 끝없다고 해 붙었다. 강인한 생명력에 오래도록 한민족의 사랑을 받은 무궁화는 '애국가'에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이라는 가사가 쓰이면서 나라꽃이라 여겨진다.

무궁화테마식물원 길목을 장식하는 무궁화 모양이 제각각이다. 순백이 고운 무궁화, 꽃 한 가운데가 붉은 무궁화, 꽃잎이 여러 겹인 무궁화, 흠뻑으로 피어난 무궁화 등 모양과 색에 따라 배달계·단심계·아사달계로 구분하는데, 우리가 보통 떠올리는 분홍빛 흠뻑에 화심이 붉은 무궁화는 홍단심이라고 부른다. 평생 한 번도 못 볼지 모르는 다양한 무궁화를 눈에 담으며 가뭄하게 걸음을 옮긴다. 식물원 전체가 내려다보이는 무궁화동산으로 향하는 길에서는 뜻밖의 풍경을 만난다. 부드러운 산세가 연못에 투영돼 동화 속에 나올 법하다. 사람의 정성 어린 손길이 묻어나는 조경이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과 한데 어우러져 황홀하다. 꽃이 진 계절에도 이곳의 즐길 거리는 다채롭다. 잘 정비한



고산자연휴양림

창문을 열자 숲 뷰가 멋지다. 이곳은 문화·산림·웰빙휴양관과 독채 숙소인 돔하우스, 숲속의 집 등 객실 45개와 캠핑 사이트 81개를 올창한 숲속에 갖추어 쾌적하다. 특히 돔하우스와 숲속의 집은 앞에 놓인 테이블에서 취사가 가능해 고기를 구워 먹기 좋다.

📍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 063-263-8680





산책길이 걷기 편안할 뿐 아니라 인근 만경강에서 자라는 민물고기와 식물 등을 주제로 전시하는 만경강수생생물체험과학관, 무궁화오토크캠핑장 등이 관람객의 발걸음을 끌어들인다.

마음에 여유를 선사하는 휴양림

안수산 품으로 파고든다. 고산자연휴양림은 숲속의 집, 돔하우스 등 다양한 형태의 숙소를 제공해 휴양하기 제격이다. 숙소에 짐을 풀고 나서 바로 바깥으로 나간다. 숙소 가까이에 조성한 물놀이장에서 삼삼오오 물놀이하는 이가 보인다. 물에 발을 담근다. 차가운 물이 쌓인 피로를 깨끗이 씻어 보내려 보낸다. 잠시 '물멍'. 잔잔히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다가 파란 하늘에 둥둥 떠가는 흰 구름의 움직임을 가만히 응시한다. 시간의 흐름에서 자유로워지는 순간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충분하다.

이내 온몸에 서늘한 기운이 감돌아 산책을 떠난다. 고산자연휴양림 깊숙이 자리한 고산저수지가 목적지다. 하하 호호 웃던 사람들의 소리를 산새 울음이 대신한다. 세상과 멀어지자 자연과 나만 남는다. 고산저수지에 가까워질수록 아직은 푸른 단풍나무가 울창해진다. 붉게 물들면 예뻐 4킬로미터 둘레길이다. 저수지가 자태를 드러낸다. 산영을 드리운 잔잔한 수면이 마음을 평안하게 한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이곳에서 잠잠하다. 오직 현재만 존재하는 휴양림이다.

● ●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용산역에서 무궁화호를 타고 삼례역까지 3시간 20여 분이 걸린다. KTX를 이용할 경우 전주역이 가깝다.

ATTRACTION

오성한옥마을

종남산과 위봉산이 내려다보는 터에 전통 한옥 20여 채가 들어선 마을이다. 다정한 풍경의 마을엔 내력이 특이한 고택이 많다. 2016년 경남 진주에서 옮겨 지은 250년 된 아원고택은 현대 건축물과 어우러지며 미술관과 생활관이 공존한다. 아원고택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의 소양고택은 전남 무안군에서 이긴한 100년 넘은 한옥으로 플리커책방과 두베카페를 운영해 조용히 쉬어가기 좋다.

📍 원주군 소양면 오도길 73 📞 063-243-1022(오성한옥마을체험관)



우리가 꿈꾸는 모든 여행

포항

육해공이 모두 아름다운 경북 포항의
땅, 바다, 하늘을 누리러 떠났다.

글. 김현정 사진. 신규철



이가리돛전망대

끝부분이 돛 모양인 102미터 길이의 이색 전망대는 바다 위를 걷는 경험을 선사한다.

내연산치유의숲

내공 깊은 명산 내연산 자락에 치유의숲이 문을 열었다. 아낌없이 주는 숲에 잠시 깃들인다.

곤륜산 패러글라이딩

바닷가산 정상에 올라 날개를 달고 하늘로 뛰어든다. 평생 가장 짜릿한 하늘을 만난다.

이거리닷전망대

포항은 해안선이 204킬로미터에 이르는 도시다. 온갖 모습의 바다를 실컷 감상할 수 있는 포항에 지난해 새로운 해상 전망대가 들어섰다. 전망대에서 바다 위를 걷는다. 발아래 파도가 넘실대고 저 멀리 수평선은 망망하다. 바다는 언제나 그리움의 다른 이름이다.

📍 포항시 북구 청하면 이거리 산 67-3
☎ 054-270-3203



지구의 무엇보다도 거대한 존재,
 바다는 야성과 잔잔함이 공존한다.
 바람센 날 바닷가를 거니는 일은
 파도를 마음에 들이는 일이었다.
 파도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마음속 다른 소음이 작아진다.



파도가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부지런히 넘나든다. 바다가 펄펄 끓는 양 휘몰아치는 파도다. 이 앞에서는 박력 넘치게 달려들지만 저 멀리 수평선은 고요하기만 하다. 지구의 무엇보다도 거대한 존재는 성실한 야성과 깊은 잔잔함이 공존한다. 언제고 여행이라면 일단 바다를 떠올리게 하는 힘이 이것일까. 파도와 수평선을 번갈아 바라본다. 야성도, 잔잔함도 벌써 위안이다. 시야가 수평선까지 뻗어 나가고 입가는 기울어 올라가 미소가 어렵다. 눈을 감고 이 바다를 저장하려 애쓴다. 두고두고 꺼내 볼 바다다.

포항은 해안선이 204킬로미터에 이르는 도시다. 직선거리로는 남북이 약 55킬로미터인 도시가 그 네 배의 해안선을 구불구불 품었다는 뜻이다. 온갖 모습의 바다를 실컷 감상할 수 있는 포항에 지난해 새로운 전망대가 세워졌다. 바다 위를 걷는 경험을 선사하는 이가리돛전망대다. 바다로 보드라운 선을 뺀 102미터 길이의 전망대는 돛 모양이다. 항해를 마친 배가 육지로 돌아와 휴식

하며 내일의 항해를 준비하듯 돛을 내렸다.
 바다를 향해 걸음을 내딛는다. 10미터 아래에서 넘실대는 파도가 아찔하다. 중간의 빨간 지붕 등대 모형을 거쳐 전망대 끝에는 키 모형을 놓아두어 배를 직접 운항하는 기분을 내 본다. 돛 꼭짓점은 독도를 가리킨다. 정면으로 서면 251킬로미터 떨어진 독도와 정확히 마주하게 된다. 맨눈에 들어오진 않으나 거기 우뚝할 섬. 발밑의 바다는 이미 몇 번이고 독도를 다녀왔을 것이다. 그리고 보니 바다는 영원한 여행자다.
 전망대 옆으로는 조그만 간이 해수욕장이 이어진다. 모래밭에 갯바위가 점점이 자리 잡았다. 긴 세월 바위를 다듬은 바다의 솜씨가 일품이다. 어느 바위는 딱 거북 형상이라 신기하다. 파도가 다가와 귀를 씻어 주고 돌아간다. 그저 한 번이어도 귀와 마음이 시원해져 고마웠을 것을, 지치는 기색 없이 연달아 그리한다. 바람이 세고 파도가 강한 날 바닷가를 거니는 일은 파도를 마음에 들이는 일이었다. 철썩, 쇠아 하는 소리가 반복될수록 마음속 다른 소음은 작아진다. 바로 이 해변에 영화 <서복>의 주인공이자 복제 인간인 서복이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또 다른 주인공인 진짜 사람 기현을 위로했다. 우리는 바다를 좋아하니까, 여기서는 모두가 잠시나마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복잡한 세상살이 어느 모퉁이에서 이런 바다를 만났다는 건 행운이다. 일상에서 멀어진 만큼, 바다와 가까워진 만큼 가슴이 정돈된다.

바다를 걷는 동안 공술 무성한 언덕이 옆을 동행한다. 몇 그루 간신히 선 수준을 넘어 말 그대로 숲이다. 비탈에서 바닷바람 수십 년 머금고 뿌리내린 해송이 큰 숲을 이루었다. 저 바다에 이토록 아름다운 숲의 조화라니, 이 언덕의 바다가 몸서리치게 좋아 신나서 비탈을 밟았다. 나무 사이로 바라보이는 바다는 이가리가 준비한 회심의 선물이었다. 모든 프레임마다 영화 장면 같다. 마음에 드는 장소는 24시간이, 사계가 궁금한 밤. 캠핑이나 차박을 하면서 밤과 새벽, 아침의 바다와 숲을 만끽하는 사람도 많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마냥 보고 걸었을 뿐인데 뭔가 소원을 이룬 느낌이다. 그 대신 204킬로미터라는 포항의 해안선을 다 밟고 싶다는 새로운 소원이 생긴다. 그런 풍경의 바다다.

내연산치유의숲

안 내(內)에 끌 연(延). 안에 스며들수록 진가를 발하는 내연산 자락에 치유의숲을 조성했다. 땅에 뿌리내리고 한자리에서 일생을 보내는 식물은 사람에게 보약이며 스승이다. 향긋한 공기, 폭신한 흙, 자연만이 만들어 내는 풍경과 색. 몸과 마음이 기지개를 켜다.

📍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555
☎ 070-4667-2300





무성한 나뭇잎 사이로 드러난 하늘이 하트 모양이다. 서로 비키라, 양보하라 강요하지 않고 자기 자리 찾아 자란 나무가 마음으로 말을 건넨다. 숲의 향기, 소리, 촉감. 오늘도 숲에서 받고만 간다.



바다가 먼저 떠오르다지만, 포항은 빼어난 산의 도시이기도 하다. 원효대사 이야기가 전하는 운제산과 더불어 포항을 대표하는 산이 내연산이다. 조선의 견재 정선이 이 지역 청하현 현감을 역임한 2년여 동안 여러 번 방문해 그린 '내연산 삼용추'는 그가 산에서 받은 감동을 생생히 담은 진경산수화의 걸작이다. 안 내(內)에 끝 연(延)을 쓴 이름처럼 내연산은 안에 스며들 때 진가를 발한다. 천년 고찰 보경사와 열두 폭포, 그윽한 숲이 안으로 깊숙이 사람을 잡아당기고 마침내 자신의 안을 들여다보게 한다. 바다는 원래 물이라 해도 나무 뻗뻗한 숲 어디서 물을 이리 아껴 모았다가 폭포에서 거침없이 쏟아 내던 말인가. 안에 품은 것들을 걷는 자에게 하나씩 펼쳐 놓는 산의 내공이 대단하다. 명산의 산줄기에 '내연산치유의숲'이 최근 문을 열었다. 치유의숲이란 산림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해 치유 효과를 높이고, 산림치유지도사가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시설을 갖춘 숲을 일컫는다. 한국에 치유의숲은 현재 38개, 55만

5000제곱미터(약 16만 8000평) 규모의 이 숲은 경북에서 지자체 단위로는 처음 조성한 곳이다. 산림치유지도사가 안내하는 프로그램은 센터 건물에서 시작한다. 혈압과 체성분을 체크한 뒤 자율신경검사(HRV)를 실시한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혈관 탄성도 등으로 스트레스 정도와 피로도, 혈관 나이를 측정하는 검사다. 기계가 나의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능력 수치를 알려 주다니 흥미롭다. 전체 체험 프로그램을 마치고 한 번 더 검사해 숲이 몸에 미친 변화를 살핀다고 한다.

이제 숲으로 갈 시간. 지도사가 길 초입에서 몸과 마음을 준비시킨다. "평상시 주로 사용하지 않는 발목을 돌려 볼까요?" 왼발을 바깥쪽으로 돌리는데 삐걱대는 듯하다. 반대로 오른발을 안쪽으로 돌리기는 훨씬 수월하다. 아, 내 몸이 불균형했구나. 왼발의 존재가 새삼스럽다. 길은 작은 계곡을 따라 이어진다. 물소리, 새 소리가 귀를 간질인다. 나무 향기, 풀 향기가 온몸에 끼쳐 온다. 지도사가 숲속 식물과 동물의 사연을 들려준다. 삶의 방식도, 생김새도, 평생의 길이도 다 다른 존재들. 흙이 1미터 남짓한 길이로 우뚝투들 올라온 부분은 두더지가 지나간 흔적이라 한다. 그들의 치열한 세계가 사랑스럽다. 이 숲의 좋은 손님이 되고 싶다. 잘생긴 나무들이 내려다보는 풍요락에서는 평상에 가 부좌를 틀어 앉는다. 지도사가 '싱잉볼'이라는 티베트 지역 악기를 꺼내 가볍게 치자 목직한 소리가 가슴을 지잉 울린다. 소리 파동을 이용해 명상을 돕는 악기다. 작은 악기의 길고 깊은 파동이 심신을 쓰다듬고 지나간다. 어느 그들의 나무 베드에서는 누워서 하늘을 본다. 무성한 나뭇잎 사이로 드러난 하늘이 하트 모양이다. 서로 비키라, 양보하라 강요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찾아 자란 나무가 마음으로 말을 건넨다. 두 시간여 진행한 프로그램은 편백 향 가득한 족욕실에서 족욕으로 마무리한다. 따끈한 물에 발 담그고 좀 전에 다녀온 숲을 생각한다. 어떤 사람이든, 착하든 나쁘든, 건강하든 아프든, 의기양양하든 좌절 중이든 차별할 줄 모르고 다 내어 주는 숲이 거기 있었다. 숲에서는 늘 내가 염치없는 사람임을 깨닫는다. 오늘도 받고만 간다. 씩씩하게 살아갈 백신을 맞은 것 같다.



곤륜산 패러글라이딩

중력, 세상의 기준, 두려움, 고민. 나를 잡아당기는
모든 것을 땅에 두고 하늘로 날아오른다.
바닷가에 솟은 곤륜산은 바다, 들판, 산, 강,
마을이 한눈에 들어오는 '인생 패러글라이딩
명소'다.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구나, 응원받는 기분이다.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산 86
☎ 010-4510-0111

눈 질끈 감고 몇 걸음, 벌써 발이
 허공을 찬다. 내 그림자가 저 아래
 산에, 바다에 드리운다. 그림자와
 이만치 떨어져 보는 것도 이색
 경험이다. 하늘을 맛본 심장이 뜨겁게
 된다. 날고 있다. 살아 있다.



마음 단단히 먹고 산 정상에 선다. 이제 날개 달고 날아갈 참이니까. 포항의 바다와 땅에 이어 하늘을 누리려 곤륜산을 찾았다. 바닷가에 해발 약 177미터 높이로 솟은 산은 최고의 전망대다. 산맥과 바다를 조망하는 360도 사방이 절경이고 아무 데나 자리 잡고 아무렇게나 찍어도 인생 사진이라, 올라온 수고를 넉넉히 보상한다. 사람들 표정에 행복이 넘실거린다.

바닷가 산이라는 입지를 살려 곤륜산 정상에는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을 조성해 놓았다. 모든 방향으로 활강이 가능하고 산바람, 바닷바람이 비행을 도와준다. 위치가 탁월해 2019년에는 국제 대회인 패러글라이딩 월드컵이 열리기도 했다. 그분들이야 선수고 막상 하늘에 뛰어들려는 초심자는 심장이 쿵쿵거린다. 국가 공인 자격증을 보유한, 1000회 이상 비행 경력을 지닌 베테랑 지도 교관이 그 마음 다 이해한다는 듯 대화를 하며 긴장을 풀어 준다. 장비를 연결하고 제대로 착용했는지 확인하면서는 잠시 침묵. 1000번 넘게 비행했어

도, 그렇기에 더욱 꼼꼼한 장비 체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 지도 교관이 동승해 전 과정을 이끄는 2인승 비행에서 체험자의 역할은 오로지 날개를 얻은 이 시간을 즐기는 것뿐이다. 땅에 누웠던 날개, 캐노피가 수직으로 서고 공기가 들어간다. 이륙 준비가 끝났다. 정말 출발해야 한다.

“앞으로 달려 나가세요. 주저앉지만 않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눈 질끈 감고 몇 걸음 뛰었을까, 벌써 발이 허공을 찬다. 정신없는 중에도 뒤에서 사람들의 탄성이 들린다. 이토록 많은 이에게 응원을 받다니 황송하다. 용기를 내어 눈을 뜨자 아, 하늘을 날고 있다. 생애 가장 짜릿한 감동. 겹겹이 유려한 선을 긋는 산, 푸른 바다, 그 바다를 향해 먼 길 흘러온 강, 주황과 파랑 지붕이 예쁜 마을, 누군가의 땀이 일군 눈발이 어우러진다.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구나. 열심히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문득 다짐도 한다.

지도 교관이 저쪽에 튀어나온 곳이 호미곶이라고 알려 준다. 높이 나는 새가 되어 호랑이 꼬리를 바라본다. 동력 없이 바람과 열 기류를 읽어 패러글라이더를 상승·하강시키고 방향을 조종하는 기술이 놀랍다. 바다로 가까이 내려간 순간에는 수면에 발이 닿을까 겁났으나, 위험한 비행을 결코 시도하지 않는다는 조종사의 말에 안심한다. 패러글라이더 타는 총시간과 다양한 비행 기술을 체험하는 여부로 코스를 나누어 신청을 받되 조종사는 기상 상황이 허락하는 만큼만 움직인다. 하늘의 감동을 안전하게 나누기 위해서다. 바다 위로, 산 위로 패러글라이더 그림자가 드리운다. 내 그림자와 내가 서로 이만치 떨어진 것도 이색 경험이다. 초승달을 닮은 그림자가 웃는 듯하다.

10여 분 하늘을 맴돈 패러글라이더가 칠포해수욕장으로 내려온다. 모래밭이라 착륙하는 순간의 충격도 가벼운 편이다. 내가 밟을 한 뼉 땅이 고맙다. 그림자가 나와 다시 합체한다. 옆에는 커다란 날개 하나씩 달고 지상에 막 도착했거나, 좀 전에 도착한 사람들이 뿌듯하게 웃고 있다. “잘하셨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도 교관의 한마디가 용기를 준다. 이제 땅에 발붙이고 걸어 나갈 때다. 하늘을 맛본 심장이 뜨겁게 된다.

도심속 초록의 향연 포항 철길숲

100여 년 동안 포항의 역사를 함께한 철길이 쓰임을 다한 뒤 철길숲으로 다시 태어났다. 20만 그루의 식물, 포항의 특성을 살린 예술 작품, 숲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우러져 포항을 대표하는 녹색 공간이 되었다. 철길숲은 도심의 초록 심포다.

글. 이강덕(포항시장)



도시의 이미지는 때로 색으로 각인된다. 그리스 산토리니 해변의 푸른 지붕은 해변의 청량함을 더하고, 영국 런던의 빨간 버스는 흐린 날씨와 대비되어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그렇다면 포항을 대표하는 색은 무엇인가. 혹자는 거대한 회색빛 철강 도시를 떠올릴지 모른다. 포항 도시에 과감한 초록색을 붓질한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 이러한 생각은 시장으로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늘 머릿속 한 편에 자리 잡고 있었다.

지난 2015년, 100여 년간 포항의 산업 발전과 역사를 같이한 동해남부선 일부 구간이 KTX 개통과 포항역 이전으로 본래의 쓰임을 다하게 되었다. 폐철길은 과거의 영광을 뒤로한 채 시간이 멈춘 것처럼 쓸쓸해졌다. 활용 방안을 논의하면서 많은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끝에 대규모 녹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로써 도심 속 초록색 붓질을 위한 밑그림을 그려 나갔다.

이는 포항이 장기적으로 기획하는 '그린웨이 프로젝트' 의도에도 부합했다. 그린웨이 프로젝트는 도심, 바다, 산림이 공존하는 포항의 특성을 이용해 회색빛 산업도시에서 친환경 녹색 도시로 변모하려는 움직임이다. 철길숲은 그린웨이 프로젝트의 대표 성과가 되었고,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으며 많은 이에게 애정을 받는 공간으로 탄생했다. 쪽 뽕은 철길 산책로 주변을 가득 채운 100여 가지 수종, 20만여 그루 식물이 사시사철 제각기 다른 매력을 뽐낸다.

기존 철길과 시설물 일부를 보존한 덕분에 철길숲에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한다. 사람들은 철길을 따라 걸으며 영화 속 한 장면을 재연해 보기도 하고, 음악분수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어린 시절을 회상하기도 한다. 24시간 언제든 가까운 곳에서 휴식

을 취한다는 점도 매력이다. 6.6킬로미터에 이르는 선형의 철길숲은 모든 곳이 입구이자 출구다. 바쁜 일상생활에서 문득 휴식이 고플 때 철길숲은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갤러리, 음악분수, 음악방송 스튜디오 등 다양한 테마 공간과 걷기 대회, 콘서트, 버스킹 같은 문화 공연과 행사가 오늘의 휴식에 더욱 풍부한 이야기를 만들어 준다.

곳곳에 놓인 거대한 조형물도 눈길을 끈다. '포항 스틸 아트 페스티벌' 기간에 선정된 작품을 전시한 것이다. 이용덕 교수의 '만남 2017'은 작가와 포스코 노동자들이 합작한 작품으로 철의 노동을 예술로 승화했다는 점이 인상적이며, 박발룬 작가의 'Do·Do Project'는 내일로 향하는 걸음을 내딛는 도시민의 자화상을 떠올리게 하고, 주영호 작가의 '자연을 보다'는 인간의 두뇌와 뻗어 나가는 나무 형상의 접목이 감탄스럽다. 이처럼 개성이 풍부한 작품이 놓인 철길숲은 입장권이 필요 없는 거대한 전시관이다.

철길숲에는 특별한 공간이 하나 더 있다.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는 '불의 정원'이다. 숲 조성 중 우연히 천연가스 분출되며 불이 붙은 곳을 공사 당시 그대로 보존한 곳인데, 지하 200여 미터에서 시작된 불꽃은 제철 산업으로 유명한 포항의 용광로를 연상시킨다.

24시간 꺼지지 않는 불꽃이 포항의 희망을 말하듯 철길숲은 미래가 더욱 기대된다. 시민 호응에 힘입어 앞으로 철길숲을 2.7킬로미터 연장하고 시민광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여파로 모두가 힘들고 지친 요즘,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달콤한 휴식을 만끽할 곳을 찾는다면 걷기 좋은 포항 철길숲에서 일상에 커다란 녹색 심포를 찍어 보길 추천한다.



QR코드를 스캔하면
포항의 여행지를
동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포항역까지 KTX를 타고 2시간 30여분이 걸린다.

하늘에서,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내려다본다.
바다와 산, 강, 들과 마을이 새삼 예뻐 세상을,
삶을 더 많이 사랑하겠다고 속으로 고백했다. 날개 잡고
내려와 다시 밟는 땅은 이전의 땅과 다르게 느껴진다.
어딘가에 날개가 돋은 듯 가슴이 간질간질하다.